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10
2012 October Vol.250



부산시립극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리신차오



바이올린 이수빈

2012. 11. 2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서완춘·축일 서곡
막스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구스타브 홀스트·「행성」 모음곡

여성합창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수르나이 시하이빈·왕잔잔
우정출연 칭다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 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The Memories of

동행의 기억

Program

창작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숲에 앉아.....」

Piano Concerto No.1 in b flat minor op.23 Pf. 황성훈

Ballet "The Nutcracker" suite



지휘 이동신



피아노 황성훈



작곡 김동학

유나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2012. 10.11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2,000원 (균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uk United Korean Orchestra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BS 팝부산 Homeplus 장림점 사하인터넷뉴스 www.sahainetnews.co.kr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팝부산·부산은행 전 지점 나눔티켓 관람 | 초등학생 이상 가능 / 문의 : 051)220-5805

※ 스텝 :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 본 공연은 2012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시월의 마지막 밤 색소폰콘서트

색소포니스트 방준모



방준모

그룹사운드 빅 브라더스 단원
MBC 노래자랑 악단 단원
부곡하와이 최명철 악단 단원
색소폰 필하모니 실용 학원장
(주)다소니 뮤직 소사이어티 이사

출연

다소니색소폰콰르텟
숨어 우는 바람소리 가수 이정옥
소프라노 색소폰 조영미
클래식 색소폰 김동우
최명철과 말투스밴드
사회/송정유

로비식전행사

사단법인 국제 차문화교류협력재단
부산연합회 ▶ 차시연회



이 공연은 "BS금융그룹 행복한 금융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부 후원으로 실시됩니다.

2012. 10. 31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

주 최 | (주)다소니뮤직소사이어티

후 원 |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을숙도문화회관,  사상구, RISE 사회적기업연구원

문 의 | (주)다소니뮤직소사이어티 051)326-0224

협 찬 | (주)한국치공구공업, (주)삼득산업

- 06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로맨틱코미디 '말팔랑이 길들이기'
- 08 프리뷰
- 14 반갑습니다 |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할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콘서트 _ 김현도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⑩ |
<천일야화>(千一夜話)와 립스카-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 - 시대를 앞서간 천재 백남준 ① | 백남준의 과격하고도 세심한 행위음악 _ 안소현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② | 풍류는 화려한 가무를 입고 <부벽루연회도> _ 변광석
- 26 문화가화제 |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 28 그곳에 가면 | 지승공예박물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사하맘스 오카리나
- 32 리뷰 |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_ 박진홍
극단 해풍 창단공연 '어른왕자' _ 김문홍
- 34 테마가 있는 여행 | 포도향 가득한 충절의 고장 영천여행
- 37 CULTURE LIFE
- 61 나의 애청음반 | 애 가을 _ 조영석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3 100자 토크
- 6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년 10월호 통권 250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2년 9월 25일
인쇄처 |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www.ggad.co.kr



부산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로맨틱 코미디 ‘말괄량이 길들이기’

부산시립극단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로 10월, 부산시민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연출가 김경화가 ‘무엇이 될꼬하니’에 이어 4년 만에 부산시립극단과 호흡을 맞추면서 어느때 보다 작품의 기대가 높다.

일시 10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셰익스피어의 많은 희곡 중에서도 작품구성의 많은 결점들 때문에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지만 한편으로는 빠른 극 전개와 대중성, 오락성을 갖추고 있어 관객들에게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못지않은 관심을 받는 작품이다. 주된 내용은 호탕하고 쾌활한 신사 페트루키오가 소문난 말괄량이 캐더리너에게 청혼하여 말괄량이 캐더리너를 온순한 아내로 만든다는 것.

연출가는 연극을 즐기고 싶은 데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잠재관객들에게 연극적인 즐거움을 안겨주기 위해 대중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고전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지금 부산의 무대로 이끌어냈다.

김경화 연출가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비법은 예전 작품과 다른 새로운 장치가 가득하다. 극구성은 원작의 뼈대만 차용하여 번안의 틀을 뛰어 넘는 재창작에 가까운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거기에 '음악'을 가미해 운율이 가능한 대사는 가능한 노래로 처리하여 노래의 비중을 높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준다.

번안과 각색은 올해 부산연극제를 통해 이름을 알린 동서대학교 출신의 신인 연출가 겸 작가인 오리라가, 음악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실용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다양한 작곡활동을 펼쳐온 강원중이 맡았다. 극의 에피소드는 요즘 세상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인물 구성도 원작과는 다른 설정이다. 아버지 뱃티스트는 여성사업가 나성질 회장으로 대체하였고 말썽 많은 주인공 말괄량이 캐더리너는 21세기 최고의 말괄량이 최

별나로, 비앵커는 최달님으로, 페트루키오는 맹견조련사 맹렬한으로 설정하였다. 식사를 주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는 말괄량을 길들이는 비법 또한 16세기와는 다르다. 수많은 맞선자리에서 미친척하기, 혐오스러운 동작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맞선기피증 노처녀 최별나를 길들이는 것은 맹견 조련사 맹렬한이다. 객석은 개집으로 설정, 관객들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다.

김경화 연출가는 정신적인 바탕의 결혼보다는 물질이 중심이 된 요즘의 결혼 풍속도를 되짚어 보고 싶어 '최별나' 캐릭터에 많은 신경을 썼다. 최별나 역을 맡은 전지은을 비롯해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여름 내내 땀 흘려 준비한 새로운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자신있게 권한다.

· 연출/김경화 · 각색/오리라 · 작곡/강원중
· 출연/이현주, 정행심, 전지은, 염지선, 황창기, 이혁우, 이돈희, 박준서, 이수아, 주은실, 김정원, 박규한, 차승현, 윤준기

연출가 김경화

- 희곡작가, 연출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예능보유자(보존회장)
- 극단 <맥> 창단, 맥 대표 역임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장 역임
- 제15회 전국연극제 운영위원 역임
- 부산광역시립극단 예술감독 위원 역임
- 제5회 전국연극제 <노인, 새되어 날다> 연출상
- 제14회 부산연극제 <셋바람 부는날에> 대상
- 제14회 전국연극제 <셋바람 부는날에> 장려상, 희곡상 등 수상



● 셰익스피어 고전 '말괄량이 길들이기'가 현대 한국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Preview

제4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스테판 피 제키브

소프라노 박은주

●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야외 무대를 장식할 꿈의 콘서트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회 연주회가 10월 6일 영화의전당 BIFF Theater 야외극장에서 열린다.

2009년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국내외 무대에 널리 알려왔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일본 등지의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주자들과 국내음악인들이 음악을 통해 화합하며 함께 공감해온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영화의전당 개관을 기념해 열린 세 번째 연주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알리는 최고의 문화행사로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올해는 오충근의 지휘로 세계적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제키브,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박은주, 클래식 팝 보컬 비무티와 버숨새예술단, 400여명 규모의 부산연합합창단이 차이코프스키 '이탈리아 기상곡'을 비롯해 코른골트 '바이올린

협주곡',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 안익태 '한국환상곡' 등으로 특별한 가을의 추억을 선사한다.

수필가 고(故) 피천득 선생의 외손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제키브는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 가운데 한 명으로 2002년 미국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상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했다. 스테판 피 제키브는 2008년 비올리니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끄는 앙상블 디토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시작해 놀라운 집중력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한국 청중을 사로잡고 있다.

소프라노 박은주는 능숙한 고음처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 프리마돈나이다. 에리콰 쿼트 성악콩쿠르 1위, 룩셈부르크 국제 콜로라투라 성악콩쿠르 장려상 등 다수의 성악콩쿠르에 입상하고 1995년 Lucia di Lammermoor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박은주는 2003년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 최고의 성악가, 2009년 유럽의 음악 잡지 Opern welt에서 브레멘, 함부르크주 최고의 소프라노, 2010년 독일 중앙지 프랑크 푸르트 알게마이네에서 올해의 'Discovery'로 선정된 바 있다.

연세대학교와 뉴욕 맨하탄 음대에서 성악공부를 한 국내 최초의 클래식 팝 아티스트 비무티(Vimutti, 본명 홍범석)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풍부한 예술성으로 크로스오버 싱어의 범주를 넘어 클래식 팝 아티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시 10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장소 영화의전당 BIFF Theater 야외극장
입장료 무료(인터넷 신청)
문의 KNN 1577-7600 / www.knn.co.kr

부산시립합창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Carmina Burana'
B-Boy 'StepCrew' 와 만나다



지휘 오세중

●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서 유나이티드 코리아와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 전곡을 연주해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이 10월 12일 오세중 수석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버전의 '카르미나 부라나'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6월 정기연주회에 이어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휘봉을 잡은 오세중 지휘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이번 연주회의 부제는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B-Boy StepCrew 와 만나다'. 그동안 두 차례 '카르미나 부라나'를 공연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의 기존 무대와는 차별화된 이번 무대는 파격적으로 B-boy 'StepCrew'가 가세해 색다른 '카르미나 부라나'를 연출한다.

'카르미나 부라나(보이른의 노래)'는 칼 오르프의 정경 오라토리오(1936년)의 제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원래 요한 슈미러가 편찬한 노래집의 제목이었다. 1847년 요한 슈미러는 12세기에 만들어진 라틴어·초기 독일어 노래를 모아 이 노래집을 편찬했고 이후에 칼 오르프가 이 책에 수록된 서정시를 오라토리오의 가사로 썼다. 노래집은 독일 남부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는데, 세속적인 시와 노래를 비롯해 라틴어로 쓰인 축제의 희곡까지 천편이 넘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노래를 쓴 음유시인(방랑하는 성직자와 학자)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을 소재로 도덕시, 풍자시, 연애와 술을 다룬 시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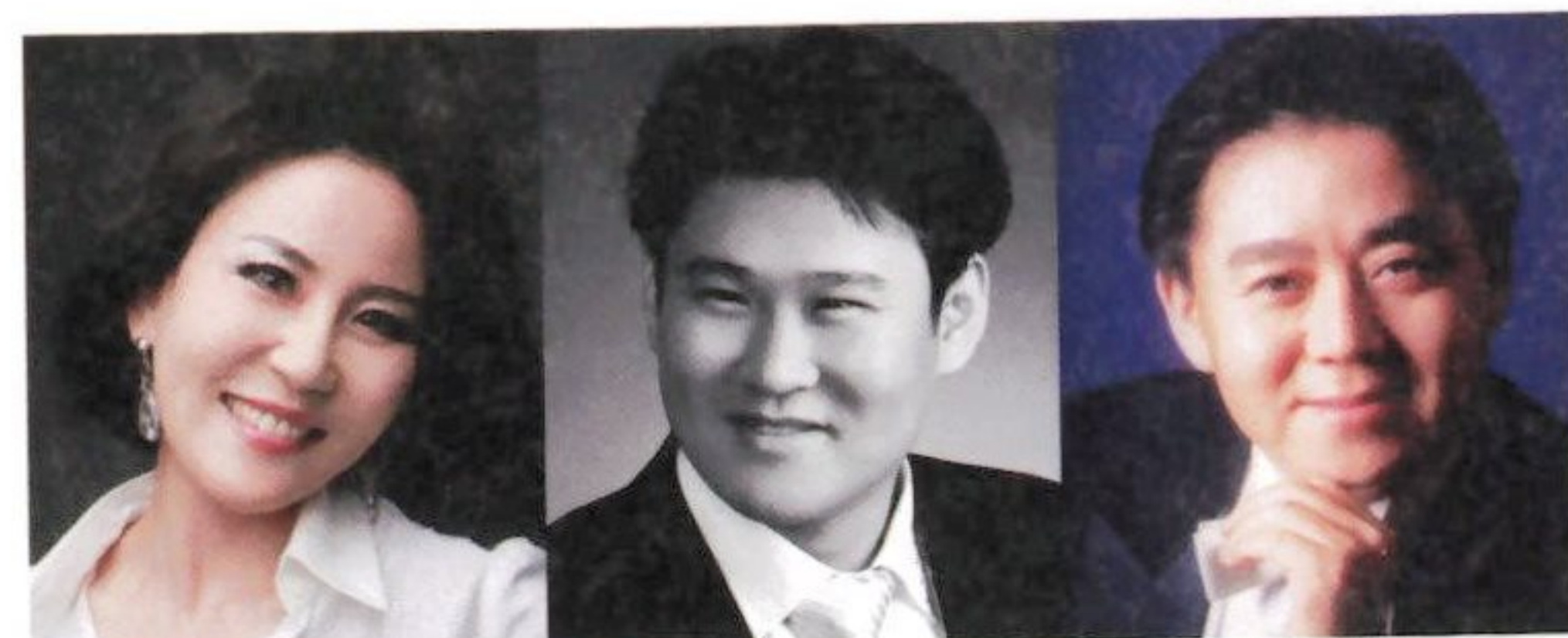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전통의 의미를 고

수하며 악보에 나와 있는 전 오케스트레이션과 합창을 선보이면서, 여기에 B-Boy 'StepCrew'라는 개혁의 아이콘을 도입해 'B-Boy'와의 장르 화합의 무대를 펼친다. 무대구성 역시 기존의 병렬형 무대가 아닌 입체적 무대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도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사)한국스트릿문화협회 프로연맹 대표팀인 B-Boy 'StepCrew'는 1999년 창단을 시작으로 국내 외 활동 뿐 아니라 문화 컨테츠 개발 및 기획으로 스트릿댄스 장르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솔리스트로는 현재 이화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미자, 부산시립합창단원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너 곽성섭, 카르미나 부라나의 독창자로 여러 무대에 선 바리톤 차중훈이 부산시립합창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B-boy 'StepCrew'



소프라노 박미자

바리톤 차중훈

테너 곽성섭

일시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 지휘/오세중(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
- 솔리스트/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곽성섭, 바리톤 차중훈
- 특별출연/B-Boy 'StepCr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3회 정기연주회



지휘 마크 고렌슈타인



바이올린 권혁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역대지휘자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마크 고렌슈타인과 젊은 거장 권혁주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한 특별 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20년 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는 마크 고렌슈타인은 1989년 우리나라 시립교향악단의 첫 외국인지휘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에 취임, 1992년 1월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다.

1989년 한 음악 전문지는 “미국에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그랬듯이, 한국에서는 부산시향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부산시향의 경우 단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호평한 바 있다. 부산시향 이후 마크 고렌슈타인은 1993년 러시아 심포니의 지휘자를 거쳐 2002년 러시아 국립심포니 예술감독, 수석지휘자로 취임, 오케스트라에 창조적인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펼쳐왔다.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을 석권한 권혁주는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을 통해 그 음악성을 검증받고 세계 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세에 바이올린을 시작, 11세에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를 차지해 금호아시아문화재단으로부터 전폭적 후원을 받으며 음악 영재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권혁주는 독일의

클로스터-센탈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러시아 암폴스키 콩쿠르 그랑프리, 러시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도 우승을 거두었다. 티혼 흐레니코프로부터 ‘러시아의 음악계보를 이어갈 차세대 주자’라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혁주는 1998년부터 금호아시아문화재단 고악기 임대사용자로 선정되어 Guadagnini, Parma(1763)를 사용하고 있다. 권혁주는 올해 27세의 젊은 나이에 안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임용되어 연주와 함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마르투치 ‘야상곡’을 시작으로 권혁주의 협연으로 듣는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에 이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파가니니가 남긴 6개의 협주곡 중 자주 연주되고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이탈리아 특유의 정열이 솟구치며, 화려함과 웅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파가니니 자신에 의해 초연되었다. 제3악장의 튀는 듯한 스타카토 주법은 당시 많은 음악인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해진다.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은 차이코프스키가 1888년 오랜 서유럽생활을 청산하고 10년 만에 작곡에 착수한 곡으로 호화롭고 색채적인 관현악법을 구사하고 있다. 제1악장 첫머리의 동기가 전곡을 통일하고, 제3악장에서는 통상적인 스케르초 대신에 화려한 왈츠가 쓰이고 있다.

일시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음악회

제25회 부산합창제

● 1985년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펼쳐진 최고의 합창축제 '부산합창제' 2012년 축제가 10월 23일과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합창단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면서 부산시립합창단과 수준 높은 문화를 공유해온 부산합창제는 부산지역에 합창 붐을 일으키며 각 구청 여성합창 창단을 이끌어냈다. 특히 해를 거듭하며 매년 합창제에 참가하는 지역 합창단들이 발표하는 세계민요와 가곡, 가요 등 레퍼토리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합창레퍼토리 발굴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을 맞은 올해는 전국적인 합창 붐의 열기를 반영하듯 다양한 성격과 연륜을 자랑하는 지역의 19개 합창단이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3일에는 노래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은 시니어합창단인 부산아모르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챔버싱어



부산시립합창단

즈, 센텀합창단, 예그린여성합창단, 명호여성합창단, 청솔합창단, CBS 여성합창단 등 부산의 주요 여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 뮤즈콘서트콰이어, Choir Friends가 참가한다.

24일에는 31년 전통을 자랑하는 목련합창단을 비롯해 종교합창단인 대원불교대학푸른합창단과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 혼성합창단 글로리콰이어와 부산콘서트콰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의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일시 10월 23일-24일
화-수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0월 23일(화)

부산챔버싱어즈(지휘/김현식, 반주/최은진)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반주/박재나)
부산아모르합창단(지휘/박정희, 반주/임혜선)
예그린여성합창단(지휘/손욱, 반주/이영숙)
명호여성합창단(지휘/류지원, 반주/최소영)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반주/손혜진)
CBS 여성합창단(지휘/이외균)
뮤즈콘서트콰이어(지휘/조현수, 반주/박유미)
Choir Friends(지휘/김강규, 반주/윤지영)

10월 24일(수)

대원불교대학푸른합창단(지휘/이순희, 반주/박미용)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강다현)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반주/박미용)
청라합창단(지휘/이득수, 반주/서효정)
해운대소리여성합창단(지휘/김진영, 반주/김주영)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반주/박성미)
은파합창단(지휘/이홍길, 반주/안선애)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반주/고지혜)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지휘/이연화, 반주/김태운)
부산시립합창단(지휘/오세종, 반주/이승윤)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이수빈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만 4세가 되던 해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수빈은 8세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입학, 김남운 교수를 사사하였다. 9세에 서울바로크합주단 전국음악콩쿠르에서 전체 대상, 10세에는 러시아 국제 청소년 바이올린 콩쿠르에서도 1위로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이수빈은 2010년 11월 금호영재콘서트 독주회로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11세라는 어린 나이를 초월한 놀랄만한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다.

● 1962년 11월 2일 창단,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창단 50주년 생일을 기념해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50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과 중국 전통악기 수르나이 연주자 시하이빈, 왕잔잔, 장래가 촉망되는 11세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 부산시립합창단과 김해시립합창단 여성연합합창단이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50주년 기념음악회를 함께 빛내준다. 영재 바이올린 주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수빈은 11살의 나이로 2012년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 참가해 주니어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현대작곡가 Li Shangjian의 결선 지정곡 'Entranced with Mountain Scenery'를 성숙한 해석과 탄탄한 실력으로 연주, 심사위원과 청중의

을 가지고 있다. 이수빈은 그동안 반기문 UN사무총장 환영 연주,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 방문 기념 청와대 초청 트리오 연주 등을 비롯한 국빈 환영 연주, 수원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다.

중국목관악기 수르나이 선율을 전해줄 시하이빈 (Shi Hai Bin 石海彬)은 오늘날 가장 인정받고 있는 수르나이 솔로주자 중 한사람으로 중국중앙음악원 부교수, 중국국립음악회 수르나이협회 상임위원, 중국전통음악회 회장 등으로 중국음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께 연주하는 왕잔잔(Wang Zhan Zhan 王展展)은 7살부터 외조모 왕화칭으로부터 수르나이를 배웠고, 2006년 중앙음악학원에 입학해 시하이빈 부교수를 사사했다. 왕잔잔은 2009년 대회 참가 선발전을 거쳐 제 7차 '중국음악대상'에 참가해 수

일시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수르나이 시하이빈



수르나이 왕잔잔

르나이 부문 2위를 기록했다. 2010년 '중양민족악단'에 입단한 왕잔잔은 지금까지 고음 및 솔로 파트 수르나이 연주를 담당하며, '천시에양' '옌후이창' '뤄지야' 등 유명 지휘자들과 함께 공연하였다. 축하무대를 위해 부산을 찾는 칭다오 심포니오케스트라(Qingdao Symphony Orchestra)는 중국 칭다오시정부의 지원으로 2005년 4월 재창단되었다. 칭다오 지역을 넘어 중국의 대표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칭다오심포니오케스트라는 중국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개최, CCTV 실황방송 등의 활동과 함께, 북경 국가대극원, 중국 북동부 3개 지역 투어 등 국내 순회연주회와 2007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2009년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 투어, 대만 교류음악회, 프랑스, 러시아 등의 해외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창단 50주년 기념 무대의 서막은 중국의 저명 작곡가 시완춘(施万春)의 '축일 서곡(节日序曲)'으로 연다. 1976년 작곡된 '축일 서곡'은 기쁜 날, 모든 사람들이 경축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주제로 한다. 중국의 전통악기 수르나이와 오케스트라 변주가 주

선율을 이루는 이 곡은 오케스트라와 민속 음악이 잘 어우러져 축일의 기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11세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브루흐가 남긴 여섯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스코틀랜드 환상곡과 함께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는 제1번 협주곡은 일반적인 협주곡 형식에 비해 형식이 자유롭고, 감상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1악장이 널리 알려져있다.

마지막 곡은 연주시간이 50분에 이르는 홀스트 '행성' 모음곡으로 장식한다. 이 곡은 1913년 스페인 여행 중에 점성술을 접하고 행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한 홀스트가 독창적인 착상에서 작곡을 시작, 1916년에 완성했다. 각 곡에는 신화 속 여러 신들의 이름인 행성의 이름이 부제로 붙어있다. 첫 곡 화성에서는 생명 탄생의 진통을 나타내는 듯 삭막하고 힘든 상황이 묘사되다가 마지막 곡 해왕성에서 잔잔한 여성합창음이 동원되어 조용하게 끝을 맺는 점에서, 홀스트는 우리 인생의 전개 과정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중국 칭다오심포니오케스트라



반갑습니다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용관

영화를 꿈꾸며 영화처럼 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산의 가을은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시작된다. 국내외 유명 감독, 배우들과 함께 하는 영화의 향연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부산국제영화제 열일곱 번째 향해를 준비하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올해 더욱 특별한 가을을 맞는다.

“올해 영화제에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75개국에서 출품된 304편의 작품이 영화의 전당 등 시내 7개 극장 37개관에서 상영됩니다. 지난해 미완성된 상태에서 손님을 맞아야 했던 영화의전당이 보수공사를 거쳐 완벽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나는 첫 영화제인 만큼 새로운 출발선에 선 느낌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태동부터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어온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전 김동호 집행위원장의 바통을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장기 청사진을 구상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해온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영화의전당 완공 첫해 제대로 된 영화제를 선보이기 위해 200여명의 스텝들과 쉼 없이 달려왔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까지 9일간 열렸던 영화제 기간을 올해부터 10일로 늘려 주말을 선호하는 관객들을 배려했다. 개막작으로 링록만, 써니 렉 공동감독의 범죄수사극 ‘콜드 워’를, 폐막작으로는 종교관과 세대간 간극 등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모스타파 파루키 감독의 ‘텔레비전’을 각각 선정,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의 질적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진 올해는 더욱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세계 오지를 다니며 영화지도를 완성한 프로그래머들의 땀의 결실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전 대륙의 영화가 소개된다.

아시아 필름 마켓에는 원작 판권의 판매를 원하는 출판사와 원작 판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프로듀서가 만나는 ‘북 투 필름’(Book to Film)이 신설된다.

영화 거장들의 신작과 세계 화제작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서는 허진호 감독과 배우 장동건, 중국 여배우 장쯔이, 장백지 등이 호흡을 맞춘 ‘위험한 관계’ 등 7편이 상영되고 ‘한국영화의 오늘’ 섹션에서는 베를린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에 빛나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를 비롯해 영화 ‘건축학개론’, ‘돈의 맛’ 등 27편을 상영한다. 장편 경쟁 부문 ‘뉴커런츠’에는 9개국 10편의 영화가, 비아시아권의 흐름을 보는 ‘월드시네마’에서는 45개국 75편의 영화가 소개될 예정이다. 부산영화제의 메카로 많은 향수가 어려 있는 남포동에서는 키즈, 실버 프로그램을 상영할 예정이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탕웨이를 비롯해 장쯔이, 곽부



성, 일본의 카세 료, 사토 타케루, 프랑스의 아네스 자우이, 스페인의 빅토리아 아브릴 등 ‘세계의 별’들이 부산을 찾는다.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1995년 부산국제영화제 출범에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그 중심에 있다. 1985년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당시 경성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젊은 영화인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에 모이게 되었고 영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영화언어’라는 영화비평지가 탄생되었다. 그때 멤버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수석프로그래머인 김지석 교수, 부집행위원장이인 전양준 교수, 박광수, 오석근 감독 등이다. 젊은 혈기로 부산에서 영화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막

연한 생각 뿐이었다.

1992년 우연히 이탈리아 해안도시 페사로에서 열리는 페사로영화제에 참가했던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칸느나 베를린영화제와 달리 제3세계 영화를 소개하는 페사로영화제에 매료되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귀국 후 ‘영화언어’ 멤버들과 영화제 개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첫해 관객 19만 명이 몰리면서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짧은 시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제 전체의 롤 모델입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의 애정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부산을 찾아준 관객들의 열정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최근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부산의 영화인재 육성을 위해 18년간 몸담았던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떠나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장으로 부임했다. 그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강의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부산의 대학들과 연합해 훌륭한 영화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으로 다시 부산행을 결정하게 되었다.

17회 영화제는 막이 오르지만 그의 고민은 끝이 없다. 365일 연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과 함께 전 아시아 영화를 위한 공동 투자마켓 형성, 한국 및 아시아 영화제작 지원의 활성화 등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출발선에 선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그와 함께 하는 가을 영화의 바다는 언제나 활력이 넘친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헐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 콘서트

김현도_오스트리아 통신원, 작곡가



헐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콘서트가 10월 21일, 22일 비엔나 콘서트홀(Wiener Konzerhaus)에서 열린다. '비엔나의 헐리우드'는 현재와 고전 명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들을 초청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영화음악 갈라콘서트로,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역사깊은 비엔나 콘서트홀(Wiener Konzerhaus)에서 Vienna Radio Symphony Orchestra(RSO)의 연주로 열린다.

헐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 콘서트

헐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 콘서트는 2007년 산드라 토맥을 통해 개최되었으며, 초창기엔 'Best of film music' (B.O.F.M)으로 불리었다. 헐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 콘서트 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음악 작곡가들에게 매년 '막스 슈타이너 상'을 수여하는데, 역대 수상자로는 2009년 존베리(제임스 본드), 2010년 호워드 쇼어(반지의 제왕), 2011년 알란 실베스트리(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올해 수상자로는 랄로 슈프린(미션 임파서블)이 선정되었다.

비엔나 출신의 막스 슈타이너(Max Steiner, 1888~1971)는 헐리우드의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개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에는 '킹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등이 있다. 막스 슈타이너는 다른 많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와 함께 작품을 하였는데 에릭 볼프강 콘골드와는 '로빈훗의 모험'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과 로맨틱한 멜로디로 전형적인 '헐리우드 사운드'의 기반을 만들었다. 갈라콘서트는 'Hollywood in Vienna'를 통하여 음악의 도시 비엔나로 다시 그 뿌리가 돌아오게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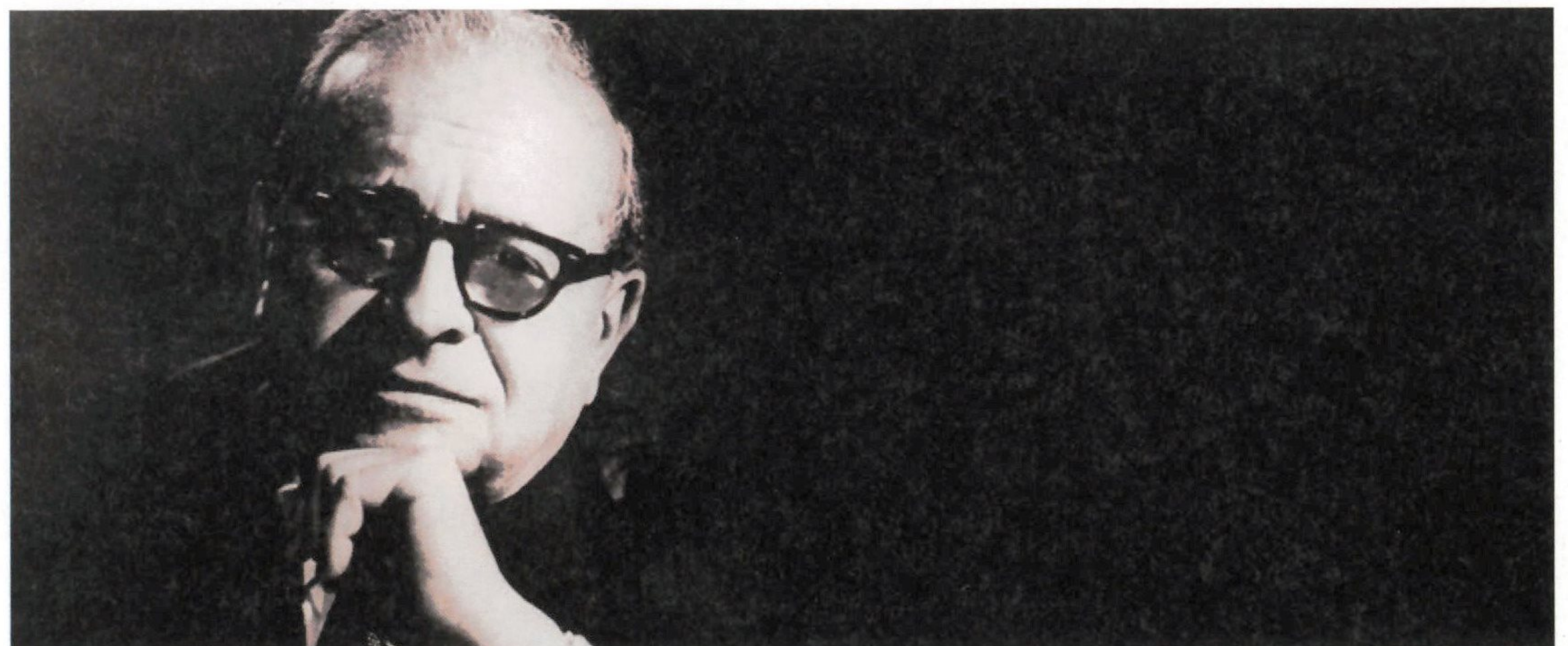
'영화음악의 아버지' 막스 슈타이너

Maximilian Raoul Steiner

영화음악은 20세기에 무 조성과 조성 다양한 기법과 소재로 하던 작곡가들에게 무대가 아닌 스크린을 통해 작품이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줬다. 대중예술이라는 영화의 독특한 입장에 걸맞게 영화음악도 클래식과 팝의 접점에서 새로운 장르를 형성해 성장했다.

때문에 최근 들어 '영화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20세기 음악'이라는 극단론까지 일고 있다. 영화음악에서는 조성음악도, 무 조성음악도 모두가 인정받기 때문에 필자가 매력을 느낀 부분이기도 하다.

- '영화음악의 아버지' 막스 슈타이너는 영화 '킹콩' '바람과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 세계 최초의 영화음악 갈라콘서트인 '할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콘서트'는 매년 9월, 또는 10월에 비엔나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1920~30년대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은 거의 유럽 출신이었고 막스 슈타이너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수학하며 살았던 동네인 비엔나 2.bezirk(Leopold stadt)에서 1888년 5월 10일 태어난 그는 15살 때 오페레타를 작곡한 '신동'으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현재는 빈 국립음대)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구스타프 말러를 사사했다. 그는 그 후 런던을 거쳐 뉴욕으로 건너가 브로드웨이에서 조지 거쉰(George Gershwin) 등의 작곡가들의 곡을 편곡, 지휘하며 활동했다.

1929년 뮤지컬 '리오 리타'의 영화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터 할리우드에서 활약한 막스 슈타이너는 고향 후배인 에릭 콘골드(1897~1957)와 더불어 '할리우드 1세대 작곡가'다. 누구나 들었을 법한 워너 브러더스 제작의 영화는 로고와 함께 어김없이 슈타이너가 작곡한 'Fanfare'로 시작된다.

그는 35년간 '킹콩'(1933년)을 비롯해 무려 3백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많은 작품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남자의 적(1935년)' '당신이 떠난 후(1944년)' 등으로 아카데미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처음부터 영화의 배경과 배경을 모티브로 작곡한 그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음악은 계속 흘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주제가 보다는 분위기와 효과를 위한 배경음악에 치중했다. 그 이유로 널리 알려진 주제가로는 '타라의 테마'(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서머 플레이스'(피서지에서 생긴 일) 등 몇 곡 뿐이다. 음악적으로 막스 슈타이너의 음악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멜로디에 바그너,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스타일의 웅장하고 화려한 관현악 편곡을 곁들여 후기 낭만주의 계열의 짙은 유럽적인 취향으로 평가받는다.

최종 리허설 General Probe

필자가 처음 접했던 2009년도 콘서트는 아쉽게도 표가 매진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1년을 애타게 기다렸으나 2010년도에도 안타깝게 공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최종 리허설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최종 리허설(General Probe)은 실제 공연과 다를 바 없었다. 비엔나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면 흔히 있는 일이다.

오히려 같은 곡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기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지휘과, 작곡과 학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2010년에는 호워드 쇼어의 '반지의 제왕', 존 윌리엄스의 '인디애나 존스' '쥬라기 공원', 클라우스 바텔트의 '케러비안의 해적', 막스 슈타이너의 '타라의 테마' 등 늘 오디오로 즐겨 듣던 곡들이 연주되었다. 많은 클래식 공연과 대가들의 연주를 봤지만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즉 공감과 기대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음악을 실황연주로 들었을 때의 감동과 황홀함은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실황은 아니더라도 인터넷 www.hollywoodinvienna.com에서 영상자료를 찾아 볼 수가 있다.

2011년에는 알란 실베스트리의 '백 투더 퓨처' '포레스트 검프' '폴라 익스프레스' '캡틴 아메리카', 존 윌리엄스의 '해리포터' '후크' 'E.T' 등의 영화음악이 연주되었다.

영화음악 토론회 Film Music Symposium

공연 전에는 빈 국립음악대학(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Wien)에서 토론회와 워크숍이 열린다. 학생들을 위해 여러 헐리우드 작곡가들과 오케스트레이터들이 영화음악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노하우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예를 들어 영화 '해리포터' 장면 중 돌로레스 엄브릿지 교사가 위즐리 쌍둥이에게 불꽃으로 당하는 장면에서 작곡가를 위해 오케스트레이션 8개를 준비해가며 승락을 얻기까지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8개 버전을 모두 시청한 후 마지막 버전에서 얻은 성취감은 끝내줬다고 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실베스트리는 감독과 작곡가의 관계를 설명하며 영화의 주인은 작곡가가 아니라 영화감독이기에 충분히 감독의 의도를 반영해 그 안에서 예술적인 부분을 충분히 살려야 하기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으로 헐리우드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악보에 작곡을 하였는지, 컴퓨터로 작곡을 하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실베스트리는 필사보로 하였지만 요즘 많은 작곡가는 컴퓨터로 작곡한 후 오케스트라 녹음을 위해 Finale로 악보를 사보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에게는 사소한 것부터 모르는 부분까지 챙겨 들을 수 있는 귀하고 흥미로운 시간이며 헐리우드 진출을 꿈꾸게 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리이다. 올해는 10월 19일에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이다.

● 헐리우드 인 비엔나 갈라콘서트에서는 영화음악토론회가 함께 열려 참석한 학생들에게 헐리우드 작곡가들과 오케스트레이터들이 영화음악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노하우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말해준다. (사진은 필자와 영화음악 작곡가 실베스트리)



Hollywood in Vienn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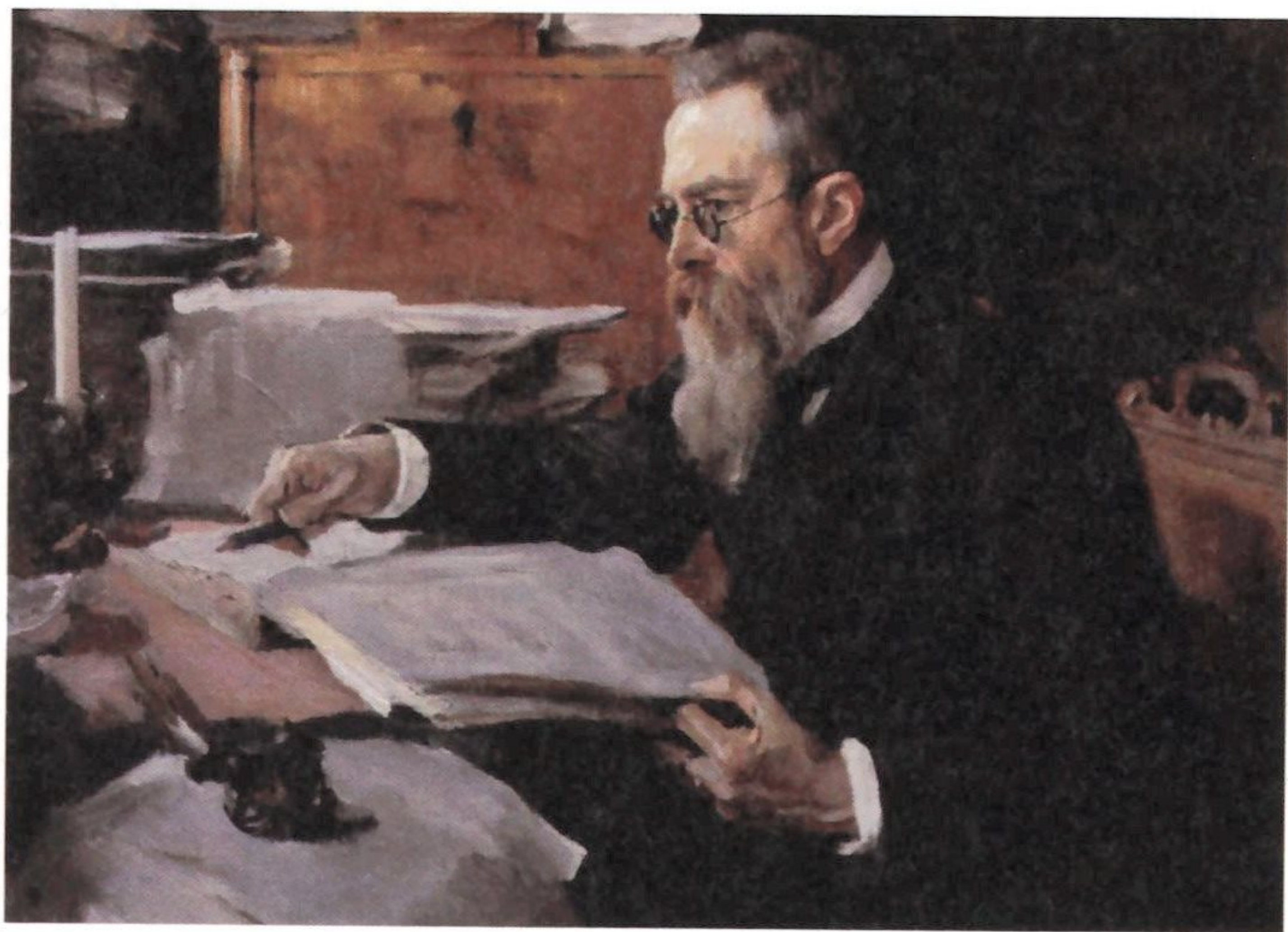
올해의 영화음악 갈라콘서트는 영화에 스릴 있는 순간들을 비엔나 콘서트홀에 가져 올 계획이다. 올해의 '막스 슈타이너상'을 수상한 랄로 슈프린은 TV연속극으로 인기를 누린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의 테마음악으로 유명하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작, 편곡가이자 재즈 뮤지션이며 피아노연주자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그는 클래식교육을 이수하고 재즈에 심취해 터득한 음악적 기반을 토대로 영화음악 작곡가로 자리매김을 했다. 랄로 슈프린은 네 번의 그래미상 수상과 아카데미에 6번 노미네이트된 음악계의 거장이다.

오는 10월 21일, 22일에는 랄로 슈프린 '미션 임파서블', 데이빗 뉴먼 '아이스 에이지', 요세프 아이히홀저 '디 펠서', 데이빗 아놀드 '제임스 본드'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된다.

영화음악의 아버지 '막스 슈타이너'를 통해 개척된 '헐리우드 사운드'가 오랫동안 잠잠했던 비엔나에서 울려 퍼지게 될 10월은 기대되며 기다려지는 영화음악축제의 달이다.

〈천일야화〉(千一夜話)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림스키-코르사코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알라딘과 요술램프’, ‘신드바드의 모험’... 만화로나 옛날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동화책을 통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에게는 로맨틱하게 또 다른 이에게는 신기하게 지금도 기억될 것이다. 이 환상적인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나이트〉이다. 〈천일야화〉는 왕비가 몰래 노예와 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샤리아르가 여자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후 하룻밤을 함께 보낸 여자들을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3년 동안 매일 밤 여자들이 죽어나가자 대신의 딸 세헤라자드는 왕의 나쁜 행실을 고치기 위해 왕비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는 꾀를 내어 매일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줌으로써 목숨을 보전하고 결국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180여 편의 주요이야기와 100여 편의 짧은 이야기가 곁들여진 〈천일

야화〉는 6세기경 사산왕조 때 페르시아에서 모은 〈천의 이야기〉가 8세기 말경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여기에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다시 많은 이야기가 추가되어 이루어졌다. 그 후 카이로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여, 15세기경 현존의 것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페르시아에는 인도로부터 많은 설화가 들어왔으므로 〈천일야화〉에는 인도와 이란·이라크·시리아·아라비아·이집트 등의 갖가지 설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와 유대교의 영향도 있으며 그 구성 또한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아랍어와 이슬람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듯 1001일 밤의 재미있는 이야기 〈천일야화〉를 읽다 보면 이슬람 세계의 풍속, 관습, 법률, 종교, 역사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와 격언들이 이야기의 중간에 많이 나와 아랍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여러 모험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에 빠질 때 신기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위험을 빠져나가거나, 주위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랑을 고백하거나, 조연을 한다. 이 외에도 생활 속 깊이 박힌 종교적 생활, 남녀에 대한 의식차이, 아름다움과 사랑과 성에 관한 생각 등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다.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1844-1908)는 이른바 ‘러시아 5인조’ 작곡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고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그의 빼어난 관현악법은 많은 음악가들의 찬탄을 받았고 관현악곡의 모범으로 여겨졌다. 그 가운데서도 〈세헤라자데〉는 〈스페인 기상곡〉과 더불어 완숙기에 도달한 그의 관현악법이 실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걸작이다. 또한 이 곡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단순히 관현악법 때문만은 아니다. 전곡에 걸쳐 짙게 배어 있는 이국적이고도 관능적인 정취와 단순하고도 호소력 짙은 선율미야말로 이 곡을 오늘날의 명성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물론 이 곡이 〈천일야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비록 <천일야화>에 근거하여 이 곡을 작곡하였지만 그의 의도는 특정한 줄거리를 음악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양적인 분위기를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있다.

림스키-코르사코프가 <세헤라자데>를 작곡하기 시작한 것은 마흔네 살 때로 작곡가는 그해 6월 25일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곡의 초고를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관현악 총보가 완성된 것은 7월 26일이었다. 그는 이 곡에 착수하게 된 계기에 대해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원래부터 환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또 젊었을 때 해군 장교로서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던 경험 역시 작곡가에게 이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불어 넣었을 것이다.

1악장 '바다와 신드바드의 항해'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한다. 맨 첫머리에 제시되는 위압적인 금관 주제는 샤리아르 왕을, 솔로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슬프고 호소하는 듯한 선율은 세헤라자데를 묘사한다. 그리고 이 두 주제는 전곡에 걸쳐 등장한다. 이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듯한 음형위에 왕의 주제가 변형되어 연주된다. 신드바드의 주제가 플루트로 조용히 제시되고, 다시 독주 바이올린이 세헤라자데의 주제를 화려하게 장식한 형태로 연주한다.

2악장 '칼렌더 왕자의 이야기'에서 '칼렌더'는 이슬람의 탁발승을 말하는데 작곡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이야기를 지목해 음악화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서주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세헤라자데의 주제를 연주한 뒤 바순이 탁발승 왕자의 주제를 연주한다. 이 주제가 여러 악기를 거치면

서 점차 고조된 뒤 왕자의 모험을 묘사하는 듯한 위협적인 주제가 금관으로 힘차게 연주된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 중간부가 다채롭게 전개된 뒤 다시 왕자의 주제로 되돌아가 화려하고 박진감 있게 마무리된다.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는 아름답고 이국적이면서 우아하여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현악기의 관능적인 선율이 젊은 남녀의 사랑을 묘사한다. 중간부에서는 작은북의 독특한 리듬을 타고 춤을 추는 공주의 아리따운 모습이 클라리넷으로 묘사된다.

4악장 '바그다드의 축제-바다-난파-종결'은 이전 악장들의 여러 주제가 번갈아 가며 등장해 일대 축제를 벌이는 악장이다. 먼저 왕의 주제가 성급하고 투명스럽게 제시된 뒤 이를 무마하듯이 세헤라자데의 주제가 등장한다. 두 주제가 변형된 형태로 한 번씩 더 등장한 다음 악상이 일변해 급박하게 전개되는 리듬을 타고 바그다드의 축제가 펼쳐진다. 2악장의 주제가 연주되고 이어서 1악장에서의 바다 선율이 더 큰 스케일로 펼쳐진 뒤 배가 난파하고 나면 2악장과 3악장 주제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다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독주 바이올린이 세헤라자데의 주제를 연주하고, 이어 저음 현이 왕의 주제를 차분하게 연주한 뒤 양쪽이 어우러지면서 두 남녀의 진정한 결합을 알린다.

1001일 밤에 걸쳐 이어진 왕과 왕비의 이야기만큼이나 면면히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은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어느 잔혹한 왕과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가씨의 사랑은 세계문학 사상 불멸의 걸작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관현악 음악사상 최고의 걸작으로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 180여 편의 주요이야기와 100여 편의 짧은 이야기가 곁들여진 <천일야화>는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모은 <천의 이야기>가 8세기 말경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여기에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다시 많은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백남준의 과격하고도 세심한 행위음악

안소현_백남준아트센터 큐레이터

“피아노는 건반 악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 발현악기, 타악기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음악가들이 신문을 읽고, ‘관객들과 얘기하고’, 그랜드 피아노를 밀고, 피아노를 뒤집을 것입니다. 피아노가 무대에서 관객들이 있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관객들은 무대를 향해 폭죽을 던지고 권총을 쏘고 유리잔을 깨 것입니다. 그리고 스퀘터가 무대 뒤에서 도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난감, 일기예보, 뉴스, 스포츠중계(라디오), 부기우기, 물, 녹음기 소리 등 다시 말해 기능에서 해방된 실용적인 소리들이죠.”

-백남준, ‘볼프강 슈타이네케에게 보내는 편지’(1958년 12월 8일) 중에서

● 백남준 초상



이 대목은 백남준이 자신의 첫 행위음악 작품인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의>의 공연 계획을 묘사하는 편지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먼저 일상의 소리와 잡음들을 녹음한 테이프를 제작되었고, 같은 제목의 행위음악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공연된 백남준 초기의 주요 작품이다. 영상은 남아있지 않고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의 묘사만으로도 그 정신없는 난장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한 백남준의 작품은 TV 모니터를 결합하여 인물이나 구조물을 만든 소위 ‘비디오 조각’이지만, 초기의 백남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이런 ‘행위음악(action music)’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끌벅적한 공연에서 백남준은 4분33초 동안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존 케이지(John Cage)에게 오마주를 바친 것일까?

독일에서 작곡을 공부했던 백남준은 다름슈타트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존 케이지의 공연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는다. 당시 존 케이지는 퍼포머가 등장하는 음악을 작곡하고, 곡 안에 우연적 요소들을 배치하여 작곡자 자신도 결과를 알 수 없는 곡들을 만들었다. 이런 실험에 신선한 자극을 받은 백남준은 좀더 과격한 행위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1959년에 백남준은 다른 행위음악 작품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을 공연하는데, 그는 객석의 존 케이지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벡타이를 자르고, 샴푸로 케이지와 또 다른 관객의 머리를 감겨 버렸다. 다른 작품에서도 백남준은 피아노를 넘어뜨리거나 부수고 관객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런 충격적인 도발은 당시 백남준을 하나의 스캔들로 만들었다.



●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공연 준비 장면(만프레드 레베 사진,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백남준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1958-1962, 사운드 레코딩, 4분13초,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그러나 백남준의 행위음악을 그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소란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의 편지가 보여주듯, 백남준의 공연은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으며, 그 치밀함은 굳어진 예술의 벽을 깨뜨리려는 주도면밀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백남준은 12음계에 집착하는 고전적인 음악이나, 이후 등장한 음렬주의(특정 음악적 요소를 한 음렬마다 순서대로 모두 사용하는 작곡이나 연주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남준은 이런 전통음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존 케이지의 우연의 음악에서조차, 관객은 늘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객이 작품의 일부로 참여한다고 해도(예를 들면 4분33초의 관객들의 웅성거림) 당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남준은 좀더 적극적인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존 케이지의 공연에서 당황한 관객이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백남준의 공연에서 관객들은 대답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몸을 움직인다. 관객은 백남준의 행위음악이 당황스럽고 과격하다고 느끼지만 그 사건에 같이 참여하여 움직임으로써, 어느새 그는 백남준의 작품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능동적 위치에 서게 된다. 백남준의 행위음악은 거칠고 난폭하지만, 그 과정에 관객의 적극적 행동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조각, 마치 주어진 상황을 조각하는 듯한 작품이 된다.

풍류는 화려한 가무를 신고 부벽루연회도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부벽루연회도> 일부

평안도(평양)는 예로부터 서도(西道, 西都)라 불리며 한양 이북으로 가장 변화한 땅이었다. 더구나 평양 대동강변의 부벽루는 을밀대 및 연광정과 함께 그 이름이 나란히 높았으니 권세높은 양반들의 유흥지로서의 랜드마크였다. 으레 평양감사가 부임하면 여기서 도회지가 온통 떠들썩하게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다. 중국 연경에 왕래하는 사신들도 모여 풍악을 즐기기도 했고, 심지어 중국 사신들도 한양에 왕래하는 길에 이곳에 꼭 들리고 싶어했으니 재삼 강조할 필요 없겠다.

세조·성종대 유명한 문신, 학자 서거정(徐居正:1420~1488, 호는 四佳亭)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게다. 서거정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동갑내기 조효문(曹孝文: 1420~1462)이 있었다. 그는 명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서 다녀온 뒤, 나이 마흔에 대사헌을 거쳐 평양감사가 되었다. 그러자 서거정은 임지로 떠나는 그를 위해 읊었다.

소년시절 두 과방에서 서로 친하였고 / 少年兩榜忝交親
생사로 우정 논한 지 이십 년이 되었네 / 生死論情二十春
내 예조에서 졸렬함만 지킴은 부끄러우나 / 愧我南宮空知拙
그대 서도에서 좋게 다스리는 건 기쁘구려 / 喜君西道好宣巡
오늘날 청운 길의 지기지우를 만났으니 / 靑雲今日逢知己
후일엔 백발로 친구를 의지하게 되리라 / 白首他時仗故人
이별의 자리에서 준 말을 꼭 기억하여 / 臨別贈言須記取
다시 태평성대에 공업을 세워주게나 / 更將功業樹昌辰

감사의 풍류는 실컷 자랑할 만하거니와 / 使相風流儘可誇
서도는 예로부터 변화하다고 이름났었지 / 西都自昔說繁華
대동강가의 푸른 산은 그림과 같을 게고 / 大同江上山如畫
부벽루 앞의 달빛은 흰 물결과 흡사하리 / 浮碧樓前月似波
비단 닷줄 상아 돛대로 간 곳마다 즐기자면 / 錦纜牙檣隨處樂
아름다운 기녀에게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 / 靑娥皓齒惱人多
그대 보내며 일찍이 놀던 땅 기억하건만 / 送君記憶曾遊地
거듭 가보고는 싶으나 병든 몸을 어찌하랴 / 蹤使重過奈病何

조효문은 세조를 끝까지 도와 좌익공신이 되었고 시호가 성탁(成度)이었는데 그 내력이 <세조실록(8년 10월 10일)> 졸기(卒記)에 나온다. 특히 그는 문관이면서도 호방한 무관기질도 있었던 것 같다. 이별하면서 소임의 공업을 세우길 당부하면서도, 서거정으로서 절친한 벗이 호의호식하는 평양감사 자리에 나가니 꼭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아름다운 기녀에게 신경도 많이 쓰일 거라는 말은 참으로 진솔한 표현이다.

오늘 감상할 그림은 김홍도의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 종이담채, 71.2×196.9cm, 국립중앙박물관>이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연광정연회도>와 함께 유명한 평양감사 향연장면이다.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전체 구도는 대동강변의 모란봉 기슭 부벽루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잔치장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화면 왼쪽은 행사장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멀찌감치 산기슭에서 자리잡아 구경하고 있다. 화면 오른쪽은 남녀노소 구경꾼들이 연신 올라오고 있는 장면인데, 그 속에서 포졸이 입장하는 행렬을 정리하고 있다. 고을 양반을 비롯하여 양인, 동자 및 지팡이 짚고 들어가는 노파까지 다양하다. 무리 속에는 마부와 옛 파는 소년도 보인다. 그중에 흥미있는 장면이 있다. 두 여인이 머리 위에 이고가는 물건과 뒤쪽에서 철릭을 입은 아전들이 들고가는 상 위에 놓인 물건들은 모두 감사 부임잔치에 사용할 지화(紙花)다. 요즘은 조화(造花)라 부르지만 지화가 원래 우리 말이다. 이는 영광스러운 과거에 급제한 자나 총명한 신하에게 국왕이 내리는 하사품이었고, 고위 관료를 위한 연회의 과상(果床)에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잔치의 본마당을 보자. 감사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축하차 참석한 인근 고을수령들로서 다 앉지못해 간이 천막 안에도 앉아 있다. 옆에

서 바깥을 응시하는 사람은 감사영감을 지키는 비장(裨將)이다. 앞쪽에 과상이 있는데 아전이 양쪽에서 고개숙여 있고 기녀들이 무릎꿇고 있다. 그 앞으로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화면 가까운 쪽부터 사또 방향으로 보면, 삼현육각의 연주-4인의 고무(鼓舞;북춤)-2인의 검무(劍舞)-2인의 포구락(抛毬樂)-5인의 처용무(處容舞) 순서로 펼쳐지고 있다. 풍악을 베풀 때 대악부(大樂府)에 등장하는 춤의 종류의 일부이다. 아마 독자들에게는 포구락이 낯설 것 같아 설명을 붙인다. 포구락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놀이로 정재(呈才) 때에 추는 춤의 하나이다. 공을 던지는 포구문의 양쪽으로 제1대 기녀 2인이 공을 가지고 주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위로 던져 구멍에 집어넣는다. 제1대가 춤을 추며 물러서면 제2대, 제3대가 차례로 춤을 춘다. 공을 넣으면 상으로 지화 한송이를 주고, 못 넣으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었다. 화면을 보면 연희 마당의 좌우로 12명씩 모두 24명이 일렬로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양쪽 위 끝머리에는 기방의 진행자가 각각 두명의 어린 기녀를 끼고서 지켜보고 있다. 이는 궁중에서 펼쳐지는 무용의 수준으로 매우 화려한 파티다. 포구락과 검무는 요즘 올림픽에서 인기를 얻고있는 리듬체조, 공체조, 곤봉체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공연마당 외곽으로는 군관과 병졸들이 연회장에 구경꾼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서있다. 뒤로는 양반·서인·아이들이 짝 둘러싼 채 구경하는 모습이다. 화면 뒤 멀리 펼쳐진 경치를 보면 능라도에서 쟁기질과 팽이질하는 농부가 보이고, 강기슭과 물 속에는 뱃놀이하는 양반들이 보인다. 이들 사민(士民)들의 모습은 태평성대를 연상케 하는 소재로 감사의 잔치를 빛내기 위해 화면 속에 동원되었다. 전체 화면의 오른쪽 위에 단원이 그렸다(檀園寫)는 글과 백문원인(白文圓印)이 보이나, 필체가 그의 전형적인 관서가 아니며 인장도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

● <부벽루연회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4일(목)-13일(토) 영화의전당 외 6개 극장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2012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75개국 30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올해 상영작품 중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는 93편, 자국 외 최초상영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39편에 달한다. 특히 경쟁부문인 '뉴커런츠'와 '플래시 포워드' 상영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편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막작은 홍콩의 링 록만과 썬니 렉이 공동 연출한 영화 '콜드 워'. 두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한 '콜드 워'는 범죄와 전쟁을 치르는 경찰조직의 이야기로, 선과 악의 대립구도보다는 인간 내면의 본연적 욕망과 양심의 싸움을 보다 심도있게 고찰한 작품이다. 폐막작인 모스타파 파루키 감독의 '텔레비전'은 이미지를 배척하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가 지배하는 방글라데시 작은 마을에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다른 종교관과 세대 차이, 전통과 현대화, 가족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스타일의 풍자영화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역시 세계적 거장의 화제작을 상영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아시아의 젊고 유망한 감독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뉴커런츠', 한국영화를 집중 조명하는 '한국영화의 오늘', 주목받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와이드 앵글' 등 다양한 섹션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특

히 영화제 기간에는 7세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60세 이상 실버 관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상영되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각장애인 전용관으로 운영하는 등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올해는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상영관 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를 간직한 남포동 메가박스 부산극장에서도 초청작을 만날 수 있다.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영화인 '청춘의 십자로'를 비롯해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부산의 옛모습을 엿볼 수 있는 4편의 고전영화가 상영된다.

개, 폐막작 예매티켓은 9월 24일부터(인터넷 예매만 가능), 일반 예매티켓은 26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부산은행 전 영업점 창구, 부산은행 ATM 및 폰뱅킹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갈라 프레젠테이션

세계적 거장의 신작이나 화제작, 월드프리미어 등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은 올해 6개국 7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이란의 모흐센 바흐말바프 감독의 '정원사', 이라크 감독 바흐만 고바디의 '코뿔소의 계절',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등 정치사회적인 주제를 다룬 화제작들이 시선을 끈다.

■ 아시아 영화의 창

올해 11개국 49편의 신작들이 소개되는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는 황금기를 맞고있는 아시아영화들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소노 시온 감독의 '희망의 나라', 우치다 노부테루 감독의 '온화한 일상' 등 쓰나미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일본 감독들의 작품과 '가족'을 중요한 화두로 담은 중국 감독들의 작품, 중앙아시아 고유의 영화미학을 간직한 영화, 아시아의 젊고 유망한 감독들의 신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 뉴커런츠

재능 있는 아시아 신인 감독을 발굴하기 위한 경쟁부문인 '뉴커런츠'는 동시대 사회현실과 인간소외, 성장드라마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 10편을 선보인다.

■ 한국영화의 오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한국영화의 리-르네상스'를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마' 부문은 미개봉작까지 포함해 총 17편이 상영되며, 신예감독들의 실험적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비전' 부문에서는 총 10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 한국영화 회고전

'신영균, 한국영화의 남성 아이콘:머슴에서 왕까지'

한국영화 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부동의 남성 아이콘이었던 영화배우 신영균을 조명해보는 자리로, '미워도 다시 한번' '빨간 마후라' 등 그의 대표작 8편이 상영된다.

■ 월드시네마

올 한해 비아시아권 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월드시네마'에서는 45개국 75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세계 3대 영화제 초청작을 비롯해 작가주의 감독들의 신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럽영화들과 2012년 세계 영화계에 급부상한 중남미영화, 그리고 아프리카 신진감독들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 개막작-콜드 워

■ 플래시 포워드

비아시아권 신인감독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영화를 통해 세계영화의 젊은 흐름을 살펴보는 '플래시 포워드'는 땅 위의 사람들이 겪는 상처와 고통의 연대기를 다룬 영화 8편이 소개된다.

■ 와이드 앵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와이드 앵글' 부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 오픈시네마

대중적인 영화를 낭만적인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만끽할 수 있는 '오픈 시네마'는 한국영화 사상 6번째 '1천만 클럽'에 가입한 영화 '도둑들'을 비롯해 3편의 한국영화와 중국, 일본의 무술영화, 이탈리아의 애니메이션 등 10개국 8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특별기획 프로그램

국경과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거부했던 세르게이 파라자노프와 미카일 바르타노프의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를 찾는 영원한 여행자들', 탈레반 정권에 의해 소멸의 위기를 맞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립 영상자료원 특별전:폐허에서 부활하다', 오랜 전통을 지닌 폴란드 영화의 거장을 소개하는 '폴란드 인 클로즈업:폴란드의 거장들' 등 다채로운 기획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미드나잇 패션

부산국제영화제의 주말 밤을 책임져줄 '미드나잇 패션'에서는 스릴러와 액션, 호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0편이 상영된다.

한지공예의 진수 '지승공예'의 멋을 알리는 지승공예박물관

한국의 몽마르트르 달맞이언덕에 이색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바로 지난 6월 5일 개관한 지승공예박물관(관장 이해원). 40여년간 한지공예 제작에 매진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지승공예가 김금자 씨가 남편인 이해원 씨와 함께 꾸민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지승공예 전문박물관이다. 화려한 수식어와는 달리 지승공예박물관은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박물관으로 꾸민, 그의 작품처럼 단아하면서도 소박한 멋이 묻어나는 공간이다.



지승 화병
(한국의 몽마르트르에 걸맞은 공간)



우리말로 ‘노역개, 노나끈, 노래기’라고도 하는 지승(紙繩)공예는 좁고 길게 자른 종이를 손으로 일일이 꼬아서 노끈처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엮어서 여러 가지 기물(器物)을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이다. 기물이 완성되고도 방수, 방부처리를 위해 옷칠이나 기름칠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어지간한 인내와 노력이 없으서는 아주 힘든 작업이다. 그래서 한지를 이용한 공예는 많지만 지승 공예를 하는 작가는 국내에서도 드물다.

— “지승공예말로 우리 전통 한지공예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힘든 제작과정 때문에 자칫 명맥이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현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승공예를 알리기 위해 소박하지만 박물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김금자 씨가 그동안 작업해온 지승공예, 한지공예 작품 100여점이 집안 곳곳에서 찾는 이를 반갑게 맞는다. 여름 모시적삼 속에 입으면 통풍이 잘 되는 지승옷에서부터 밥그릇, 찻잔, 향아리, 화병, 붓통, 반진고리, 망태기, 예단함, 애기장까지 작품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거실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승옷칠투각문화병’과 ‘지승애기장’ 한쌍이다. 특히 ‘지승옷칠투각문화병’은 작품이 완성되기 까지 걸린 시간만 1년, 한지만도 수백장이 들어가고 옷칠만도 열다섯번을 했다고 한다.

김금자 씨는 한지공예를 하던 중 우연히 지승공예를 접하면서 그만 지승공예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지승공예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결심으로 전국 각 지역의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사사를 받은 그는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지승공예 하면 그를 떠올릴 정도로 최고의 지승공예가로 인정받고 있다. 오랜 세월 한지와 같이 하면서 김금자 씨가 제작한 작품도 부지기수였으나 지난 2008년 화재로 귀중한 작품을 모두 잃게 되면서 한때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승공예에 대한 사랑을 떨칠 수 없었던 그는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를 지승공예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매진, 지금 현재 박물관을 채우고 있는 작품들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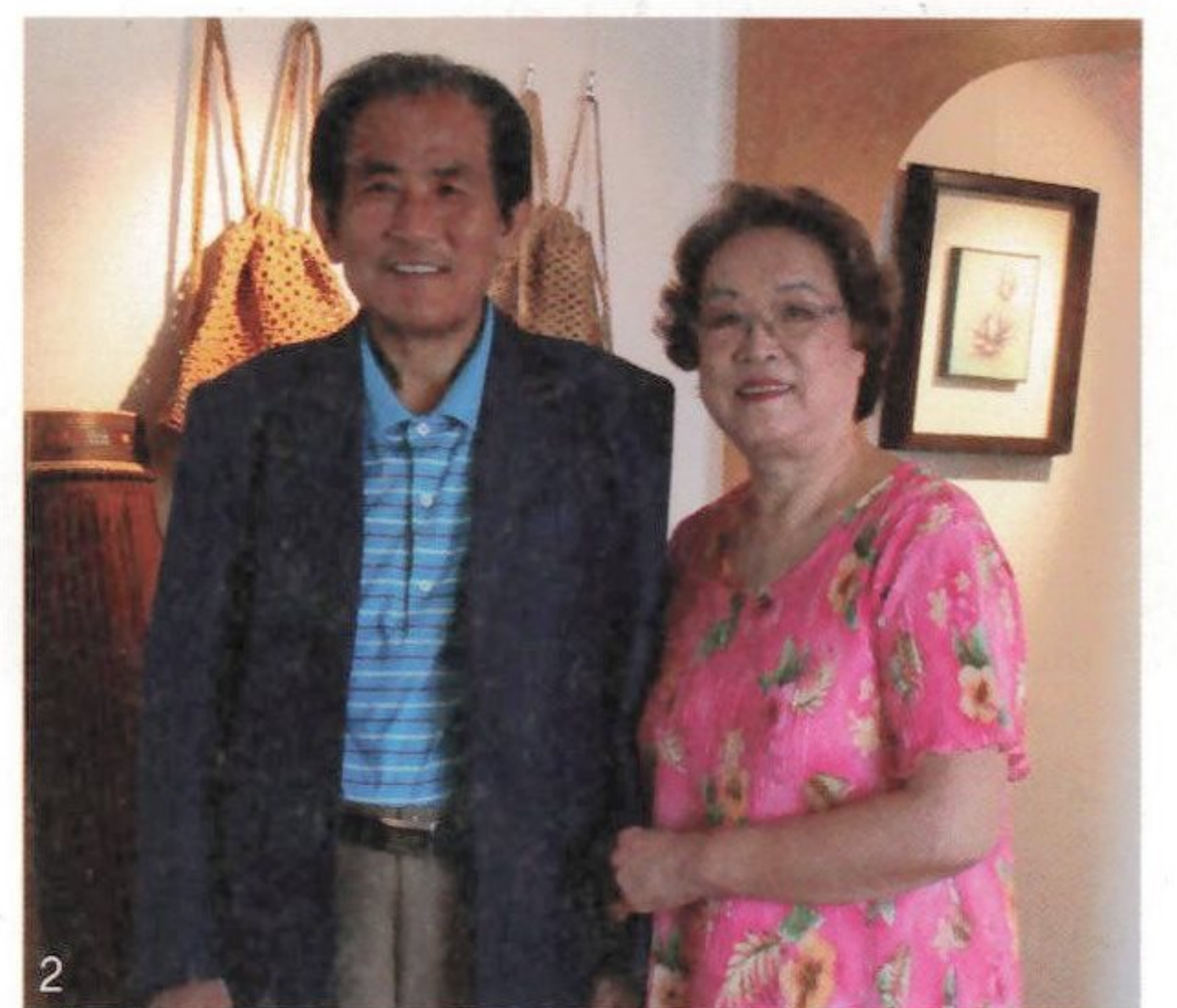
그의 정성과 혼을 쏟아부은 작품들은 지난 2월 개인전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천년의 숨결’展이란 부제가 붙은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승공예전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9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KBS부산 개국 77주년을 기념해 KBS부산갤러리에서 지승공예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지난 2002년 5월,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방이 주최한 한국 전통한지공예품 파리지엔 시회에서 그의 작품인 ‘반진고리’가 판매된 것도 김금자 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지승공예의 매력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가슴 뿌듯하다.

요즘 지승공예의 매력에 이끌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작업과정이 너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라 김금자 씨는 ‘전승’에 대한 고민이 많다. 자칫 지승공예의 맥이 끊길 수 있다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앞으로 지승공예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품개발 등 현대화 작업을 통해 지승공예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싶다.



1. 종이를 손으로 일일이 꼬아서 만든 끈을 다시 엮어 만드는 지승공예는 인내와 노력이 없으서는 힘든 작업이었다.
2. 지승공예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승공예가 김금자씨와 그의 남편인 이해원 관장의 열정으로 탄생된 공간이다.
3.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1년이나 걸린 ‘지승옷칠투각문화병’





아름다운 꿈을 연주하는 어머니 오카리나 연주단 사하맘스 오카리나

9월 20일 오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넘어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이 울려 퍼진다. 오카리나 소리를 따라 들어선 곳은 사하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교원연수실.

오카리나 연주에 열심인 이들은 학생이 아닌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사하맘스 오카리나 팀. 지난 4월 사하초등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오카리나 강습을 마친 열성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사하맘스 오카리나'를 결성하고 오카리나 사랑에 흠뻑 빠졌다.

사하맘스 오카리나의 회원은 14명. 회원들의 연령, 직업도 다양하지만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라는 인연 때문에 회원들 간의 애정은 각별하다. 연습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씨의 지도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라 어머니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자녀들 때문에 출석률은 100% 수준. 정기모임은 월요일 1회이지만 하루 한 시간이상 연습하는 열성 회원들이 많아 여느 아마추어 오카리나 모임보다 음악적 완성도가 높다. 강습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되었던 지난 5월 교내 '사하 가족동요제'에 찬조 출연해 자녀와 친구들 앞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이들의 방학에도 학교에서 정기연습을 진행한 사하맘스는 지난 9월 7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린 '금요해피콘서트'에 찬조출연해 가족은 물론 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기타나 드럼 등 다른 악기를 배운 적이 있지만 가족처럼 편하게 어울리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하맘스는 같은 고민을 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어머니들이라 음악 활동이 정말 즐거워요."

독서논술강사로 비교적 오후 활동이 바쁜 전해경 씨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 다른 악기를 배웠던 열성파이다. 요즘은 사하맘스에서 오카리나를 배우게 되면서 딸 정민, 성민이와 가족 음악회를 곧잘 가지며 가족 사랑을 키우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곽지연 씨도 사하맘스 오카리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처음 도전은 쉬웠지만 악기를 배워갈수록 좋은 소리에 대한 욕심이 커진다는 그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누구보다 연습에 열심이다. 성훈(4학년), 지훈(1학년) 두 아이에

게 아름다운 오카리나선율을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는 사하맘스와 함께 연주 봉사,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싶다.

사하맘스 오카리나의 막내이자 총무인 송수연 씨는 아이의 입학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두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사하맘스에 도전했다. 아이도 쉽게 볼 수 있는 악기라 음악으로 아이와 공감할 수 있어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하미영 회원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오카리나를 배우는 아이에게 자극받아 평생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오카리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하맘스 오카리나 활동을 시작했다.

짧은 시간 사하맘스오카리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하초등학교 김영호 교장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평소 인성 프로그램을 강조해온 김영호 교장이 좋은 강사와 프로그램을 구성해 어머니들에게 무료 강습기회를 제공, 사하맘스 오카리나 결성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사하맘스 오카리나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다해 씨를 비롯해 사하맘스 전 회원들은 사하맘스를 지켜보는 학교와 가족들의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연습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계획이다.

"아직 우리들만의 연주회는 이른 감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봉사하고 재능기부 활동도 열심히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아줌마의 열정으로 뭉친 사하맘스 오카리나.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가는 사하맘스의 아름다운 꿈은 오카리나 선율만큼 아름답다.

문의_사하맘스 오카리나 송수연(010-7154-0527)

●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결성된 사하맘스 오카리나는 교내 '가족동요제' '을숙도문화회관 금요해피콘서트' 등에 찬조출연했다.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박진홍_음악평론가

● 2012년 9월 11일부터 15일, 5일간에 걸쳐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유럽, 그 찬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부산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영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세 번째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장 베르나르 포미에가 지휘봉을 잡고 부산시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피터 야블론스키의 연주로 개막을 알렸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이들의 멋진 연주에 길고 긴 환호를 보내 주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날 연주된 곡 중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은 모두 힘겨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한 인간의 고뇌와 투쟁을 표제로 하고 있다. 마에스트로 포미에는 두 곡이 가진 표제들을 간결하면서도 역동적인 오케스트라의 운영과 섬세한 조율을 통하여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포미에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었다. 두 작품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내재된 강인함과 단호함이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미에의 해석은 부러질 것 같은 단단함을 유효화시키고, 클라이맥스를 통한 감동의 카타르시스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듯했다. 진지하되 조금은 덜 심각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늘로 치솟기 보다는 한 바퀴쯤 주변을 돌아보아 완급을 조절하는 음악적 스타일을 볼 수 있었다. 그 동안 리신차오가 보여 주었던 넘치는 감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 프랑스적 또는 포미에적 해석의 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를 연주한 피터 야블론스키는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음악 속에 담겨 있는 북유럽의 정취와 신선함을 전해 주었다. 음 하나하나가 생동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연주였다. 뚜렷한 외모만큼이나 선명한 그의 터치를 따라 눈과 귀를 움직이던 관객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좋은 연주에 대한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노르딕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연주된 이날 연주 이후, '조이 오브 시즌', '탄생과 서거', '카르미나 부라나', '영국과 체코의 추억', '음악의 트로이카'라

는 각각의 주제로 메인콘서트가 열렸다. 작년보다 더 다채로워지고 볼거리가 많아진 국제음악제의 모습이었는데, 필자는 특히 찰스 나이딕의 편안하면서도 작품전체를 여유롭게 산책하는 듯한 클라리넷 연주와 이자벨 모레티의 섬세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하프의 선율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통해 또 일년만에 좋은 연주를 한껏 즐기고 음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함을 만끽했다.

필자는 음악제 기간 동안 감상과 소통의 반복을 통하여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위상과 내일을 그려보았다. 먼저, 보다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연주자들을 찾아서 더욱 풍성한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음악고문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음악적 색채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의 채널을 다원화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프린지콘서트는 음악제를 홍보하는 거리 음악공연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음악인들의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 각지의 음악인들이 거리를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고, 그들이 한데 모여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풍성한 볼거리, 들을거리가 있는 국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훌륭하고 성공적인 연주와 안정된 국제음악제의 운영을 보여준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앞으로 부산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되기를 마음 깊이 바란다.

어른왕자, 사상공단의 장미를 길들이다

극단 해풍 창단공연 <어른왕자>

김문홍_연극평론가

● 극단 해풍의 창단공연인 <어른왕자>(이상우 작, 연출, 2012. 8. 31 - 9. 2, 민주공원 소극장)는 사막의 여우와 헤어져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갔던 어린왕자가 이제 어른이 되어 지구별의 한국, 그것도 낙동강 가의 어느 옥탑방에 찾아왔을 경우 그는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어른왕자(백민철 분)는 옥탑방이 있는 옥상에서 사막여우에게 신호를 보내다가 마침 자살하려던 처녀 '장미'(김수진 분)를 만난다. 그녀는 지금 실직과 빚, 우울증으로 삶의 끈을 놓으려 하고 있다. 어른왕자와 사막여우는 장미와 관계를 맺고 서로를 길들이게 되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취직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지구별은 악덕 기업주의 횡포와 이주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과 정리 해고, 악덕 사채업자의 서민 숨통 옥죄기 등 후기 산업자본주의의 그늘이 깊다. 결국 어른왕자와 사막여우는 헤어진 양을 찾아 지구별을 떠난다.

무대 후면 달동네의 풍경이 그려진 천이 공간적 배경을 상징하고 있는데, 낮에는 판자촌의 집들이 되었다가 암전이 되면 집집마다의 불 켜진 창이 되고 있다. 사막여우 역을 맡은 최병운은 다채로운 표정 연기와 마임, 그리고 순발력 있는 리액션으로 어른왕자를 부각시키는데 큰 몫을 해내고 있다. 사채업자, 중국집 배달원, 악덕 기업주, 신문배달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맡은 오창섭과 이상우는 독특한 동작선의 움직임과 차별화된 대사로 극의 템포를 조절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동작선에 탄력적인 리듬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김수진의 안무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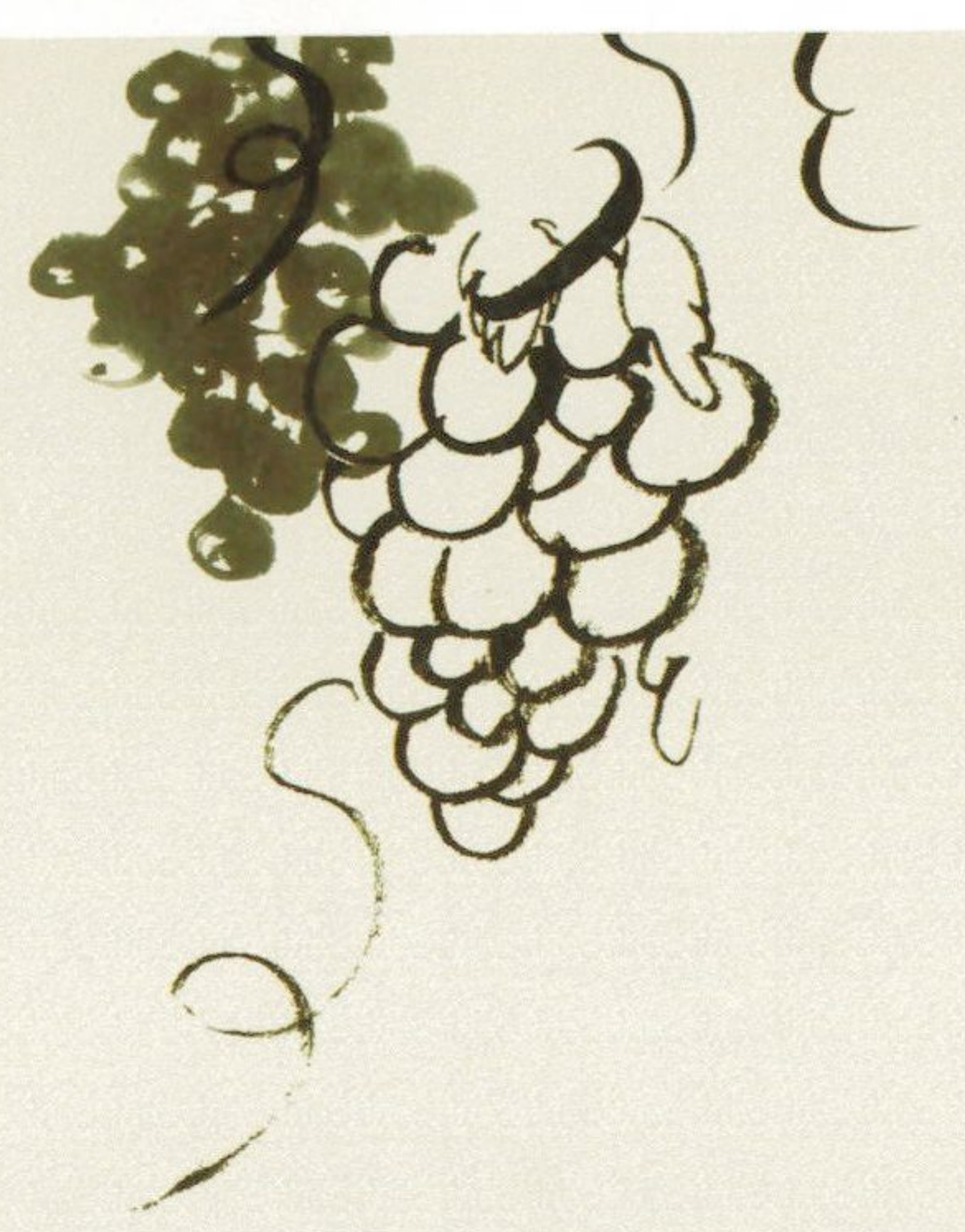
그러나 어른왕자와 사막여우, 그리고 장미와의 사이에 서로에 대한 길들이고 책임감이 그 강도가 낮아 설득력이 약하고, 뒤틀린 산업자본주의 그늘에



● 극단 해풍 창단공연 '어른왕자'

대한 구조적인 천착이 심화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극단 해풍의 창단공연은 일단은 성공적이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회적인 현안 문제와 구조적 모순을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심화시킨 창작극 공연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종종 접하는 일이지만 민족극 계열의 공연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연극적인 완성도로서 무대 표현으로서의 미학적 완성도에 소홀한 느낌이 더러 있어 왔다. 극단 해풍의 앞으로의 공연 역시 내용으로서의 주제의식의 강화에 치우쳐 형식으로서의 연극 미학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연극은 아무래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으로서의 표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극단 해풍의 다음 공연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공연으로만 끝내지 말고 몇 번의 수정 보완을 통한 공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포도향 가득한 충절의 고장 영천여행



- 1. 대형 오크통모양이 인상적인 영천와인학교
- 2. 영천와인학교 내 와인저장창고 입구
- 3. 와인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정기회원 가족들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던 태풍 '산바'의 한반도 상륙을 코앞에 앞두고 있던 지난 9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78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9월 테마여행지는 포도향 가득한 충절의 고장 '영천'.

새벽녘까지 퍼붓던 장대비가 잠시 그친 이른 아침, 테마여행을 떠나는 42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보슬비가 내리는 잔뜩 찻푸린 날씨에도 여행을 앞둔 정기회원들의 설렌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혁우, 염지선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다행히 영천에 도착하고 나서는 비가 그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영천여행의 첫 방문지는 바로 영천와인학교. 국내 최대 포도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은 특히 와인 제조가 가능한 머루포도(MBA) 주산지로, 국내 와인생산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와인클러스트 사업을 시행, 와이너리(와인 양조장) 조성과 와인개발센터, 와인공장, 와인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와인사업단 김지은 씨의 안내로 영천와인학교를 둘러보았다. 대형 오크통 모양을 한 독특한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인학교는 와인양조 실습장과 와인저장고, 와인터널, 와인카페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와인학교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한 와인전문가를 육성해오고 있다. 와인제조과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은 회원들은 직접 와인을 만들기 위해 와인 체험장인 '고도리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겼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고도리 와이너리 대표 최봉학 씨의 안내로 와인만들기에 필요한 포도따기에 나섰다. 넉넉한 인심에 한가득 수북히 딴 포도를 들고 와이너리로 자리를 옮긴 회원가족들은 최봉학 사장의 설명에 따라 우선 수확한 포도를 투명용기에 넣고 잘 으갠 후 설탕과 효소를 넣어 자신의 이름을 적은 뚜껑으로 봉했다. 이렇게 제조된 와인은 1차 발효 후 포도껍질을 걸러내는 착즙과정과 2차 발효과정을 거친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세달 후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와인으로 탄생된다. 와인만들기 후 펼쳐진 '포도껍질 멀리 뺀기' 게임에서 가장 멀리 뺀 회원들에게는 상품으로 영천와인과 포도 한박스가 제공됐다.

이어지는 순서는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 만남. 테마여행에 동행했던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혁우, 염지선 씨가 10월 5일과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 올려지는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 장면을 시연하자 회원들의 웃음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점심식사 후 오후 일정의 첫 방문지는 고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임고서원. 특히 지난 5월, 7여년간의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유물전시관과 전통 한옥구조의 생활체험관, 원형극장, 연못, 녹지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고 있었다.

임고서원에는 현재 문충사, 흥문당, 영광루, 함육재 등 건축물과 정몽주 선생의 영정 2폭, 포은문집, 지봉유설, 포은집 등 200여권의 중요한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또 서원 앞에는 높이 약 20m,



1

테마가 있는 여행

둘레 약 6m 수령 500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와 함께 정몽주 선생이 죽음으로서 충절을 지킨 개성 선죽교를 그대로 재현한 다리가 조성되어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영천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위해 '2011 마을미술 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영천에 새롭게 탄생된 별별미술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폐교를 활용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유명한 시안미술관이 자리한 영천시 화산면과 화남면 일대에 조성된 별별미술마을은 마을 곳곳에 있는 정자, 재실, 서원 등 전통문화유산과 정미소, 오래된 집, 우물터 등 근대적 볼거리가 풍부하고 후투티, 딱따구리, 수달, 반딧불이 등을 볼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여기에 마을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낸 예술작품들을 곳곳에 제작, 설치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동네 미술관이 탄생했다.

별별미술마을에는 '신 몽유도원-다섯 갈래 행복길'이라는 테마로 '걷는 길' '바람 길' '스무골 길' '귀호마을 길' '도화원 길' 등 다섯 개의 길이 조성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다섯 개의 길을 따라 마을을 돌아보면서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은 물론 우리동네 박물관, 바람의 카페, 아트마켓 등 문화공간을 통해 별별미술마을의 생생한 이야기와 예술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늘 회원들이 돌아볼 코스는 다섯 개의 길 중 바로 '걷는 길' 코스. 가상리 마을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숨어있는 예술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래된 폐가와 호스로 만든 새장을 겹쳐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 손몽주 작가의 '새장의 새'를 비롯해 오랜 세월 마을의 역사를 지켜온 어르신들의 손을 부조로 제작해 경로당 벽화로 장식한 이태호 작가의 '위대한 손', 영천의 독특한 맛을 상징하는 '돔배기'를 형상화한 '돔배기' 등 마을 곳곳을 걷노라며 여기저기서 다양한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다. 게다가 별별미술마을을 찾는 관람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마을안내소인 '바람의 카페'와 버려진 옛 마을회관에서 우리동네 역사와 사람이야기로 가득한 동네 박물관으로 거듭난 '우리동네 박물관'은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풍경에 사진찍는 회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진다.

포도향 가득한 자연 속에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영천. 숙성된 와인의 향긋함만큼이나 오랫동안 정기회원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4. 연극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한 장면을 시연하는 부산시립극단 이혁우, 염지선 단원.
5. 고려 말 충신 정몽주를 기리는 임고서원.
6. '2011 마을 미술 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 탄생된 별별미술마을

11월에는 **통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마감 10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3~4)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신규가입자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공미화(동래구 온천2동)
김인태(기장군 기장읍)	권태영(수영구 망미1동)
김태우(양산시 물금읍)	김미영(북구 만덕3동)
김희진(서구 아이동)	엄태웅(동구 범일동)
박동희(연제구 거제동)	이덕봉(중구 대청동 4가)
배정애(부산진구 연지동)	이양자(연제구 연산9동)
이무형(북구 덕천동)	채규영(서구 남부민동)
이지영(서구 서대신동)	최선희(연제구 연산7동)
함영규(해운대구 우1동)	최정현(동구 초량4동)
황미정(서구 아이동)	하성미(강서구 명지동)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가온아트홀 | 1600-1602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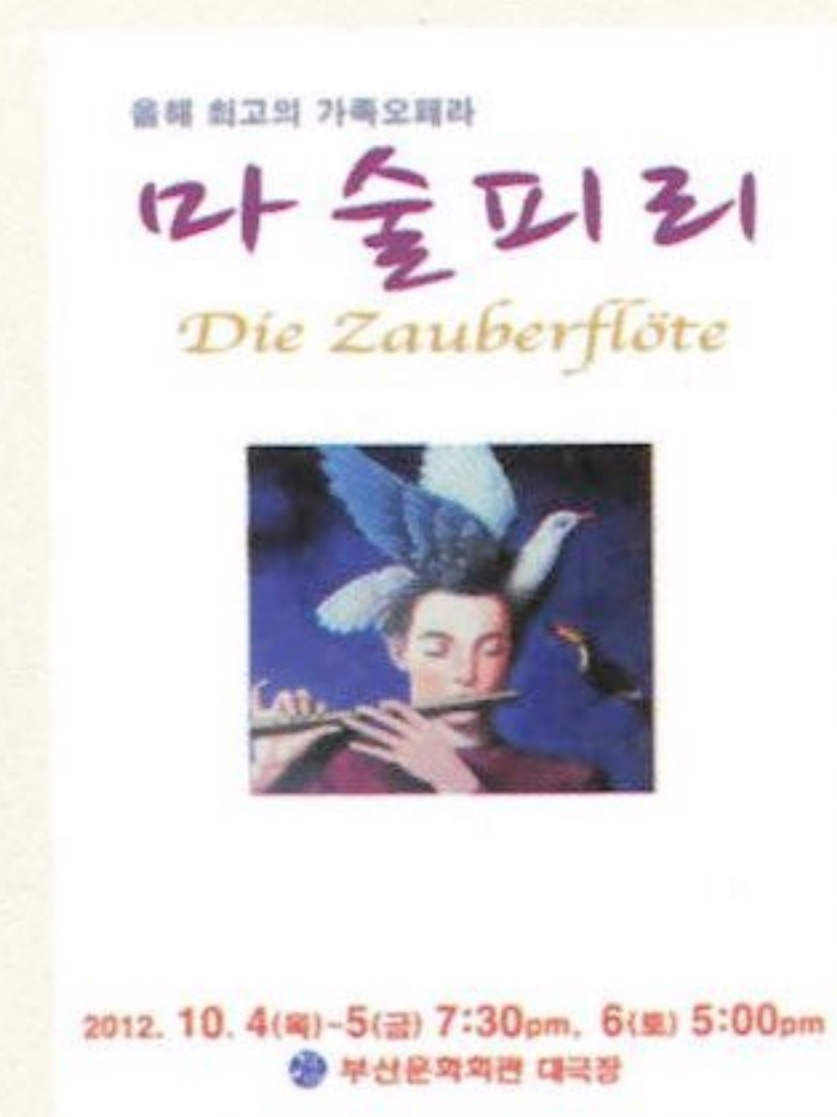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46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58	NEW MUSIC
59	NEW BOOK
60	SPECIAL MOVIE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전문예술법인 (사)아지무스오페라단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10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VIP 15만원 · VIP 10만원 · R석 7만원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사)아지무스오페라단
(0707-522-4649, 010-8520-4649)



전문예술법인 (사)아지무스 오페라단이 선사하는 가족오페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뛰어난 흥행감각을 지닌 대본작가 슈카네더가 환상적인 요소로 가득 찬 핀란드 동화집 속의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토대로 탄생시킨 오

페라 '마술피리'는 소박한 가곡, 익살스러운 민요, 진지한 종교음악,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 스타일의 음악과 당시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소박한 징슈piel(Singspiel, 대사있는 노래극)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결한 마음과 인내심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주인공 타미노와 파미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복을 노래하는 희극적인 주인공 파파게노와 파파게나 두 커플의 대비가 오페라의 재미를 더해준다.

- 예술총감독/손욱 · 연출/박용민
- 지휘/Massimo Scalpin · 음악코치/정금련

출연

소프라노 허미경(파미나), 테너 광성섭(타미노), 소프라노 구민영(밤의 여왕), 베이스 유형광(자라스트로), 바리톤 강경원(파파게노), 소프라노 신민원(파파게나), 테너 조동훈(모노스타토스)

박유미 피아노 독주회

10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박유미(010-4280-7365)

수차례의 독주회 및 실내악, 협연 무대, 렉처가 있는 리사이틀을 열어온 피아니스트 박유미 독주회. 서울 예원학교 졸업 후 도블,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피아노과를 졸업한 박유미는 일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New Music Compact for the Piano〉 연주회 시리즈를 3년째 진행해왔다. 박유미는 현재 테마앙상블 단원,

한국피아노연주 및 교수법협회 고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30번 작품 109
리스트/순례의 연보 제3권 중 '에스테 장의 분수', '두 개의 전설' 중 '물 위를 걷는 파올라의 성 프란체스코' 등 수곡

부산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10월 5일-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부산시립극단이 셰익스피어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로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원작의 뼈대만 차용하고 내용은 현대 한국의 이야기로 새롭게 탄생된 이 작품은 원작에 등장하는 아버지 뱃티스트는 여성사업가 나상질 회장으로, 말괄량이 캐더리너는 최별나로, 비앵커는 최달님으로 등장한다.

김경화 연출가는 극단 맥 대표,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장, 부산광역시립극단 예술감독위원을 역임하고 '노인, 새되어 날다'로 전국연극제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연출/김경화 · 각색/오리라 · 작곡/강원중
- 출연/이현주, 정행심, 전지은, 염지선, 황창기, 이혁우, 이돈희, 박준서, 이수아, 주은실, 김정원 외

노엘합창단 제53회 정기연주회 가을을 여는 합창

10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성규(010-3564-3439)



1961년 부산지역 크리스찬 남녀 고교생들로 창단된 성가합창단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노엘합창단의 제53회 정기연주회.

1999년 노엘동문들과 함께 성인합창단으로 재정비 후 부산지역 합창 문화를 이끌

어온 노엘합창단은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아 창단 50주년 기념 전국청소년합창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 현대성가/그리스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 모차르트/미사 다장조 '참새미사'
- 가을을 여는 합창/저 구름 흘러가는 곳, 꽃구름 환상곡
- 세상의 합창/청춘무곡(중국 위구르 민요)
- 가요합창/잊혀진 계절, 행복의 나라로 등 수곡
- 지휘/김강규(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
- 솔로/소프라노 김소연, 앨토 손미숙, 테너 천재영, 베이스 최성규
- 피아노/윤민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4회 정기연주회

10월 8일-9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6531-0307)



제갈삼

는 1990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피아노듀오협회를 창단해 최고의 듀오협회로 이끌었던 역대 회장들이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조화로운 하모니로 피아노 듀오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제44회 정기연주회.

첫날에는 김성숙/최진현, 허혜정/이수진, 조혜영/김혜린, 김지현/김선희, 김지민/이문

숙의 듀오연주회, 둘째날에는

▶ 제1일 8일(월) 오후 7:30

프로그램

- 브람스/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 미요/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스키타리슈 모음곡
- 쇼스타코비치/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등

· 연주/김성숙&최진현, 허혜정&이수진, 조혜영&김혜린, 김지현&김선희, 김지민&이문숙

▶ 제2일 9일(화) 오후 7:30

프로그램

뿔랑/소나타(4 hands)

드뷔시/작은 모음곡 '미뉴에트'

슈베르트/송어(8 hands) 등 수곡

· 연주/김지령&김진희, 권혜령&배수정, 차미소란&고은정, 나광자&최윤희&조현선&이동섬, 제갈삼&김경혜

3인 연주회

10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최예지(010-7251-7743)

인제대학교에 재학중인 박시은, 오혜진, 최예지가 바로 크시대부터 후기낭만시대까지의 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토카타 BWV916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K.330

차이코프스키/사계 작품 37 등 수곡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34회 정기연주회

10월 11일-1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890-1326, 010-2009-1090)

부산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30여명의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34회 정기 연주회.

첫째날은 조영윤, 브리튼, 코플랜드, 거쉬윈 등 현대작곡가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현대음악의 밤', 둘째날은 고전음악에서부터 20세기 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경남챔버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앙상블의 밤'이 펼쳐진다.

▶ 제1일 11일(목) '현대음악의 밤'

프로그램

브리튼/서주와 부를레스크풍 론도 작품 23

(2Pianos 4Hands)

메노티/노처녀와 도둑 주제에 의한 리체르카레와 토카타
조영윤/피아노 2012를 위한 서주 등 수곡

· 연주/김소형, 김영지, 하승경, 정년경, 박선미, 김민정, 김지현, 신정운, 홍보원

▶ 제2일 12일(금)

'경남챔버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 트리오 제1번 나장조 작품 8

포레/피아노4중주 제1번 다단조 작품 15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K.365 등 수곡

· 연주/홍자영, 박현정, 김은주, 최지은, 황정미, 강남길

부산시립합창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B-Boy 'StepCrew' 와 만나다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오세종



B-Boy 'StepCrew'

부산시립합창단 제8대 수석지휘자로 지휘봉을 잡은 오세종 지휘자와 창단 4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제143회 정기연주회.

6월 정기연주회에 이어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휘봉을 잡은 오세종 지휘자가 선택한 레퍼토리는 중세 세속 민요모음곡으로 알려진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이번 무대는 기존 무대와 다른 오세종 지휘자 버전의 '카르미나 부라나'로 악보에 나와 있는 전 오케스트레이션과 합창을 선보이는 전통적인 무대와 'B-Boy'와의 장르 화합을 만날 수 있는 개혁적인 무대이다.

솔리스트로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

고 있는 소프라노 박미자, 부산시립합창단 출신의 테너 곽성섭, '카르미나 부라나'의 독창자로 여러 무대에 선 바리톤 차중훈이 부산시립합창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 관현악/부산시립교향악단

· 솔리스트/소프라노 박미자, 바리톤 차중훈, 테너 곽성섭

· 특별출연/B-Boy 'StepCr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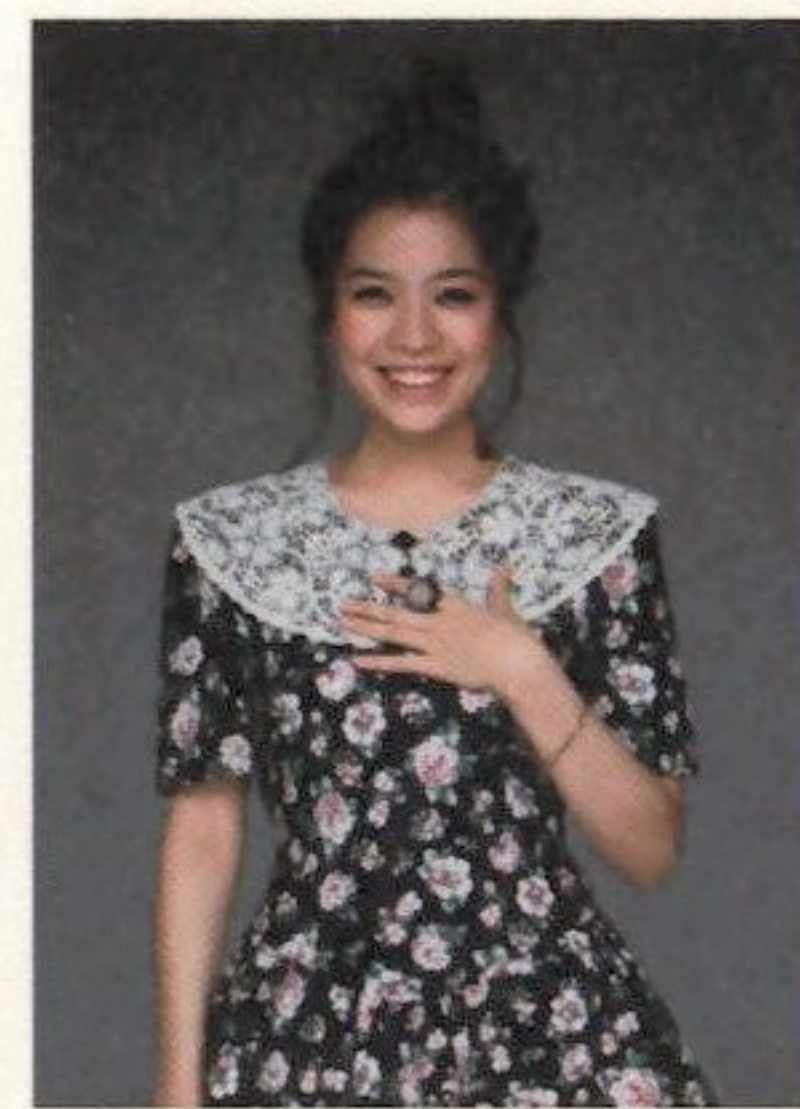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0-박세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지역 소극장 콘서트의 새로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0 무대의 주인공 박세별 콘서트.

아름다운 보이스컬러와 세련된 피아노 연주, 감성적인 가사로 많은 리스너들의 관

심을 받고 있는 박세별은 2008년 EP앨범 '다이어리(Diary)' 발표 시 탄탄한 작사, 작곡 실력, 탁월한 가창력, 뛰어난 건반 연주 실력으로 이미 완벽한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규 1집 앨범 '새벽별'에 이어 정규 2집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세별의 이번 무대는 EP앨범과 1집 앨범은 물론 곧 발매될 정규 2집 수록곡을 부산에서 처음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마련하는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7월 예선심사를 거쳐 서울·부산·경기·경남 등 4개 지역 10개 학교(중학교 7, 고등학교 3)가 본선에 진출, 열띤 경연을 펼친다.

대회에 이어 미타선원 클리어마인드합창단과 해피중창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단, 제4회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참가단체

해동중학교(지도/임희숙)

매향중학교(지도/신명섭)

김해여자중학교(지도/이민희)

신주중학교(지도/김정웅)

금정중학교(지도/이의원)

해연중학교(지도/박수연)

웅상중학교(지도/최민성)

광남고등학교(지도/이혜숙)

창원여자고등학교(지도/김세홍)

송곡여자고등학교(지도/이규천)

소프라노 신민원 귀국독창회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졸업하고 도미, 맨하탄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과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신민원독창회.

신민원은 유학 중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소프라노'(뉴욕 타임즈), '청중들과 깊이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연주자'(opera works의 Ann Baltz)라는 격찬을 받았다.

프로그램

R슈트라우스/한결 같은, 양귀비, 꺾은 날씨

이상근/눈이 내린다

윌리엄 월턴/다프네, 황금빛 격자무늬 사이로 등 수곡

· 피아노/정호정(경원대학교 겸임교수)

· 플룻/김혜미(인씨엠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제42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나의 가장 좋은 벗에게'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의 |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627-8088, 010-8918-1535)



윤상운



강경원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42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자체 고용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문화회관 상주단체(동래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오케스트라 육성지원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바그너/리엔찌 서곡

말러/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 지휘/윤상운

· 악장/정성철

· 바리톤/강경원(BS마린캄머오퍼 대표)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010-4555-1470)



부산 광남초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중, 고, 대학생), 학부모 후원회 등으로 결성된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의 제6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트라우스/라데츠키행진곡

정재명(편곡)/동요메들리

VI-가을 들뜬, 수수꽃다리,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등 수곡

· 지휘/윤강수

· 협연/김정현(소프라노, 부산예고 3년)

· 첼로/류수현, 이태길, 심유정, 김태용, 홍인영, 노한슬

제21회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엄현섭(010-9334-6947)

2011년 제20회 기념음악회로 오페라 갈라콘서트 '춘향전'을 무대에 올린 바 있는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1987년 창단 이래 매년 1~2회의 정기공연 및 초청공연, '프랑스 가곡과 아리아의 밤', '아리아와 이중창의 밤' '우리 가곡의 밤'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출연

소프라노 옥혜나, 윤지영, 장은영, 김양자, 김경희,

메조소프라노 한현미, 테너 양승엽, 엄현섭

바리톤 이철훈, 하병욱, 피아노 이현주, 이경미

김해원 피아노 독주회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해원(010-8626-1821)

동아대학교와 독일 바이마르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A), 파리 에콜노르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UMII)을 졸업하고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해원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월광소나타, 비창소나타, 열정소나타

2012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문의 | 영앤앳섬(02-720-3933)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만성 B형 간염 환자 그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간염 퇴치를 위하여 노력해온 강동석이 국제구호기구인 기아대책과 함께 저소득/요보호 아동들을 위해 마련하는 '희망콘서트'.

1990년 3월부터 한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코와의 수교 22주년을 기념해 1954년 창단된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한, 스메타나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적 작품인 '나의 조국', 춤곡 '슬라브 무곡'과 드보르작이 1892년 미국에 초청된 드보르작의 미국의 멜로디를 사용하여 작곡한 '신세계 교향곡' 등 주옥같은 곡을 들려준다. 공연 수익금은 저소득/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행복한 홈스쿨', 야간보호교실인 '별빛학교'를 위해 쓰여진다.

프로그램

- 스메타나/교향시 '나의 조국' 중 블타마(몰다우)
- 브루흐/스코틀랜드 환상곡
-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 드보르작/교향곡 9번 '신세계 교향곡'
- 지휘/테오도르 쿠차
- 바이올린/강동석(연세대학교 교수)

**이태리음악연구회 제35회 정기연주회
모짜르트 아리아의 밤**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이태리음악연구회(010-7767-4390)



김길수

이태리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음악인으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매년 1-2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벨칸또음악을 선물해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오, 신이여 제 이야기를 들어보소서 K.418,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그리운 시절은 가고', 오페라 '코지판투테' 중 '바위처럼' '남자라! 군인이라' 등 수곡
- 연주/소프라노 이은미, 구현진, 구민영, 정태미, 권미현,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김수현, 바리톤 윤풍원, 베이스 김태형, 권영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3회 정기연주회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마크 고렌슈타인

바이올린 권혁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역대지휘자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마크 고렌슈타인과 젊은 거장 권혁주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3회 정기연주회.

마크 고렌슈타인의 20년만의 지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무대는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 마르투치/아상곡
- 파가니니/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 지휘/마크 고렌슈타인 · 바이올린/권혁주

**제6회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Duo concerto '가곡과 함께하는 가을'**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최성규(010-3564-3439)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경성대학교 음악과 동문으로 돈뚝한 우정을 쌓아온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가 들려주는 듀오콘서트 '가곡과 함께하는 가을'.

주종식은 Friday Morning Music Club Vocal Solist, Metropolitan Women's Choir 상임지휘자, Washington National Opera 단원으로, 바리톤 최성규는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 토스티/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 임금수/내마음의 강물
- 이태리가곡/산타루치아, 돌아오라 쓰렌토로 등 수곡
- 지휘/전상철
- 협연/부산메트로폴로 pop's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조아라 박녹주제 홍보가 완창발표회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아라(010-8288-0500)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젊은 소리꾼 조아라의 박녹주제 홍보가 완창발표회,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홍보가의 전수장 학생, 국악그룹 도시락(道時樂)의 보컬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조아라가 홍보가 초입부터 놀보가 '체비후리러 나가는 대목' 까지 재미난 소리를 들려준다.

협주곡의 밤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선기획(010-7506-2500)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교향악단의 연주로 마련하는 협연의 밤으로 피아니스트 김정희,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정을 비롯해 청소년 유망주들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작품 35
-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생상/바이올린 협주곡 2번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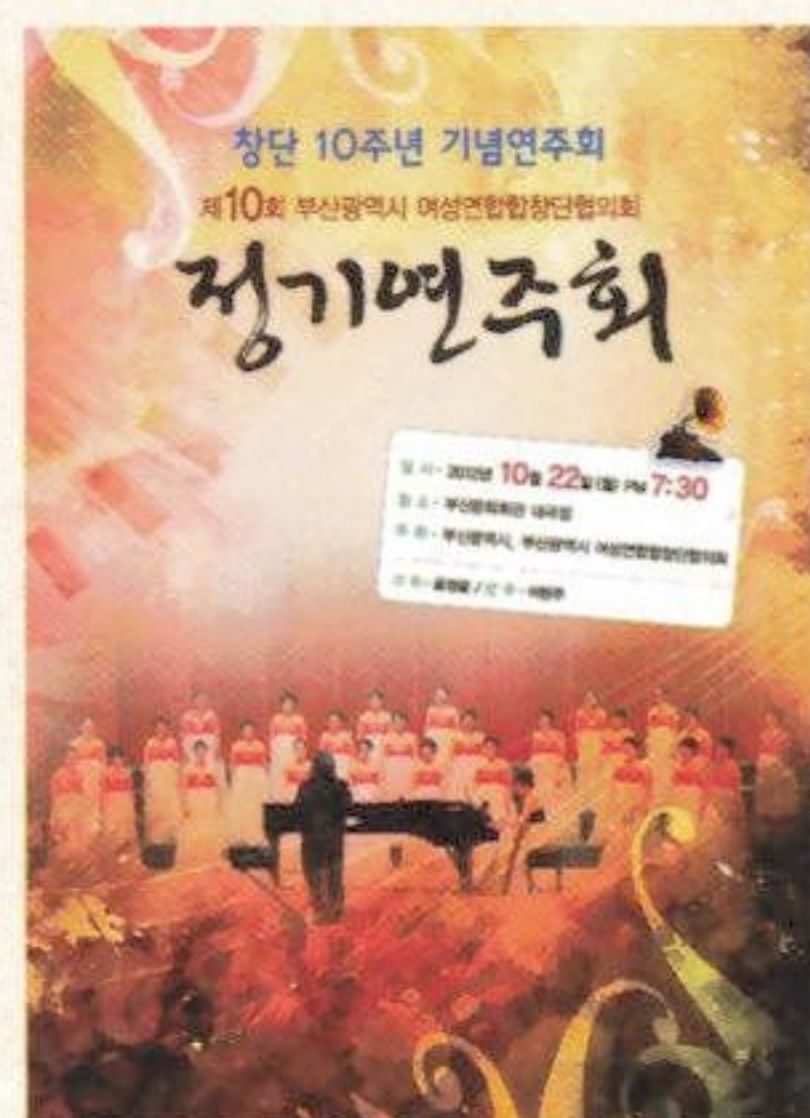
· 연주/김정희, 김현정, 차혜자, 김현지, 박채린, 강경영, 김승재, 정기은, 구명진, 김현아, 서경희, 홍무임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011-833-0621)



부산의 16개 구, 군 합창단 원들로 구성된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박근기 지휘자와 함께 출발,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은 그동안 휘센, 합창올림픽 등에서 수상하며 그 실력을 다져

왔다. 윤정윤 지휘자와 새롭게 출발, 2009년 '제1회 부산시 어머니 합창 Festival'을 개최해 올해 4회까지 진행해왔다.

프로그램

종교음악/참 좋으신 주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외국곡/Sugartime, You Light Up My Life 등 수곡
· 지휘/윤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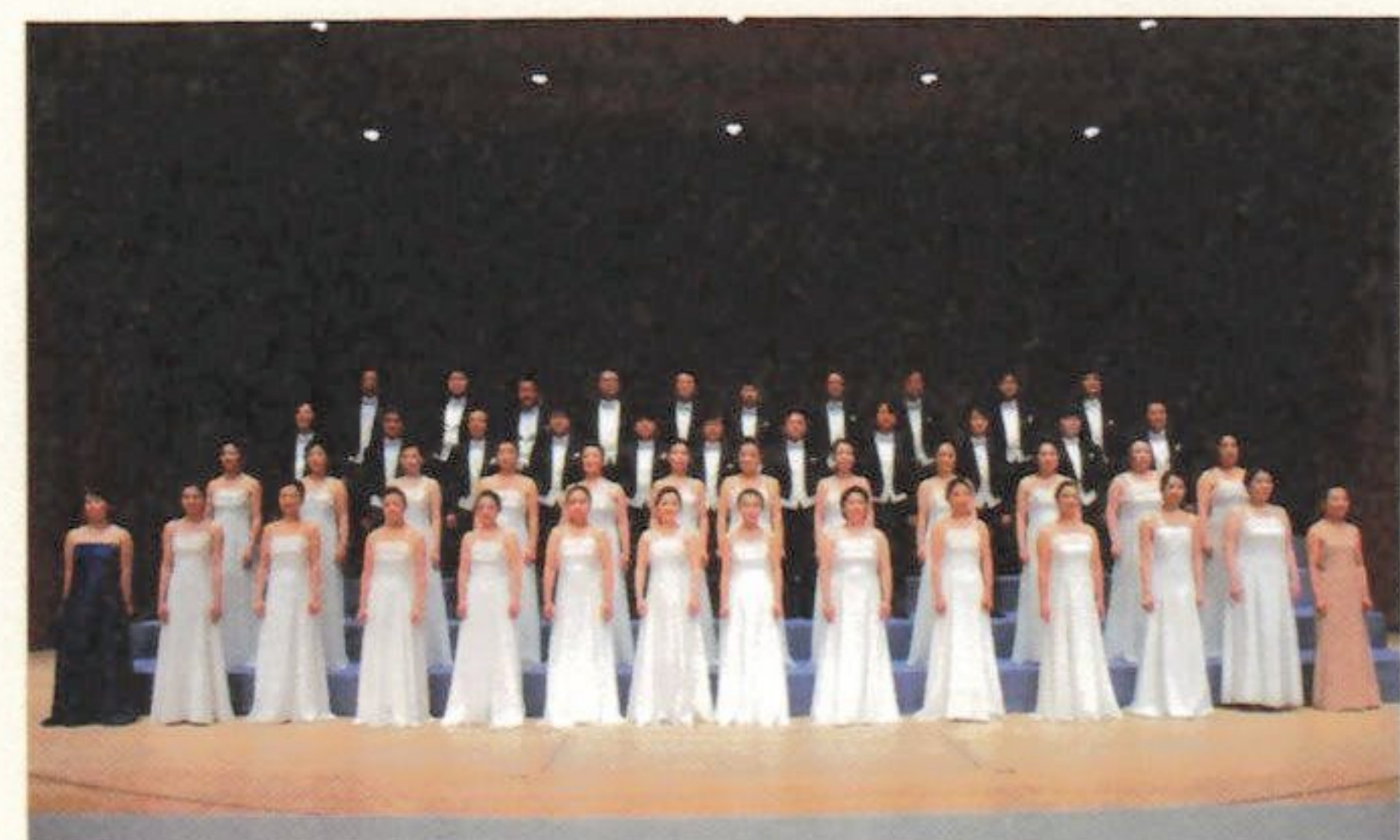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음악회

제25회 부산합창제

10월 23일-24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985년 부산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함께 만

들어온 부산합창제 2012년 무대.

각 구청 여성합창단 창단의 물꼬를 트는 등 부산지역 합창 발전에 큰 계기가 된 부산합창제는 세계민요와 가곡,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 발굴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합창 붐의 열기를 반영,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한 19개 합창단이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일정 및 참가단체

· 23일(화)

부산챔버싱어즈(지휘/김현식, 반주/최은진)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반주/박재나)
부산아모르합창단(지휘/박정희, 반주/임혜선)
예그린여성합창단(지휘/손욱, 반주/이영숙)
명호여성합창단(지휘/류지원, 반주/최소영)
청솔합창단(지휘/강학윤, 반주/손혜진)
CBS 여성합창단(지휘/이외균)
뮤즈콘서트라이어(지휘/조현수, 반주/박유미)
Choir Friends(지휘/김강규, 반주/윤지영)

· 24일(수)

대원불교대학푸른합창단(지휘/이순희, 반주/박미용)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강다현)
노래와 친구들(지휘/이순희, 반주/박미용)
청라합창단(지휘/이득수, 반주/서효정)
해운대소리여성합창단(지휘/김진영, 반주/김주영)
글로리라이어(지휘/이정철, 반주/박성미)
은파합창단(지휘/이홍길, 반주/안선애)
부산콘서트라이어(지휘/전상철, 반주/고지혜)
부산불교교육대학합창단(지휘/이연화, 반주/김태운)
부산시립합창단(지휘/오세종, 반주/이승운)

제13회 마약퇴치연극제

'안돼! 라고 외쳐봐!'

10월 23일-24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462-1022)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약물 오, 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연극 '안돼! 라고 외쳐봐!'. '안돼! 라고 외쳐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극을 통해 담배, 술 등의 약물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래 집단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약물유혹을 지



해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극으로 알려준다.

· 출연/이동욱, 유하나, 이안호, 서보경, 임희선

2012 강미희 & 미야(美野)아트댄스컴퍼니

'치유의 몸짓 - 물(物)깊는 여인들'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단체 50%할인)

문의 | 미야(美·野)아트댄스컴퍼니(758-2150)



전위와 전통의 융합, 즉흥성을 띤 다양한 실험현장 Performance를 통한 현장 이미지 예술을 추구해온 미야(美·野)아트댄스컴퍼니의 2012년 무대.

올해 창작 초연되는 '치유의 몸짓 - 물(物)깊는 여인들'은 여성과 삶의 근원적인 사유, 여성의 삶과 물(物)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로부터 생명적 교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틀을 의식하지 않는 실험성이 담긴 자유로운 치유의 춤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과거를 회상하며...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과거의 음악형식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근대 작곡기 법과의 절묘한 조합으로 특별하게 표현한 명곡으로 전



지휘 이동신 하프 윤혜순 하프 김영립

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가을 음악선물 '과거를 회상하며...'

바로크에서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에 두 대의 하프가 연주하는 마우웨츠키의 '2대의 하프를 위한 고전풍의 작은 협주곡', 그리고 '페르귄트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라벨/쿠프랭의 무덤 모음곡
- 마우웨츠키/2대의 하프를 위한 고전풍의 작은 협주곡
-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제1, 2번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윤혜순(하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 김영립(하프,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일파가야금합주단 제14회 정기연주회
한·몽골 '현의 축제' 두번째**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582-9119, 010-4544-5505)



장혜숙 Chuluunbaatar Oyungerel 고충진

1996년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단된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일파가야금합주단이 지난해 한·중·일 3국의 '현의 축제'에 이어 마련하는 한·몽골 '현의 축제' 두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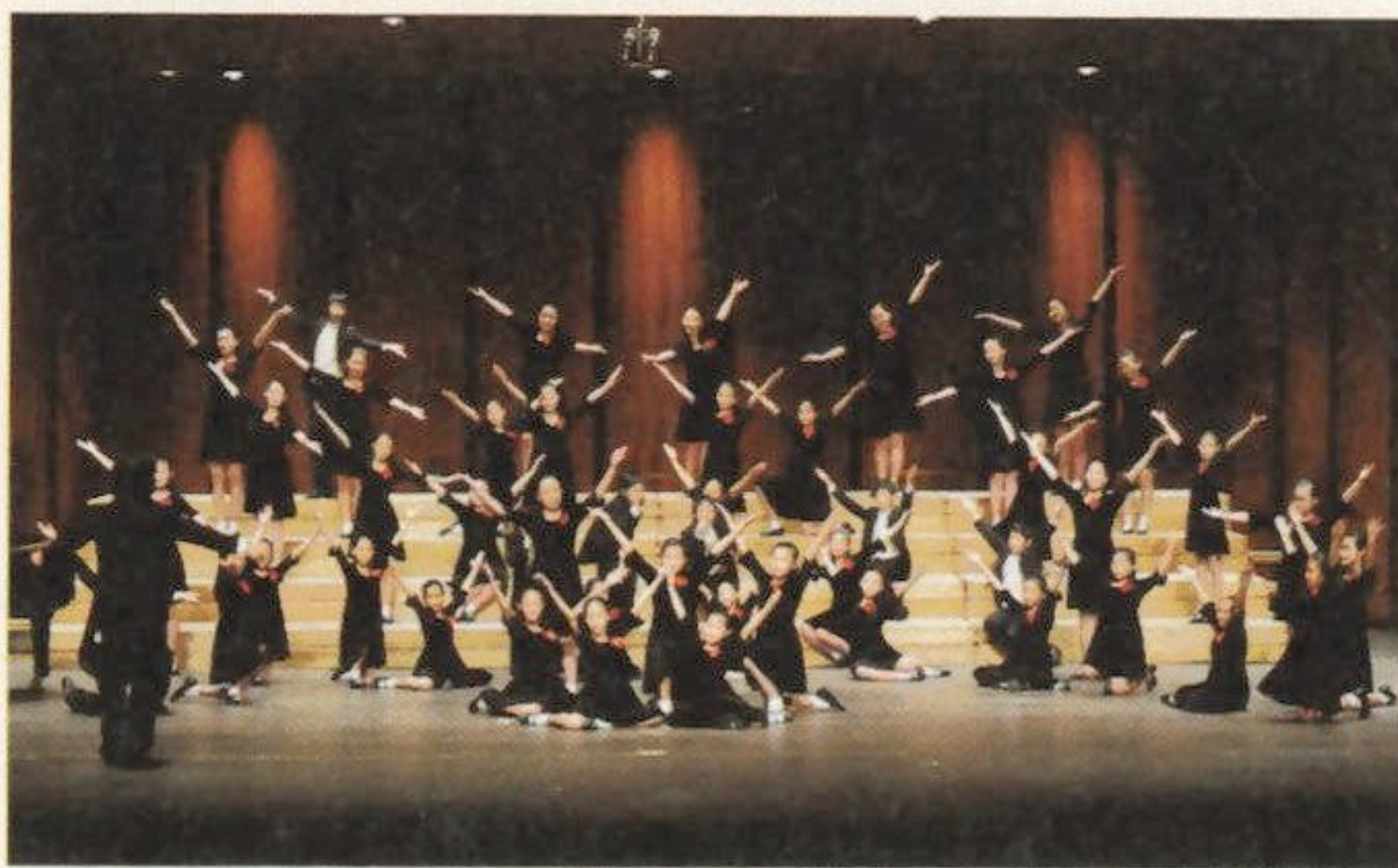
몽골 마두금대회 특별상, 몽골 국제호미대회 특별상, 몽골 전문연주자대회 대상을 수상하며 마두금과 호미(몽골 전통노래)의 최고 연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국립민속악단의 'Chuluunbaatar Oyungerel' 가 들려주는 마두금과 호미 연주를 비롯해 가야금과 마두금의 대화 '풍·현' (위촉곡-이은경 작곡), 25현가야금 중주, 가야금과 기타 연주 등 가야금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 중요무형문화재 제83호 구례향제줄풍류 중 타령, 군악
- 객재영/25현가야금 중주곡 '리틀 스토리', 해를 품은 달 OST '시간을 거슬러', 영화 '태양은 가득히' OST
- 몽흐바트/마두금과 호미 '칭기스칸의 찬사'
- 장명화(편곡)/25현 6중주 '백도라지'
- 이은경/가야금과 마두금의 대화 豊·鉉 등
- 단장/장혜숙 · 해설/장명화
- 마두금/Chuluunbaatar Oyungerel
- 기타/고충진 · 작곡/백규진, 이은경
- 작, 편곡/객재영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제2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1985년에 시작된 부산청소년합창제 스물 여섯번째 무대. 부산지역의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선도해온 부산청소년합창제는 초등학교 합창단연합회와 함께 폭 넓고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올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한 9개 합창단이 개개인의 감성과 음악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출연
가락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배현주)

- 명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류지원)
- 양덕초등학교 합창단(지휘/김기환)
- 용수초등학교 합창단(지휘/공연은)
- 엄궁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배수희)
- 명진초등학교 합창단(지휘/권기현)
- 남문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배수정)
- 용산초등학교 합창단(지휘/박지용)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전상철)

윤디 리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0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문 의 | 마스트엔터테인먼트(02-541-2512)

2000년 18세의 나이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피아니스트 윤디 리와 최희준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들려주는 윤디 리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 그랜드 폴로네즈 사장조
-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1번 나단조 작품 23
- 연주/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최희준)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제2회 정기연주회
'가을에 어울리는 가곡과 함께'**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모로제성악연구회(010-3868-2808)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지에서 수년간의 유학시절을 보내면서 기량을 쌓아온 동서대학교 정태미 교수의 제자로 구성된 아모로제(AMOROSE) 성악연구회의 정기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연주회 '가을에 어울리는 가곡과 함께'

2012년 3월 성공적인 창단연주회를 가진 아모로제 성악 연구회는 다양한 음악적 교류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무대는 한국가곡과 외국가곡, 그리고 다양한 합창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저스/도레미송

이흥렬/코스모스를 노래함

베네딕트/베니스의 축제

김동진/진달래꽃,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수곡

· 출연/소파라노 정태미(동서대학교 교수), 이지은, 김혜원, 김수현, 박지영, 이현정, 권미현, 조신미, 구민영, 이영은, 피아노 김란, 이소영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합창단 2012 정기연주회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경성대학교 합창단이 들려주는 2012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존 레빗/축제미사곡

이수인/개여울

앤더슨/Bugler's Holiday

베토벤/Choral Fantasy 작품 80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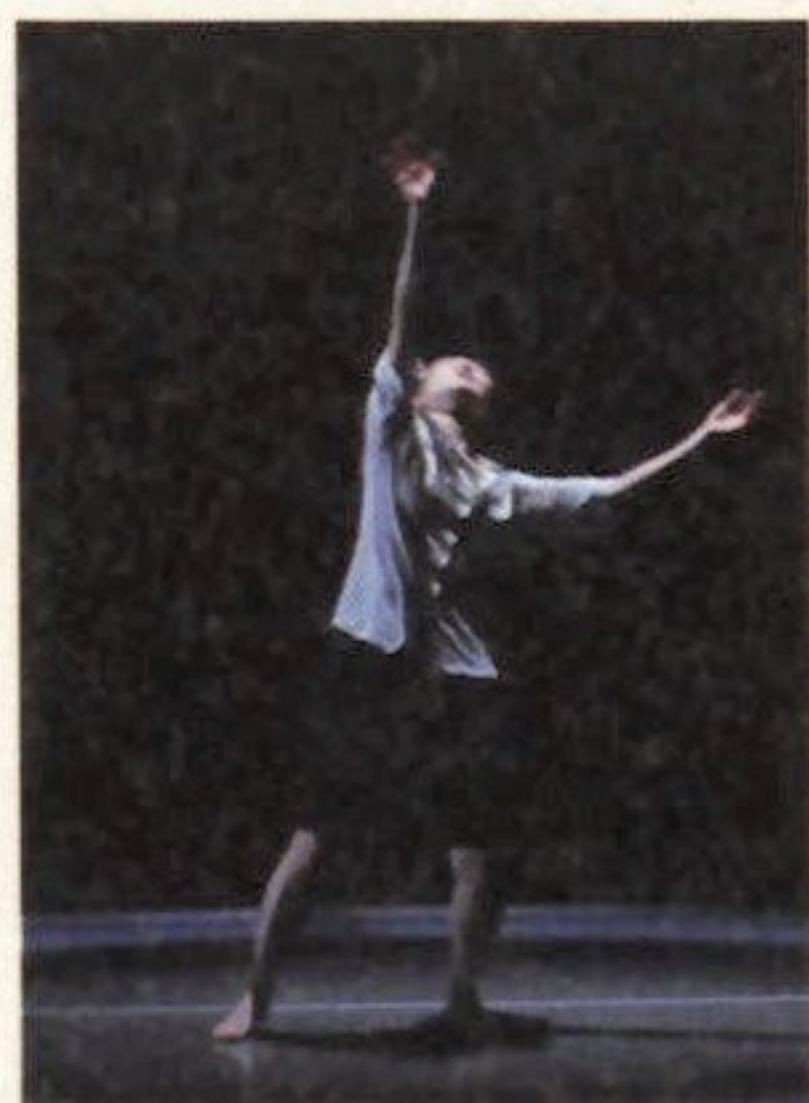
· 지휘/김성규(경성대학교 교수)

조희정의 춤 - 비(悲)우(雨)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정경은(010-6711-3922)



국제현대무용제, 서울무용제, 국제현대무용제, 신인춤 젊고 푸른 춤꾼, 국립무용단, 목포우수마당극제전 등 다양한 무대에서 열정적인 몸짓으로 무용애호가들과 만나온 판댄스시어터 대표 조희정의 2012년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의 의미를 조희정만의 춤 언어로 표현한 창작작품 '비(悲)우(雨)다'를 선보인다.

· 안무/조희정

· 출연/김유하, 김수연, 박은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리 신차오



바이올린 이수빈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생일을 기념해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창단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 전통악기 수르나이 연주자 시하이빈과 왕잔잔, 장래가 촉망되는 11세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새로운 50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열어준다.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은 11세의 나이로 2012년 예후디 메뉴인 국제바이올린 콩쿠르에 참가해 주니어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시완춘(施万春)/축일 서곡(节日序曲)

브루흐/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홀스트/행성 모음곡

· 지휘/리 신차오

· 바이올린/이수빈

· 수르나이/시하이빈(중국중앙음악원 교수),

왕잔잔(중국민족악단 단원)

· 여성합창/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 우정출연/중국 칭다오 심포니오케스트라

멜로매니아 가족음악회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민정식(301-9701)



아마추어 남성 성악동호회 멜로매니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래하는 의사 바리톤 민정식 두 번째 독창회.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원 후에도 20년간 꾸준히 성악 공부를 해온 민정식은 멜로매니아 단장, 어울림 남성중

창단 초대회장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가곡/그리운 마음, 봉선화, 보리밭, 명태

덴자/푸니쿨리 푸니쿨라 등 수곡

· 특별출연/멜로매니아, 어울림남성중창단, 부산낙동로터리클럽국악예술단, 부산낙동로터리클럽윈드 앙상블

· 찬조출연/테너 박광하, 소프라노 민하영

· 사회/왕종근

· 피아노/곽윤희, 오란아

2012 김희은의 춤 'Abschaum'

11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김희은 댄스컴퍼니

(890-2513, 010-7770-5395)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김희은 교수의 춤 'Abschaum'.

'Abschaum'는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한 요즘 현대인의 비극적 모습을 여러 형태로 그려내며 부조화된 사

회성을 담아낸 창작 작품이다.

· 안무, 연출/김희은(동의대학교 교수)

· 기획/김은정(부산예술대학교 교수)

· 영상감독/김상화(부산예술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김정순(부산예술대학교 교수)

· 출연/윤석태, 최정화, 최준호, 이성희, 신상현, 서아름 외



국악연주단 다루



부산시립무용단



프로젝트 그룹 'B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0월 6일 국악연주단 다루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병주(아쟁/정형석, 거문고/송다솔, 장구/김명진)

신 뱃노래(노래/최백송, 연주/다루), 신 태평가, 군밤타령(연주/다루)

가야금 협주곡 '소나무' (작곡/미끼 미노루, 편곡/백대웅, 가야금/김혜리, 반주/다루)

Happiness(작곡/강상구, 편곡/김병섭, 연주/다루), Frontier(작곡/양방언, 연주/다루)

박타령(작곡/이경섭, 노래/최백송, 연주/다루)

· 연주/김명진(타악), 신민주(피리), 김범석(대금), 정형석(아쟁), 김혜리(가야금), 박고운(해금, 해설), 최백송(소리), 엄홍석(신디), 최종택(타악), 송다솔(거문고)

10월 13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처용무(춤/이성원, 이정식, 박상용, 최의옥, 장영진), 멋든춤(춤/김주령·수석)

태평무(왕/류권홍, 왕비/이현정), 장고춤(춤/박창희·부수석, 김주연, 김경미)

흥타령(춤/오수연·부수석, 허태성), 성주허튼춤(춤/황선희·수석)

부채춤(솔로/이정인·수석, 군무/윤은하, 이현주, 안주희, 김도은, 김시현, 박미나)

· 안무, 구성/홍기태(수석안무자)

10월 20일 프로젝트 그룹 'Be...'

강상구/가야금 연주곡 Happiness

안현정/해금 연주곡 Dance Of The Moonlight

백규진/소금연주곡 미(美)

Tears In Heaven, Where is the love, Rock Around The Clock

· 연주/김지윤(해설), 조은경(소금), 김지현(가야금), 김소현(해금), 박순자(대피리), 차민영(피아노), 유경훈(베이스), 김진훈(드럼), 정주아(편곡)

10월 27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대취타(등채/김수일·태평소/김용우, 강영현·나발/황두호, 최재호·나각/진형준, 최영훈·용고/최오성, 김명진·자바라/이주현, 박일·징/박재현)

지영희류 해금산조(해금/방병원·장구/송강수)

중광지곡 중 염불, 타령

(대금/김수일·피리/정주아·해금/최윤희·양금/장미진·단소/조은경·가야금/옥경화·거문고/이유진·장구/이장우)

판소리(소리/정선희·고수/송강수)

시물놀이(팽과리/이주현·장구/전학수·징/최오성·북/박재현)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Music

제19회 동요사랑회 창작동요곡 발표회 동요사랑큰잔치

10월 3일 수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류지원(010-3864-9889)



지난 1994년 창작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설립된 동요사랑회(회장 류지원)의 정기발표회로, 이번 무대에서 발표되는 창작동요 30여곡을 음반으로 제작,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 찬조출연/KBS부산어린이합창단

부산신포니에타 제79회 정기연주회

10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6천원
문의 | 김영희(010-8519-0448)



김봉미



배수영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매년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잡은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0번
하이든/교향곡 제92번 '옥스퍼드' 등
· 지휘/김봉미 · 협연/배수영(피아노)

소당(韶堂) 황규남 문하생 가사 발표회

10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황규남(019-315-5820)
문금자(010-5559-6119)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전수교육조교인 황규남의 문하생들과 부산에서 정가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 문금자와 그의 제자들인 한국소년소녀정가단이 함께하는 가사 발표회.

12가사 중 죽지사, 상사별곡, 길군악, 처사가, 황계사, 어부사, 수양산가, 백구사, 매화가 등 9가사를 들려준다.

· 피리/김정집 · 대금/김상준 · 장구/정동주

영화음악∞음악영화

10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후 5:00 LIG 아트홀부산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LIG 아트홀(544-3922)

2011년 영상과 음악, 영화와 공연이라는 장르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LIG 아트홀 기획공연 '영화음악∞음악영화' 2012년 무대.

독특한 색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영화감독 김수현, 정재은, 이광국과 젊은 음악감독 최효선, 최태현, 연리목이 참여한다.

을숙도문화회관 금요해피콘서트

소프라노 이정란 '목소리로 떠나는 유럽여행'

10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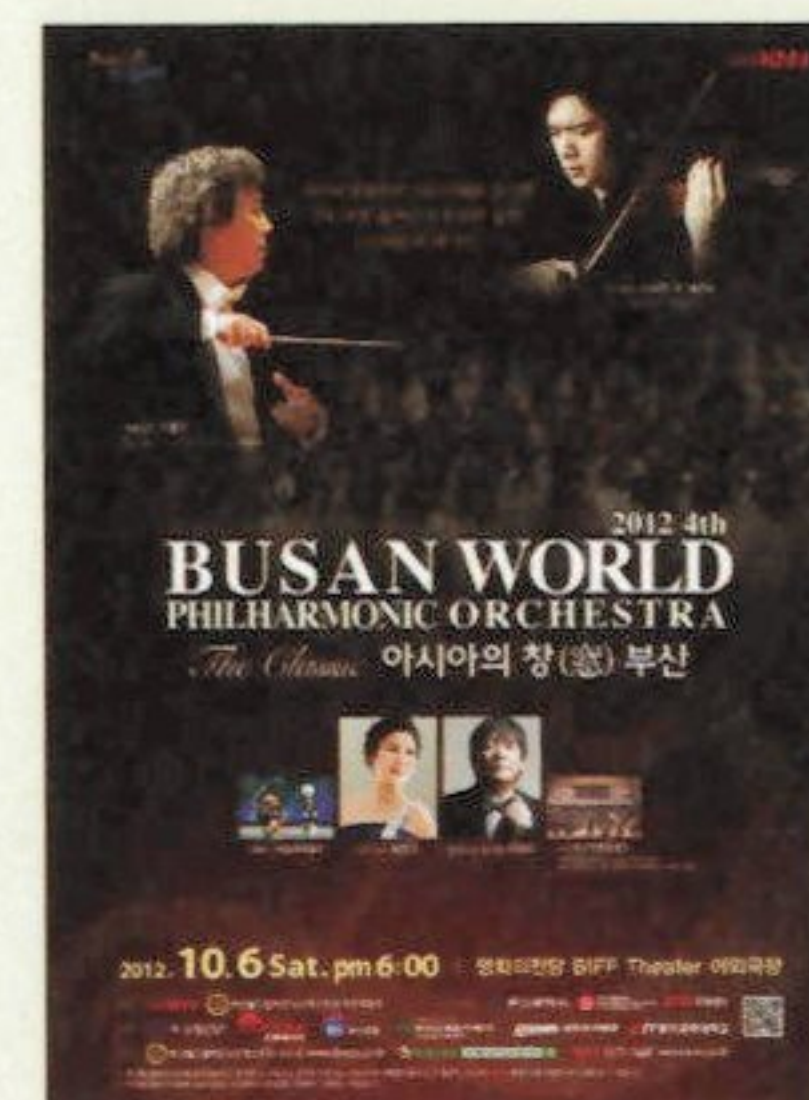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국제음악콘서트바토리, 국립 Vanves음악콘서트바토리, 국립 ENM d'Aulnay-sous-Bois 최고연주자와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이정란 초청무대.

· 해설/이홍길 · 피아노/안선애
· 소프라노/엄남이 · 기타/홍광현

제4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10월 6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인터넷 신청)
문의 | KNN(1577-7600)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에 맞춰 '영화의 도시, 음악의 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

해 마련하는 'The Classic-아시아의 창(窓) 부산' 무대.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코른골트/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35
안익태/한국환상곡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협연/스테판 피 제키브(바이올린), 박은주(소프라노), 비뮤티(클래식컬 팝보컬), 버숨새예술단, 부산연합합창단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6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활쏘는 대목', 취타 풍류, 승무, 부채춤, 판굿 등

13일 프로그램

해령, 풍류장구춤, 남도민요 '흥타령, 육자배기', 삼고무, 가곡 '언락, 우락', 동래한량춤, 삼도설장구

20일 프로그램

수제천, 통영교방진춤, 서도민요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사설난봉가', 정재 무고, 남녀창 태평가, 강강술래, 사물놀이

26일, 27일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아트뱅크코리아 초청 기획공연
루퍼스 최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07년 호세 이투르비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피아노부문 우승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계 피아니스트 루퍼스 최 초청 연주회.

루퍼스 최는 그동안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연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리스트/바흐 주제에 의한 변주곡 S.180
하이든/변주곡 바단조 Hob. XVIII:6
쇼팽/스케르초 제1번 작품 20 나단조 등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백재진과 친구들 비르투오조 리사이틀

10월 9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과 비르투오조 앙상블이 함께하는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무대.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백재진은 지난 1995년 비르투오조 앙상블을 창단, 리더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중 '가을'
브루흐/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비탈리/사콘느 사단조 등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3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10일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숙음아르떼 10주년 기념음악회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숙음아르떼 결성 10주년 기념음악회.
· 지휘/김현애
· 출연/소프라노 노찬용, 심현정, 피아니스트 이은숙, 박정주, 최영은, 비올리스트 이기영

▶17일 제3회 임소영, 김유진 피아노 듀오콘서트

부산예고 동문인 피아니스트 임소영, 김유진 듀오무대. 임소영은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독일가곡연구회,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김유진은 경남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4일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The Classic'

학구적 연주자세와 음악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온 동의대 백재진교수가 바이올린곡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소나타를 들려준다.

▶31일 김성희 피아노 독주회

경성대학교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김성희 독주회.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지난 2007년 창단된 후 문화소의 계층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대를 가져온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이기중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예브게니 이조토프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프랑스 에콜노르말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이조토프 초청공연.

프로그램

멘델스존/엄격변주곡 작품 54
쇼팽/스케르초 작품 31 제2번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제5번 등

진형준 피리 독주회 'Ikalas'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진형준(011-9523-8518)

제14회
글로벌전국
음악콩쿨
2012 10.3(수)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부 문 | 피아노/작곡/성악/중창/현악/관악/국악/실내악/실용음악
대 상 | 유·초·중·고·대·일반전공·일반비전공
접 수 | 2012년 9월 30일 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접수처 | www.contest.co.kr(콘테스트) 또는 www.glovil.org
과제곡 | 전 부문 자유곡 1곡(단 피아노 및 성악 중고등부는 각각 2곡)
※자세한 사항 및 작곡은 홈페이지 참조
시 상 | 부산대학교총장상,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장상, 글로벌아트홀관장상
각 부문별 각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부문별 최우수상 전체대상
학원상 : 단체상 교육공로상 최우수학원상
주 최 | 글로벌아트홀, 부산대문화콘텐츠개발원

글로벌아트홀 3호선 미남역 1번출구 국민은행과 파리바게트 사이길로 4분 도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벌아트홀(온천3동 1243-21),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T.051)505-5995 F.051)505-5935 E. glovil@hanmail.net http://www.glovil.org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이수자, 승전무 전수자, 정악 및 대취타 전수자, 'TODA' 그룹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형준 피리 독주회.

프로그램

영겁(이기병 편곡), 가락(이기병 곡), Sophi(이기병 곡), 하루를 보내며...(박선영 곡), 아라리(최윤영 곡), 자진아리(오지충 편곡), 그리움 짙게 남기고(이기병 곡) 등
· 사회, 노래/김용우
· 작사, 작곡, 편곡, 노래/최윤영
· 작곡, 피아노/이기병 · 작곡/박선영
· 연주/토다-윤해승(해금), 조혜운(바이올린), 김종균(기타), 윤혁성(드럼), 강지훈(피아노), 정우진(베이스), 이진희(타악)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4일 공연없음)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11일 밴드 아메리카노 언플러그드 소울 콘서트

부산에서 유일하게 소울과 재즈팝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는 아메리카노 밴드가 선사하는 소울 & 보사노바의 향연.

▶18일 이선희 클라리넷 연주회

모스틀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수석 단원인 클라리네티스트 이선희의 무대.

▶20일 특별콘서트 '소울싱어즈 콘서트'

가스펠 그룹 소울싱어즈가 들려주는 블랙가스펠의 진수 '소울싱어즈 콘서트'.

▶25일 부산챔버싱어즈와 함께 하는 가을 음악여행

수준높은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합창곡을 들려주는 아마추어 여성합창단 부산챔버싱어즈의 무대.

▶26일 소프라노 이은정 독창회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예 소프라노 이은정이 '여인과 사랑'이라는 테마로 여주인공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낭만을 노래한 다양한 성악곡과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들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소프라노 이정민, 테너 문동환, 정필윤

을숙도 명품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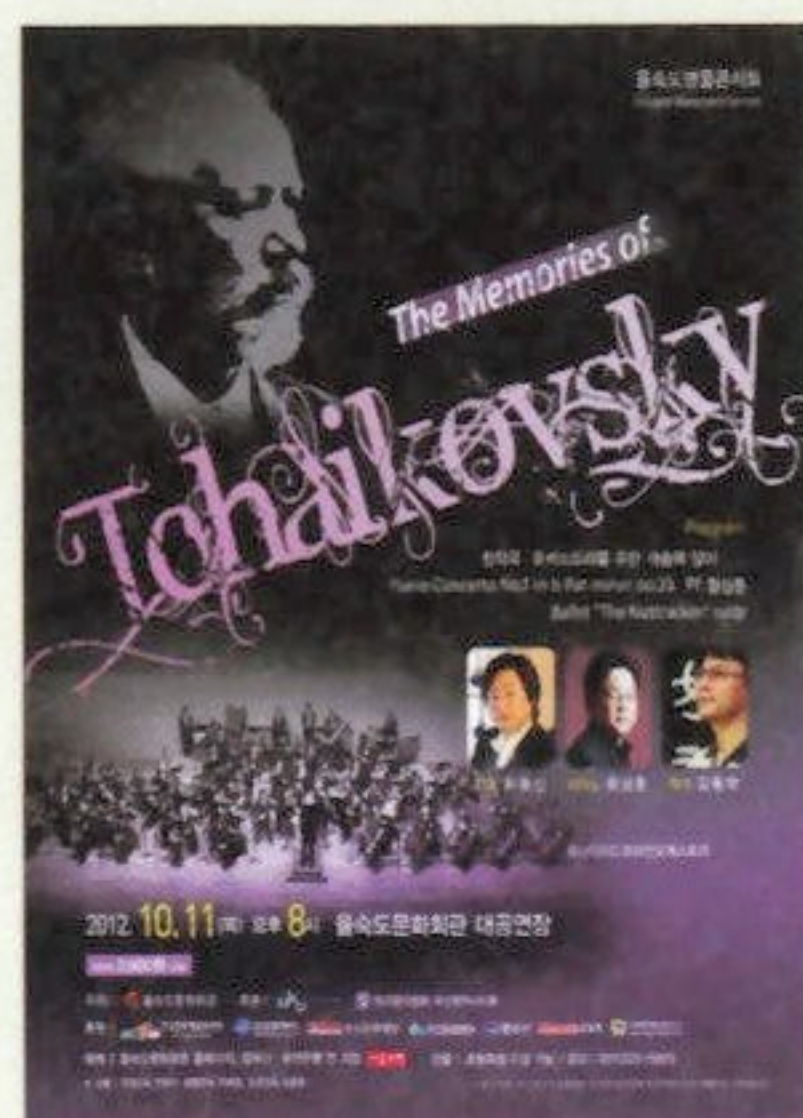
The Memories of Tchaikovsky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가을의 서정과 어울리는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는 이태리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및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교수로 있는 재독 피아니스트 황성훈이 러

시아 낭만주의를 느낄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동학/오케스트라를 위한 대숲에 앉아...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등

· 지휘/이동신

· 연주/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부산거문고악회 제4회 정기연주회 '푸리'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8: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거문고악회(010-7507-9385)

부산대학교 권은영 교수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거문고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거문고악회가 번민과 갈등을 넘어서 만물과 하나되는 화해와 공존의 의식이자 놀이인 '풀이'를 거문고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거문고합주 동살푸리, 영산회상, 거문고와 가야금을 위한 With Bach(이은경 곡), 거문고와 승무를 위한 '푸리'(강봉천 곡)

· 단소/장명화

· 춤/장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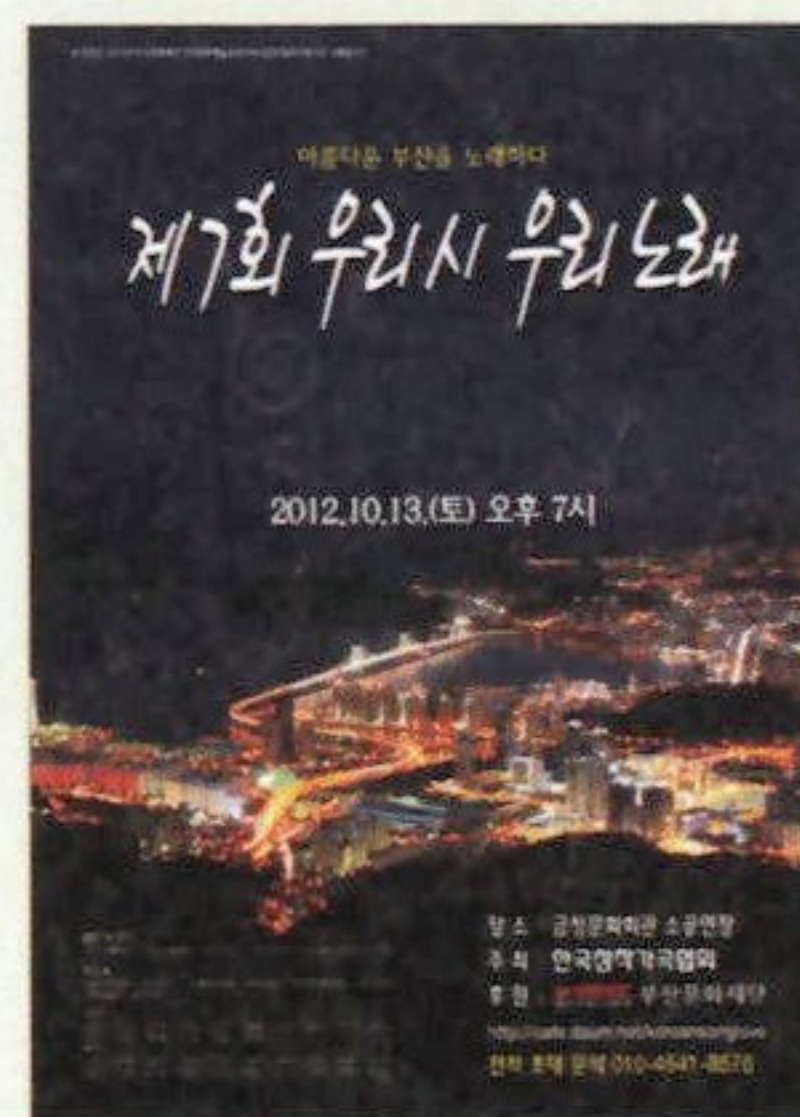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제7회 우리 시 우리 노래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성덕(010-4541-8576)



한국 창작가곡의 발전을 위해 작곡가와 성악가, 시인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가 마련하는 제7회 우리 시 우리 노래.

프로그램

꽃비 내리는 사월(정민아 시, 이주애 곡), 송정 바닷가강

주중 시, 김경운 곡), 목련화(조성범 시, 노순덕 곡), 가을 밤의 세레나데(김정순 시, 김종태 곡) 등 수곡

제3회 명호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우리의 행복한 노래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6: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류지원(010-3864-9889)

2010년 6월 명호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창단된 후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명호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지휘/류지원(KBS부산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찬조출연/카메라타합창단, 황남용(클라리넷)

복합총체극 '도화라지 도화라지!'

10월 14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균일 1만원(예약시 20% 할인)
 문 의 | 최윤영(010-9184-9619)



소외받고 잊혀져 가는 이웃들과 함께 하기위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단원 홍석기,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최재근(사물), 최윤영(민요)으로 결성된 '무릉도화'가 일명 '문둥병 환자'로 불리는 한센인의 한 맺힌 삶을 소리와 춤, 드로잉, 영상, 그림자극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한 복합 총체극 '도화라지 도화라지!'를 선보인다.

장철근 바이올린 리사이틀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서바토리와 노보시비르스크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동의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전담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철근 독주회.

프로그램

브람스/소나타 제1번

파가니니/바이올린 소나타 제6번 작품 3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가단조 등 수곡
 · 피아노/에브게니 이조토프(신라대학교 교수)

**불가리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자르지크 초청 내한공연**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월드퍼포먼스(462-7071)



바딤 빌리노프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1번 가장조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장조 '운명' 등 수곡
 · 지휘/바딤 빌리노프

1969년 창단된 후 화려하고 웅장한 심포니로 동유럽 음악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는 불가리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자르지크 내한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피아니스트 김남숙과 윤지은이 들려주는
 슈베르트의 네 손 음악 이야기**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윤지은(010-2282-0716)



김남숙



윤지은

고신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김남숙과 외래교수인 피아니스트 윤지은이 슈베르트가 전 생애에 걸쳐 남긴 32개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 중 4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Grand Rondeau 가장조 작품 107, Fantasie 바단조 작품 103, Introduction and Variations on an Original Theme 내림나장조 제2번, Allegro 가단조 'Lebensstume' 작품 144
 · 해설/테너 조용환

제22회 부산신인음악회

10월 16일 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음악협회(634-1295)

차세대 연주자들을 발굴해 연주무대를 제공하는 부산지역 신인 음악가들의 등용문인 부산음악협회의 제22회 부산신인음악회.

오디션을 거친 7명의 연주자들이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협연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7회 청소년 협연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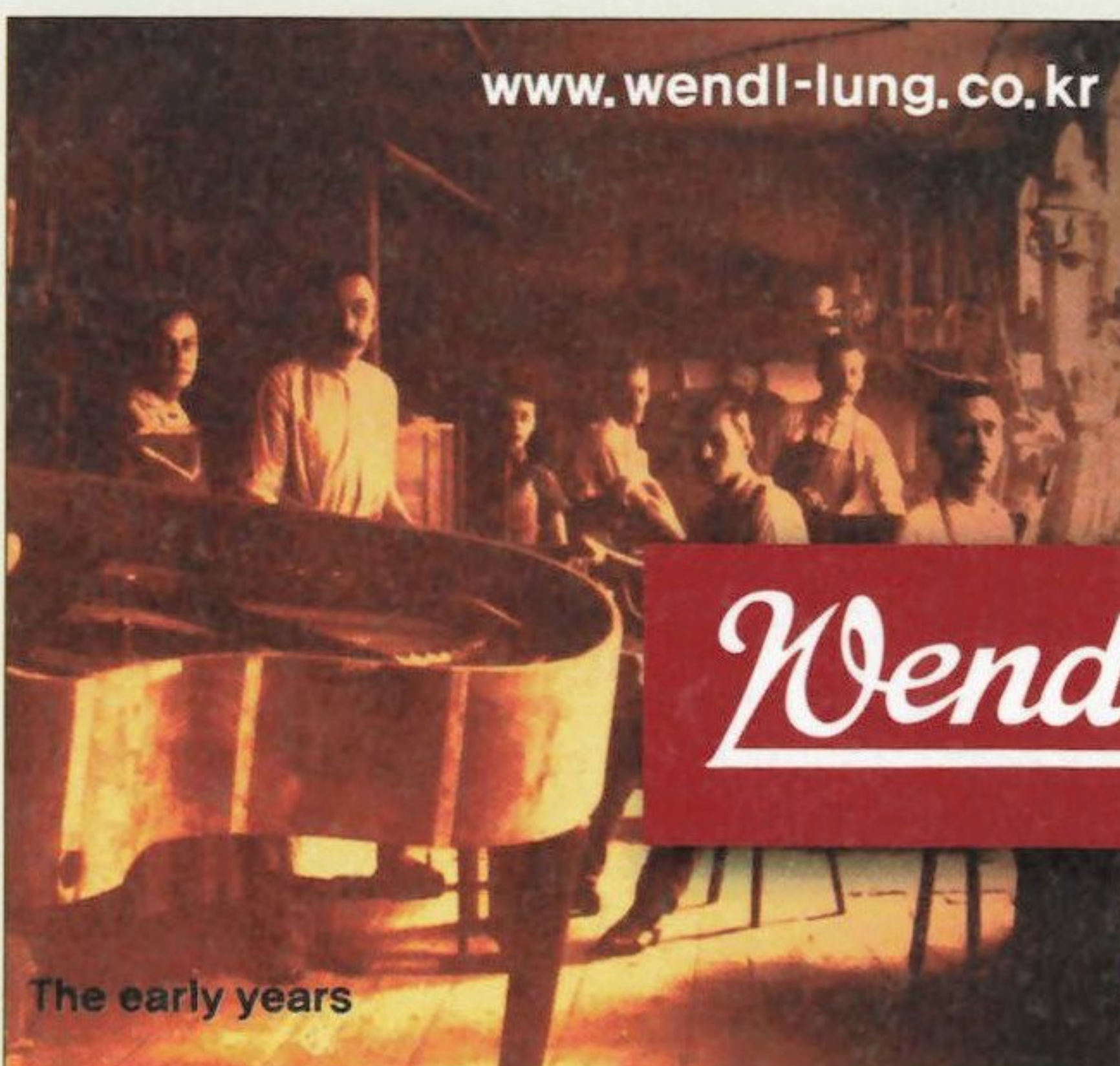
2012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해 연주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7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이건용/25현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부산초연)
 이강덕/지영희류 해금산조 협주곡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김대성(편곡)/거문고와 관현악을 위한 기상곡
박위철(편곡)/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
이경섭/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김지우(25현 가야금, 부산대학교 4년), 한지연(해금, 부산대학교 3년), 송다솔(거문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준희(아쟁, 부산대학교 4년), 최정욱(설장구, 부산대학교 4년), 이종인(설장구, 부산대학교 2년), 강우담(설장구, 부산대학교 1년), 이주영(설장구, 부산예고 2년)

나눔 콘서트 시리즈 1 The Mind of Sharing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Busan Nanum Flutes Society
(010-3866-9372, 010-4909-7444)

부산대학교와 독일 쾰른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음악원을 졸업하고 매년 독주회와 실내악 무대, 다양한 기획연주회를 통해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성기엽과 연세대학교와 독일 로스톡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음악회.
연주회 후에는 사랑의 열매 기부행사가 펼쳐진다.

제12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리골레토'

10월 18일-20일 목-토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부산소극장뮤지컬오페라양상블(550-6611)

그동안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투란도트, 라보엠, 코지 판투테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를 갈라콘서트로 선보여



김성경

윤상운

온 부산소극장뮤지컬오페라양상블이 베르디의 3대 오페라 '리골레토'로 관객들과 만난다.

· 단장/장진규 · 예술총감독/함도관
· 연출/김성경 · 지휘/윤상운
· 연주/인코리안 오케스트라
· 출연/고영호, 한정현, 윤희원(리골레토), 김유진, 김하나, 정혜리(질다), 김경, 장진규, 양승엽(만토바공작), 권영기, 양종근, 최현욱(스파라푸칠레), 성미진, 이지영, 김수현(막달레나)

청소년 렉처콘서트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로 마련되는 2012년 청소년 렉처 콘서트 여덟 번째 무대로, 베토벤 교향곡 제7번과 부산의 신예작곡가 이예지의 창작곡 'From Loneliness to Abundance'를 들려준다.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연주/(사)T.I.F 오케스트라

심새미의 가야금 산조 여섯 바탕 연주를 위한 여정 세 번째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민코퍼레이션
(02-574-8896, 010-9907-1226)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시아금교류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부산 출신의 가야금주자 심새미 독주회.



그동안 성금연류(2009년), 김죽파류(2011년 국립국악원)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연주해 각각의 류파가 지닌 특성과 음악적 맛을 살려내는 작업을 진행해온 심새미는 앞으로 김병호류, 김윤덕류,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 연주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신포니에타 유망주 협주곡의 밤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영희(010-8519-0448)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가 매년 차세대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하는 협연의 밤.

· 지휘/박광식
· 협연/왕현지(바이올린, 용문중 2년), 이예찬(클라리넷, 부산예중 2년), 김재은(첼로, 부산예중 3년), 권은하(바이올린, 부산예고 1년), 신소미(첼로), 김정윤(플루트, 부산예고 1년), 안혜인(바이올린, 부산예고 2년), 전해주(바이올린, 부산예고 2년)

이민지 바이올린 리사이틀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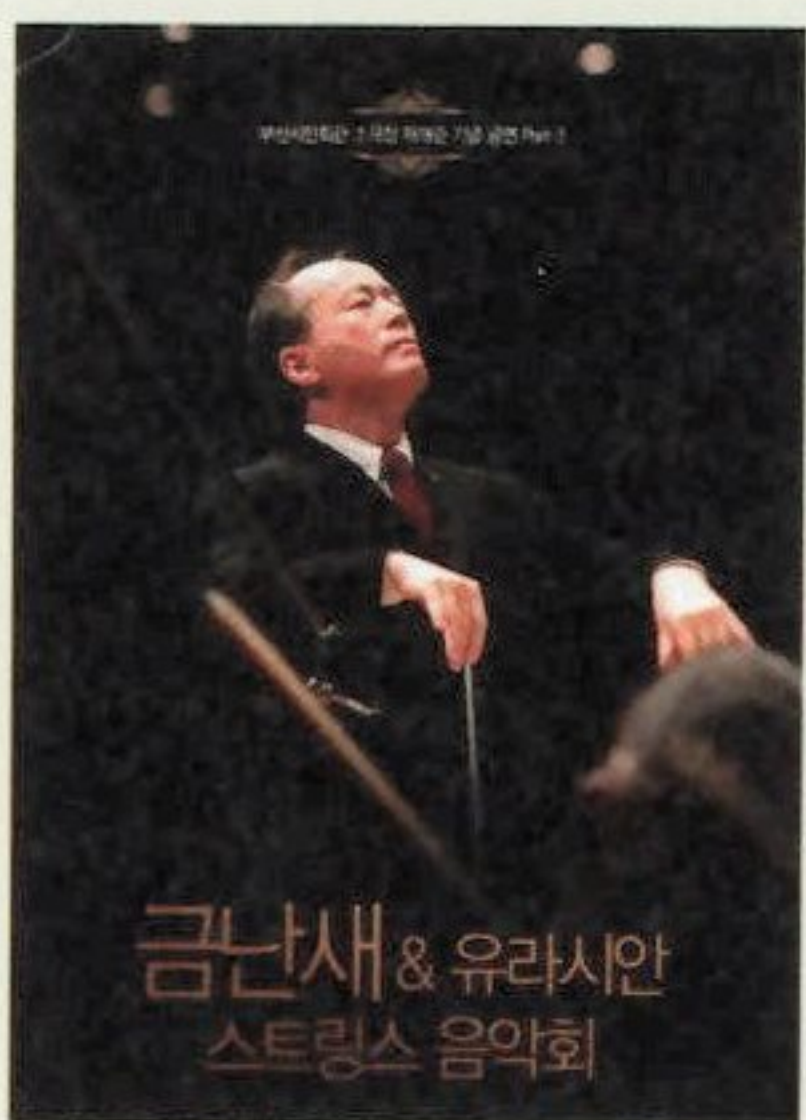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이올리니스트 이민지 독주회.
이민지는 뉴질랜드 National Concert Competition에서 2위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10번 작품 96 사단조
바흐/파르티타 제2번 라단조 BWV 1004 '샤콘느'
피아졸라/탱고 발레 등
· 피아노/이지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금난새 & 유라시안 스트링스 음악회-부산**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4만원(10/23일까지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지휘자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예단원으로 구성된 유라시안 스트링스가 함께하는 무대. 유라시안 스트링스는 그동안 가족음악회, 행복이 흐르는 음악회, 뮤직 인 잉글리쉬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났다.

김희정 바이올린 리사이틀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연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주활동과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프로그램

프랑크/소나타

아이플로로브/포기와 베스 콘체르트 판타지

비에냐프스키/파우스트 판타지

· 피아노/정광민



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초연되는 부산작곡가 이규봉의 위촉곡을 비롯해 도시오 호소가와, 찬인화, 토루 다케미쓰, 치나리 웅, 윤이상 등 작곡가 6인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연주/양상불 사운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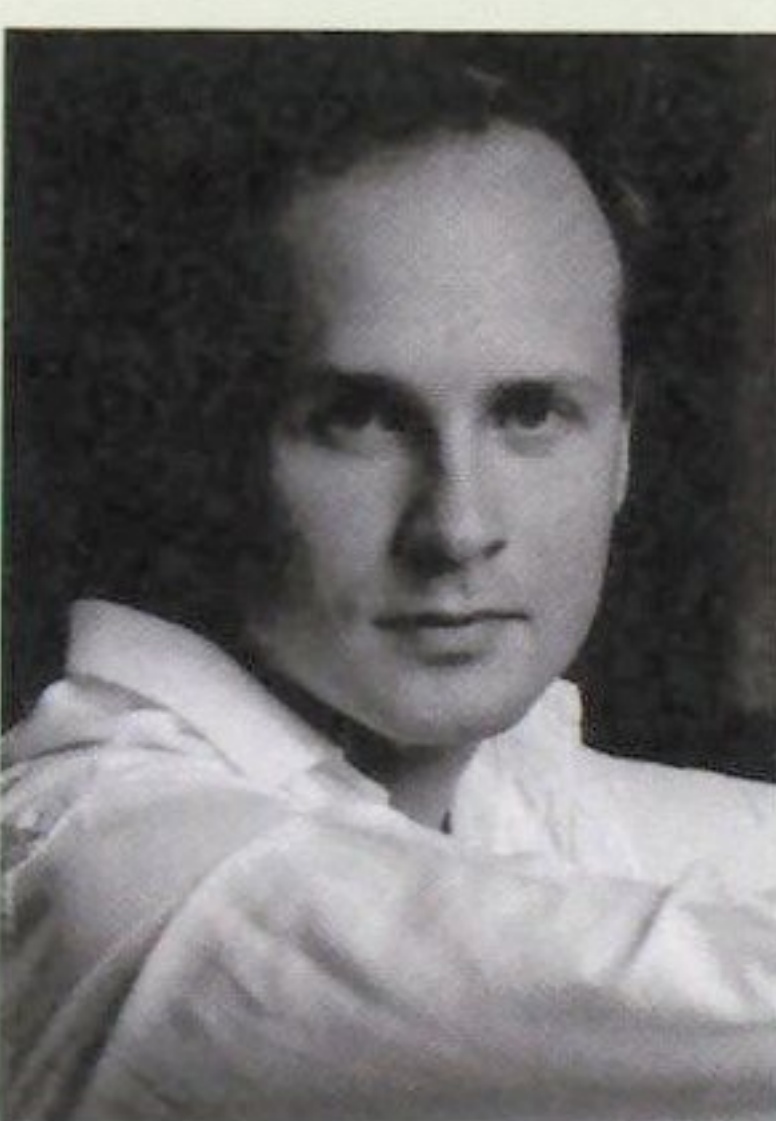
· 기타/고충진

· 파곳/장병호

사진이 있는 작은음악회

알렉세이 레베데프 피아노 독주회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참여후원비 1만원(사전예약 필수)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상트 페테르부르크 림스키 코르사코프음악원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레베데프 초청무대.

프로그램

리스트/왈츠 즉흥곡 S.213

베토벤/소나타 작품 31 제2번 라단조 등 수곡

**시민과 함께하는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가을 음악여행**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회복지법인 동성원(582-4635)



2008년 3월 사회복지법인 동성원 원생들로 창단한 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외계층들에게 음악을 통한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동성드림윈드오케스트라 가을 음악여행.

· 찬조출연/금정구 여성합창단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느낌, 클래식 재즈**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깊어가는 가을, 우리 귀에 익은 친숙한 클래식을 경쾌한 재즈로 들려주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흥미, 열정,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앙상블을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재즈밴드 COZ(Cross Over Zest)가 출연,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제15회 MiOT 정기연주회

MiOT 2012 : Asian Waves(아시아의 물결)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순희(701-1584, 018-566-1584)

1997년 발족된 후 정기연주회와 학술심포지움,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대음악 보급에 힘써온 '우리시대의 음악(Music in Our Time : MiOT)' 정기연주회. 아시아의 문화적 또는 민족적 배경을 가진 현대작곡가



YAMAHA · KAWAI · 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가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051-753-8963
H.P. 010-9003-896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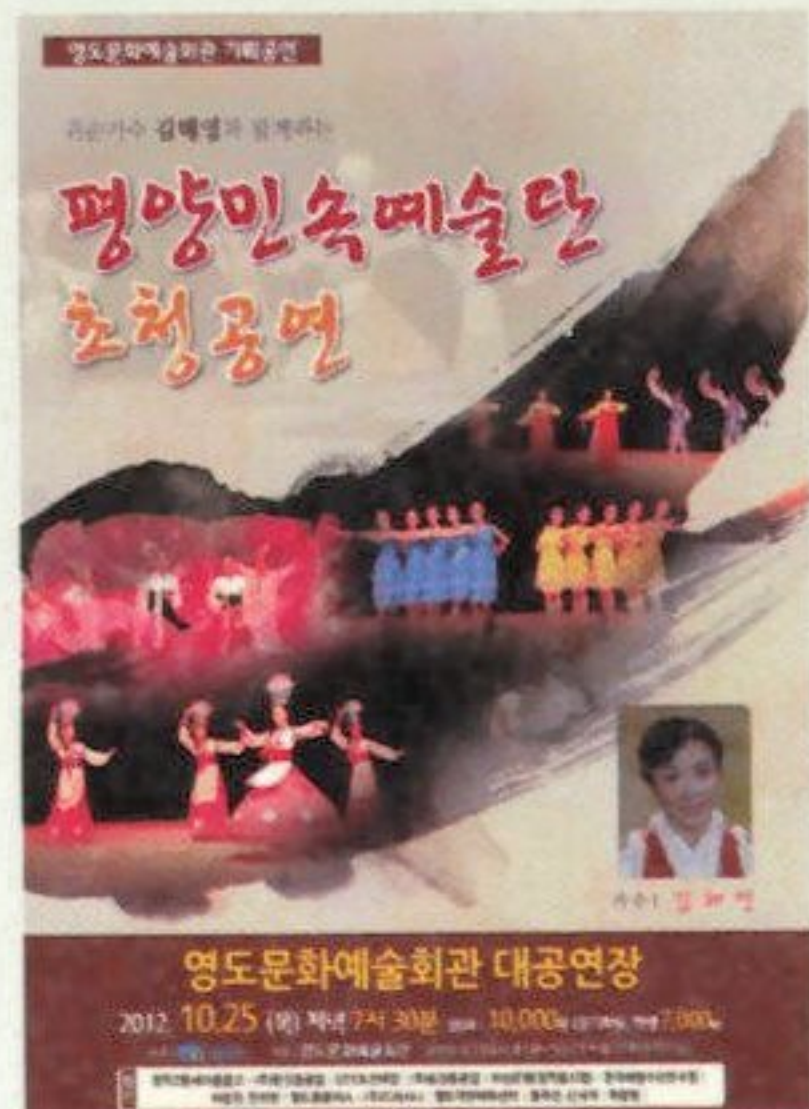
목요국악콘서트 '가을이 오면'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그룹 도시樂'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치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귀순가수 김혜영과 함께하는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지난 2002년 예술분야에 종사했던 탈북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 매년 150여차례 공연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의 문화와 예술을 알려온 평양민속예술단과 귀순가수 김혜영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슈베르트 3대 연가곡 전곡 연주회

10월 26일(금), 29일(월), 11월 1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김종화 김현식 조윤환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3대 연가곡으로 유명한 '물방앗간 아가씨(10월 26일)' '겨울나그네(10월 29일)' '백조

의 노래(11월 1일)' 전곡 무대로 마련되는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 10월 26일 출연/김종화(테너), 임효진(피아노)
- 10월 29일 출연/김현식(테너), 성민주(피아노)
- 11월 1일 출연/조윤환(테너), 노만 셔틀러(피아노)

아가페합창단 제34회 정기연주회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가페합창단(010-9913-2807)



음악을 통해 선교활동을 펼쳐온 아가페합창단이 클래식에서부터 미사곡, 한국민요, 흑인영가 등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코랄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주태 · 피아노/엄혜경
- 객원출연/오안나(소프라노), 임충진(테너), 김영래(색소폰)

부산토브싱어즈 제1회 정기연주회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이일경(010-4880-4918)



지난 2011년 기존의 토브남성합창단과 토브여성합창단이 새롭게 모여 결성한 부산토브싱어즈의 첫 번째 연주회. 음악 전공자 18명으로 구성된 부산토브싱어즈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에 이르는 고음악을 중심으로 고전과 낭만,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토요해피콘서트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

부산에 위치한 대안학교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결성된 우다다예술악단의 무대.

2012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River & Sea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3)



T.I.F.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강과 바다를 주제로 한 클래식 곡과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을 들려준다.

- 지휘/박성완 · 사회/손지현
- 협연/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가수 최대호 외

제14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 입상자 연주회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14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에서 각 부문별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최우수 입상자들이 펼치는 무대.

**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
경남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혜원(010-5060-3176)

2005년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부산뮤즈플루트앙상블과 경남플루트앙상블이 함께 마련하는 조인트 무대.

**부산시민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제57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 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 구트만이 극찬한 첼리스트 이명진 독주회.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명진은 화음첼로오케스트라 멤버로 다양한 실내악 무대에도 서오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5번
마르티누/로시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 수곡

테너 강학윤 독창회 '애창곡의 밤'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강학윤(010-9287-6350)



경성대학교와 이태리 로시니 국립음악원, 프랑스 잔느 빌리에 국립음악원, 크레테이 국립음악원, 이태리 로마 국제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음악협회 성악분과 위원장, 남구문화예술회 음악회 회장, 남부산농협 청솔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강학윤 독창회.

- 우정출연/테너 석동호, 김정민, 소프라노 김경림, 이의영, 박유미, 메조소프라노 황경옥, 박순희, 오프로 박남희, 박미숙
- 피아노/손혜진

Play

2012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1월 1일(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호러연극 '두여자'

6월 5일(화)-11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9/30일, 10/1일,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연극 '내이름은 김삼순'

9월 7일(금)-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나이도 딱 차버린 서른 셋 김삼순의 이야기를 통해 미혼 여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

감성뮤지컬 '잇츠유'

9월 7일(금)-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9/30일, 10/1일, 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SM기획(1600-1602)

지역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네 남녀의 사랑과 꿈이 한 편의 뮤직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감성뮤지컬 '잇츠유'.

부산악기점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보이지 않는 사람들'

9월 12일(수)-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9/30일,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점성술사가 불러낸 죽은 아내의 유령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믹풍자극.

· 원작/노엘 카워드 · 연출/허영길

· 출연/백대현, 임선미, 강민지, 김지희, 박준성, 문혜련, 차영희



하, 정원혁, 이다혜

최근 많은 사랑을 받은 TV 드라마 '신사의 품격'의 주요 캐릭터와 인상깊은 명장면, 명대사를 패러디해 웃음을 선사하는 옴니버스 코믹쇼 '개그의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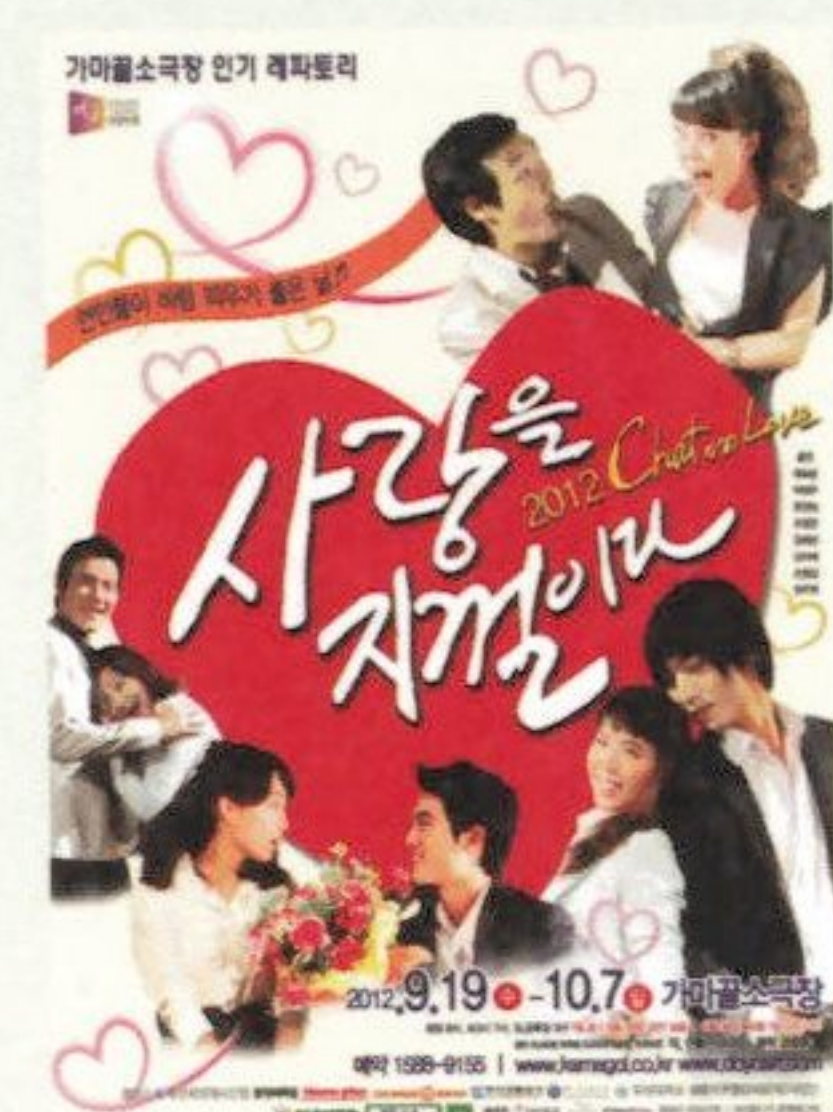
· 작, 연출/양지운, 허동환
· 출연/허동환, 김지환, 김민

뮤지컬 '사랑을 지껄이다(Chat On Love)'

9월 19일(수)-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9/29일,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대학생 2만원
초중고 1만 5천원

문의 | 가마골소극장(1588-9155)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를 현대적으로 각색, 21세기 젊은이들의 사랑과 삶의 성장을 주제로 제작된 로맨틱 뮤지컬.

· 작, 연출/이채경
· 출연/배보람, 윤정섭, 박정무, 김미혜, 김해선 외

극단 누리에 '장군슈퍼'

9월 27일(목)-10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10/1일, 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극단 누리에(621-3573)

장군슈퍼의 외아들이자 청년 실업자인 장군의 가족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장군슈퍼'.

가족뮤지컬 '어린이 점프'

10월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7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명작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와 화려한 무술퍼포먼스가 만난 마살아츠 뮤지컬로, 집을 지키려는 돼지 삼형제와 늑대들의 한바탕 결투가 펼쳐진다.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츠'

10월 6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 어린이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뮤지컬 '캣츠'를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츠'.

신명나는 춤과 노래 속에 꿈을 쫓는 고양이들의 희망찬기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부산사람 姑 이태석 신부의 감동실화 뮤지컬 '울지마 톤즈' 부산공연

10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7일 일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문의 | LGM contents company(740-4888)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헌신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다 지난 2010년 1월 대장암으로 영면한故 이태석 신부의 실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울지마 톤즈'.

· 작/김태수
· 연출/방성창

뮤지컬 '쌍화별곡' 부산공연

10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주)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코믹극 '아유크레이지'

9월 13일(목)-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9/39일, 10/1일, 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SM기획(1600-1602)

새로운 정신병 기준 재정립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장 입원한 천재박사와 그의 조수가 펼치는 요절복통 코믹극.

연극 '모라동 행복화원'

9월 14일(금)-10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일·공휴일 오후 3:00

(9/29일~10/1일 추석연휴, 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시나위 공연기획단(010-6807-6066)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관계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연극 '모라동 행복화원'.

바라바라 시즌3 '개그의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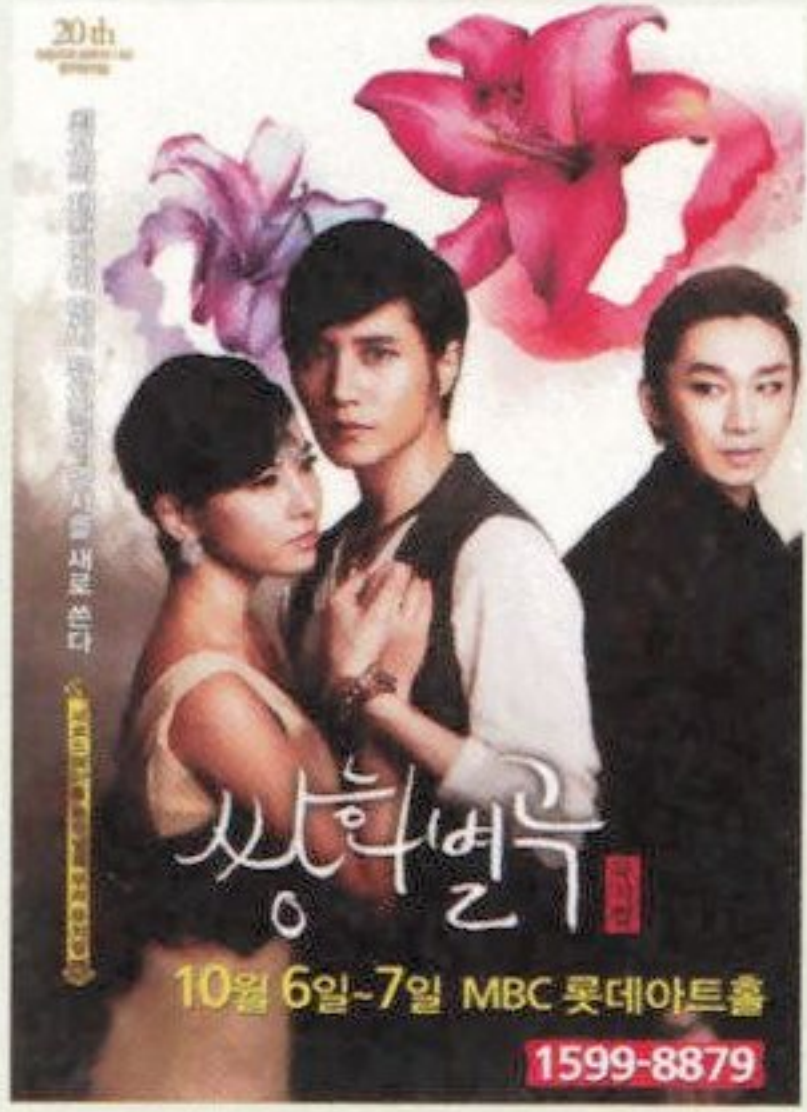
9월 14일(금)-10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10/1일-3일 오후 3:00,
6:00, 9/30일,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불교를 민중에게 전파했던
고승 원효와 의상의 삶을 역
사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구성한 창작뮤지컬 '쌍화벌
곡' 부산공연.
· 작/이희준
· 작곡/장소영
· 연출, 안무/이란영

· 출연/김다현, 박완, 김호영, 김순택, 정선아, 이진희 외

극단 에저또 '몽?몽!몽...' 제2탄

10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천원 한장을 차지하기 위
해 '목숨'을 거는 주인공들
의 모습을 통해 물질 만능
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
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해보는 창작극 '몽?몽!
몽...' 제2탄.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유리동물원'

10월 10일(수)-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cafe.daum.net/say012)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는
극단 사계의 20주년 기념공
연 두 번째 무대.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 한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을 그린 극작가 테네시 윌리
엄스의 '유리동물원'을 현재
극단 사계를 이끌고 있는 연

출가 김만중의 연출로 선보인다.
· 출연/김미경, 전체희, 이준, 홍연택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부산공연

10월 12일(금)-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수요일 오후 3:00 공연 추가, 월요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3만원 · R석 11만원
S석 7만원 · A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주)WSM(1566-5490)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두
개의 본성, 선과 악을 섬세
하게 표현한 드라마에 세 남
녀의 로맨스가 더해져 '브로
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호평
을 받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부산공연.

2001년 '오페라의 유령' 초연당시 한국 최초의 팬텀 역
을 맡았던 배우 윤영석과 최근 팬텀 역으로 주목받았던
실력파 배우 양준모가 주인공 팬텀 역을 맡아 서로 다
른 색깔의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짬뽕'

10월 12일(금)-1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5·18 광주민주화항쟁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
는 황당한 설정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소시
민들의 삶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연극 '짬뽕'.
· 작, 연출/윤정환
· 출연/윤선희, 박주용, 김태성, 정정남, 김정현, 김경환,
김선덕, 김민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오리지널 가족뮤지컬 '어린이 캣츠' 부산

10월 16일(화)-21일(일) 평일 오전 11:00, 오후 3: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쾌한 스토리와 열정적인
라이브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족뮤지컬로, 달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모인 여섯
마리 고양이들을 통해 친구
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오렐리아 띠에리와 빅토리아 채플린의 마임극 속삭이는 벽

10월 24일-25일 수-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 · 발코니 3만원&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전설적인 배우 찰리 채플린
의 딸인 빅토리아 채플린이
연출하고 그녀의 딸인 오렐
리아 띠에리가 주연을 맡은
마임극 '속삭이는 벽'.
비밀스러운 '속삭임들'과
함께 하나둘 사라져가는 마
법같은 작은 골목길을 홀로
여행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서커스와 마임, 마술이 결
합된 환상적인 무대에서 펼쳐진다.

을숙도연극열전 극단 액터스 '내가 까마귀였을 때'

10월 24일-26일 수-금요일 오후 8:00,
27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 5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다섯 살 때 미아가 되어 소년원을 전전하다 13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부모, 형제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펼쳐지는 한 가족의 고통과 희망을 그린 창작극 '내가 까마귀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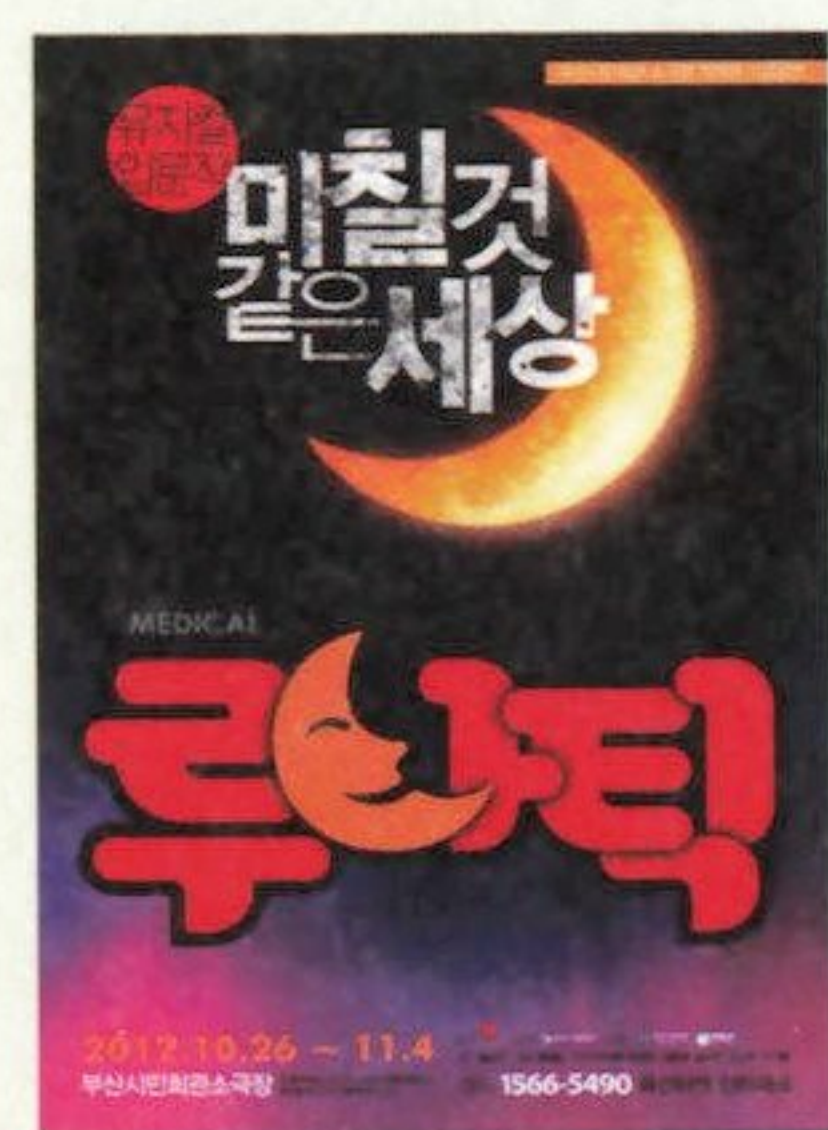
· 작/고연옥 · 연출/손병태
· 출연/호민, 구민주, 박승규, 박지현, 김부성 외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재개관 기념공연 뮤지컬 '루나틱' 부산공연

10월 26일(금)-11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수, 금요일 오후 3:00 공연 추가,
10/26일은 오후 8:00 1회 공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4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2005년 초연 이후 80만 관객이 관람한 창작뮤지컬의 신화 '루나틱'은 정신병원의 의사인 굿 닥터와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요소를 풀어가는 심리치료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유열의 가족뮤지컬 '브레멘음악대'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2:00, 5:00,
28일 일요일 오후 1:00, 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1층 4만원 · 2층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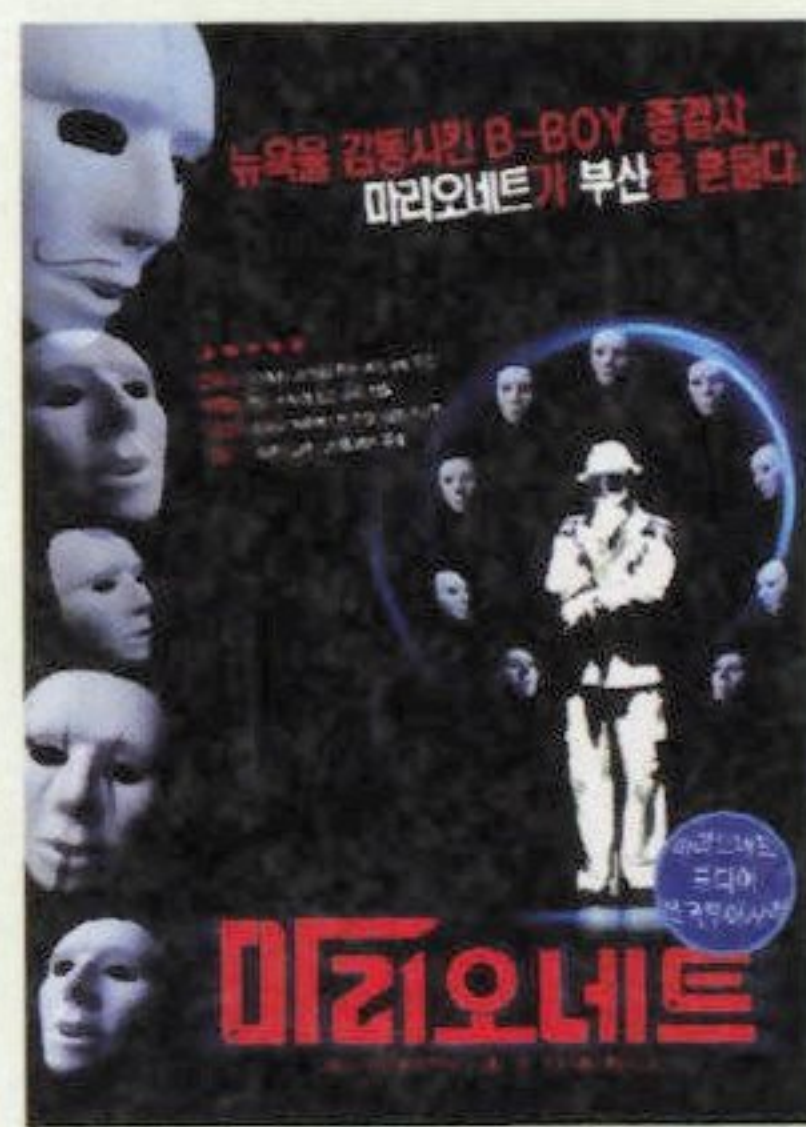
제각각 개성과 꿈을 지닌 네 마리 동물이 꿈을 찾아 떠나는 좌충우돌 모험담을 그린 가족 뮤지컬.

· 작/김승주 · 연출/이성원

마리오네트 뮤지컬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8일 일요일 오후 2:00, 5: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VIP석 6만 6천원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4천원

문의 | 편편한 사람들(070-8888-5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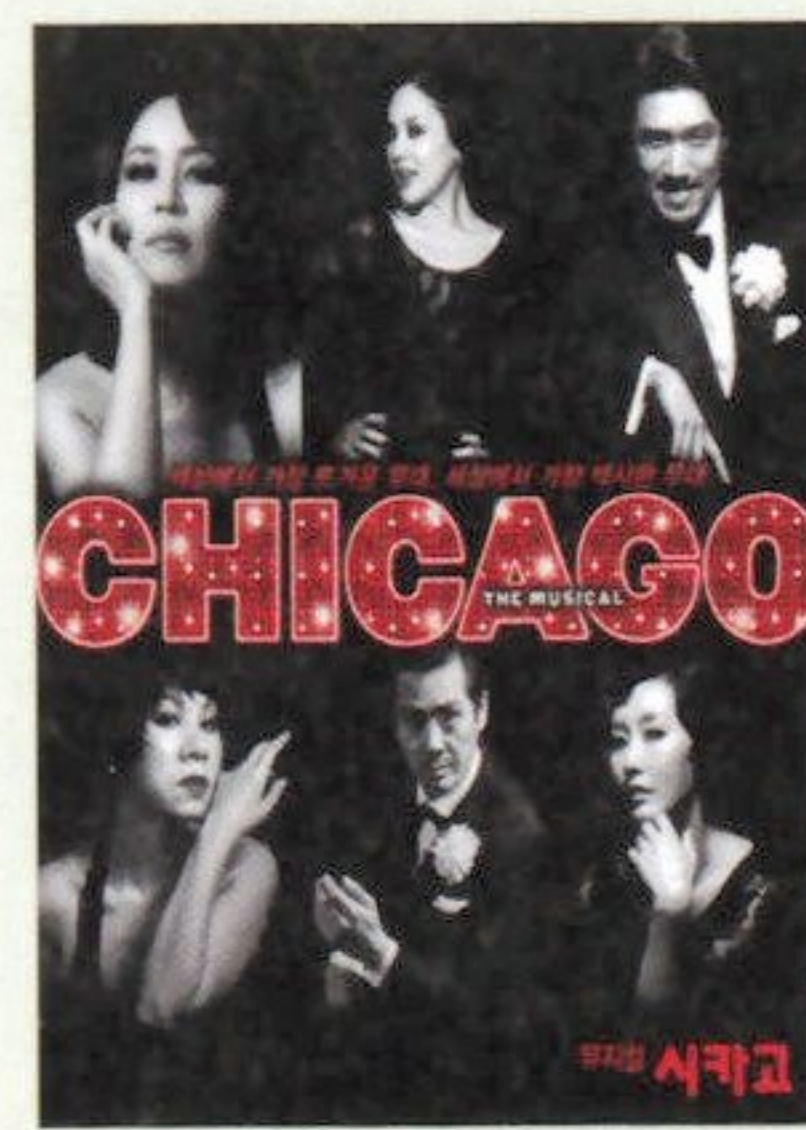
비보이와 인형극이 만나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익스프레션'의 손짓과 몸짓에 의해 탄생된 비보이 뮤지컬. 마리오네트 인형들의 아름다운 순애보가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인 춤과 몽환적인 음악속에 펼쳐진다.

뮤지컬 '시카고' 부산

11월 2일(금)-1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입장료 | VIP 13만원 · R석 11만원
S석 9만원 · A석 6만원

문의 | 예술기획 성우(1599-1980)



1920년대 시카고를 배경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됐지만 인기와 명성을 놓지 못하는 두 여죄수 벨마 켈리와 록시 하트의 이야기가 매혹적인 재즈선율과 관능적인 안무 속에 펼쳐지는 뮤지컬 '시카고' 부산공연.

뮤지컬 '헤드윅' 부산공연

11월 3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일 일요일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 S석 5만 5천원
문의 | 편애플레이엔터테인먼트(1566-2892)

파격적이고 스타일리쉬한 비주얼과 심장을 멎게 하는 강렬한 퍼포먼스, 역동적인 락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지컬 '헤드윅' 부산공연.

배우 오만석과 박건형이 주인공 역을 맡아 저마다 다른 색깔의 헤드윅을 보여준다.

Dance

을숙도문화회관 '수요일은 춤'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 마련하는 신진무용가들의 새로운 도전무대 '수요일은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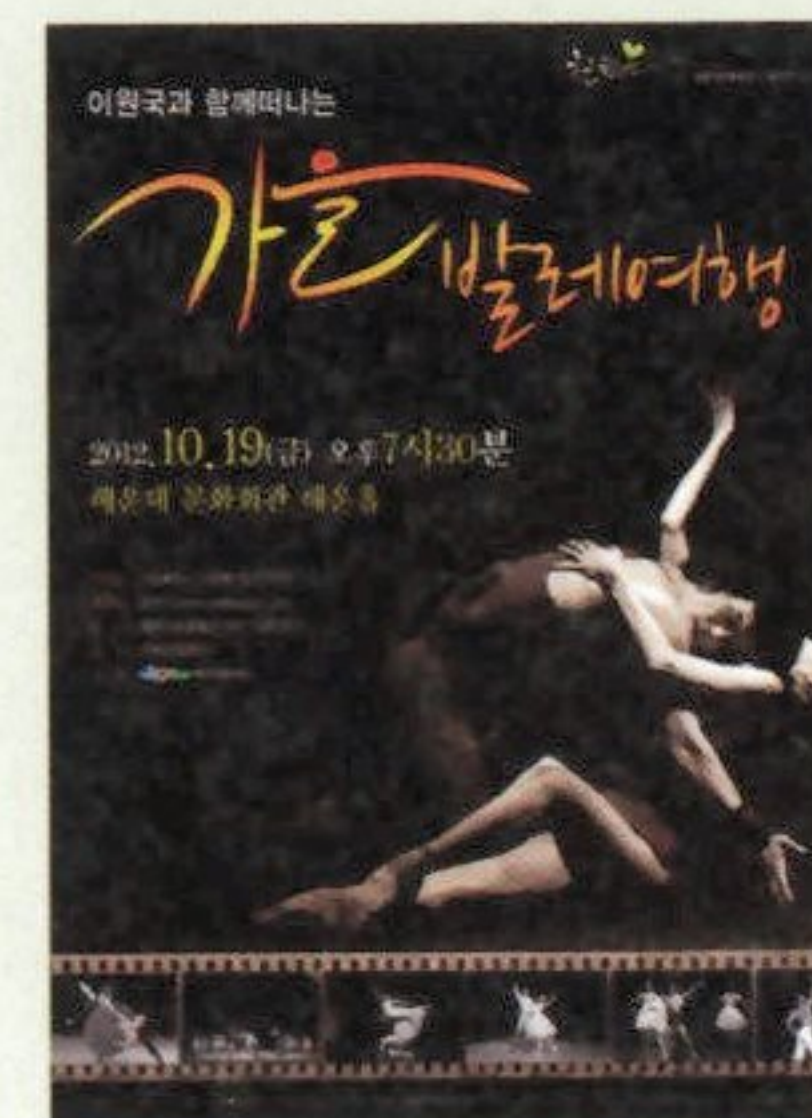
경성대학교 한은주 교수의 제자들이 꾸미는 다양한 창작무대가 펼쳐진다.

이원국과 함께 떠나는 가을 발레여행

10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한국 남성발레의 교과서'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전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지낸 발레리노 이원국이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2004년 창단한 이원국발레단이 선보이는 발레의 향연.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 파드되, 돈키호테, 카르멘, 스페니시 집시 춤, 로맨스, 탈리스만

장선희무용단 춤터 '만추(晩秋)'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장선희(010-9033-2959)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진홍전통춤연구회 회원으로 우리춤 전승에 힘써오고 있는 춤꾼 장선희가 이끄는 장선희무용단 춤터의 전통춤 판 '만추(晩秋)'.

소고춤, 동래교방입춤, 지전춤, 검무 등을 선보인다.

· 특별출연/김진홍, 부산거문고악회, 이바디예술단, 정주아

Concert

가수 김범용, 문희옥 초청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3주년 기념 콘서트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7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재즈 와인에 빠지다 42nd concert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3만 5천원 · 2층 2만 5천원
문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신촌블루스 보컬로도 활동했던 감성블루스 디바 강허달림의 블루스 무대로 마련되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색소포니스트 방준모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10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주)다소니뮤직소사이어티(326-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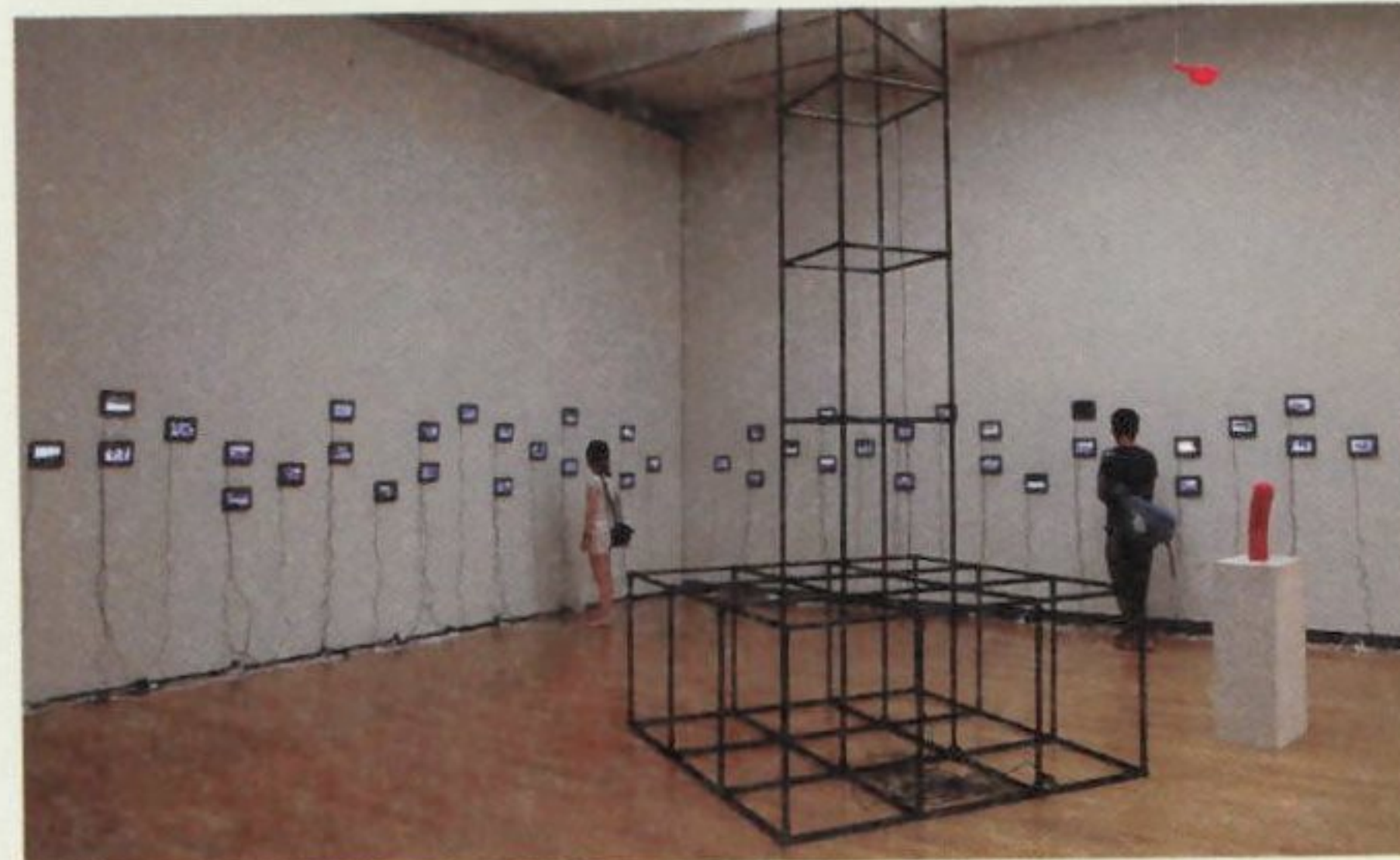
색소폰 필하모니 실용학원 원장이자 그룹사운드 빅브라더스, MBC노래자랑 악단, 부곡하와이 최명철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색소포니스트 방준모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Event

2012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10월 2일(화)-18일(목)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용두산미술전시관, 또따또가갤러리, 40계단 주변
문의 |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469-1978, www.ttg.kr,
www.facebook.com/watagataart)

지난 2010년 부산-후쿠오카 두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행정가를 중심으로 발족된 후 서로의 도시를 오가며 문화를 교류하는 2012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향만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을 메인 행사장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3개국



60여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전시 및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 공연팀/퓨전국악밴드 아비오, 우창수밴드, 남산놀이마당(한국), n마츠포스, 레인보우 오카야마(일본)

2012 가을독서문화축제 - 시민의 서재

10월 12일(금)-14일(일)
용두산공원 및 40계단 테마거리
문의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469-1978, www.ttg.kr)

단순히 '책만 읽는' 독서를 넘어 독서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2012 가을독서문화축제.

김용택 시인 초청으로 열리는 개막행사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작가와의 만남, '근대 부산을 읽다'展, 연극배우 김근아 낭독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목요 인문학 콘서트 '끌림'

오광록의 시를 읽어주는 남자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개성있는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이자 시인인 오광록과 함께하는 목요 인문학 콘서트.

Gallery

대안문화공간 자인, 나무아트갤러리 공동기획
화명동 화가들의 이야기展

9월 18일(화)-10월 6일(토)
갤러리 자인, 나무아트갤러리
문의 | 대안문화공간 자인(011-9506-7231)
나무아트갤러리(010-2843-5339)

오형근 '中間人(중간인)'

9월 23일(일)-11월 2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부산미술대전 이동전시

10월 2일(화)-10월 8일(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The Art in your Room展

강임윤, 이기일

10월 4일(목)-10월 23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길동인展

10월 8일(월)-10월 14일(일)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여성현대작가회 정기전

10월 9일(화)-10월 16일(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손몽주 설치전

10월 14일(금)-11월 6일(화)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김영미 개인전 '기억에 매달린 가방'展

10월 15일(월)-11월 3일(토) 갤러리 움
문의 | 갤러리 움(557-3369)

다정다감 - 김외칠, 박운화, 설종보, 윤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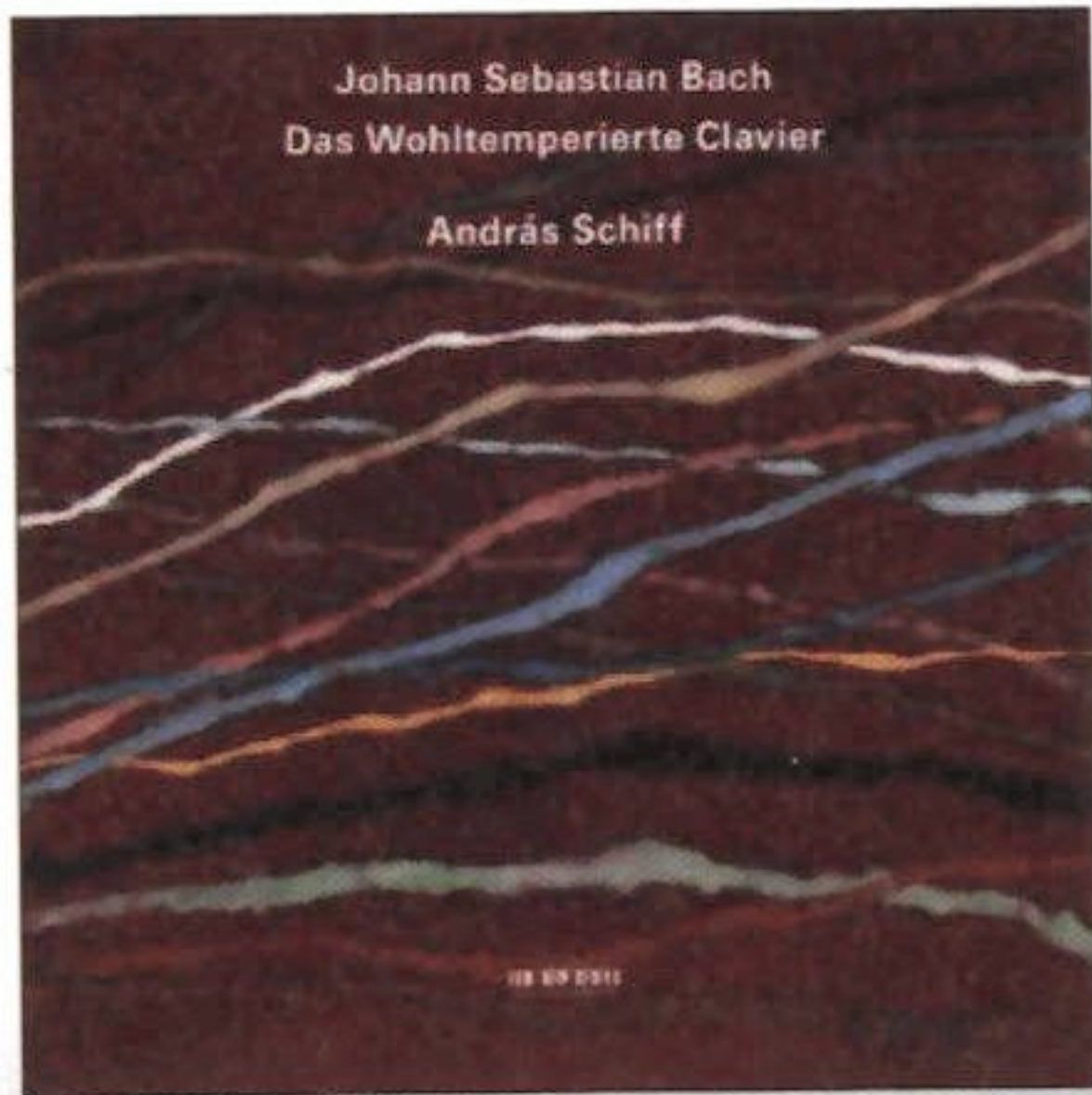
10월 23일(화)-11월 25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 갤러리 예가(624-0933)



박운화 작
'실뜨기'

부산-미국-중국 국제교류 사진전

10월 25일(목)-10월 30일(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의 | BS부산은행 갤러리(246-8975)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 2권 전곡

연주 : 안드라스 쉬프(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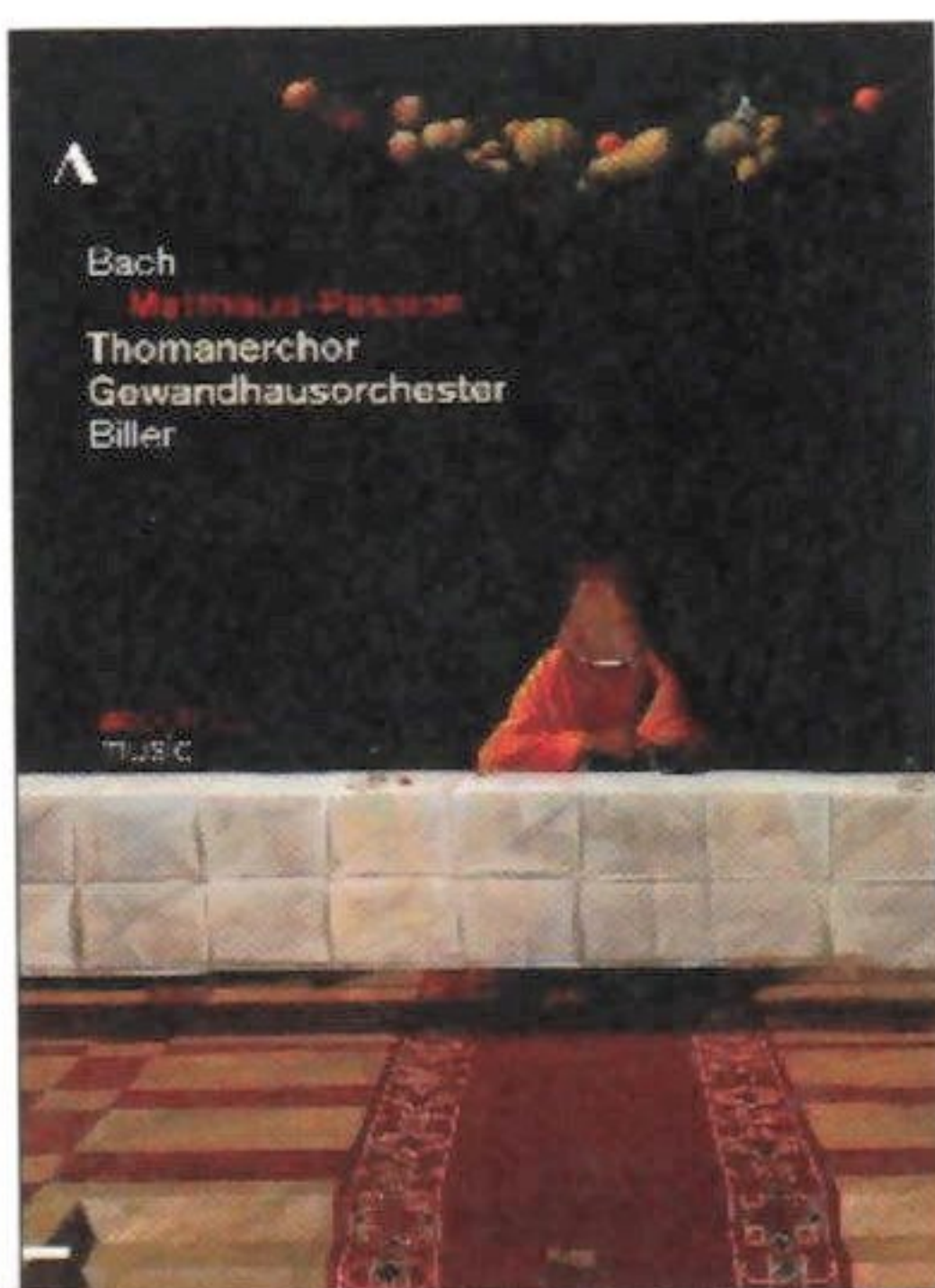
1980년대 이미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청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전곡을 녹음했던 안드라스 쉬프. 당시의 녹음은 지금까지 불멸의 명연으로 특히 피아니스트들에게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 왔다. 그가 다시 한번 이 바흐의 거봉을 정복하였다. 실험녹음으로 발매했던 ECM의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파르티타와는 다르게 루가노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으며, ECM의 자연스러운 녹음에 담겨 더욱 부드러운 색채, 더욱 감각적 리듬감으로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레이첼 포저-내가 사랑하는 음악

연주 : 레이첼 포저(바이올린)

두 차례의 내한 공연으로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크 바이올린의 명인 레이첼 포저가 직접 고른 베스트 트랙을 모은 음반이다. 이제까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집약된 멋진 음반으로,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를 필두로 절정반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집과 비발디의 '라 스트라바간차', 트레버 피노크와 함께 했던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라모의 콩세르 등 바로크에서 고전파에 이르는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진수가 담겨 있다. 담백하고 따뜻하면서도 그 어떤 연주자보다도 거트 현을 맨 바로크 바이올린의 섬세한 뉘앙스와 다양한 음색을 잘 살리는 레이첼 포저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컴필레이션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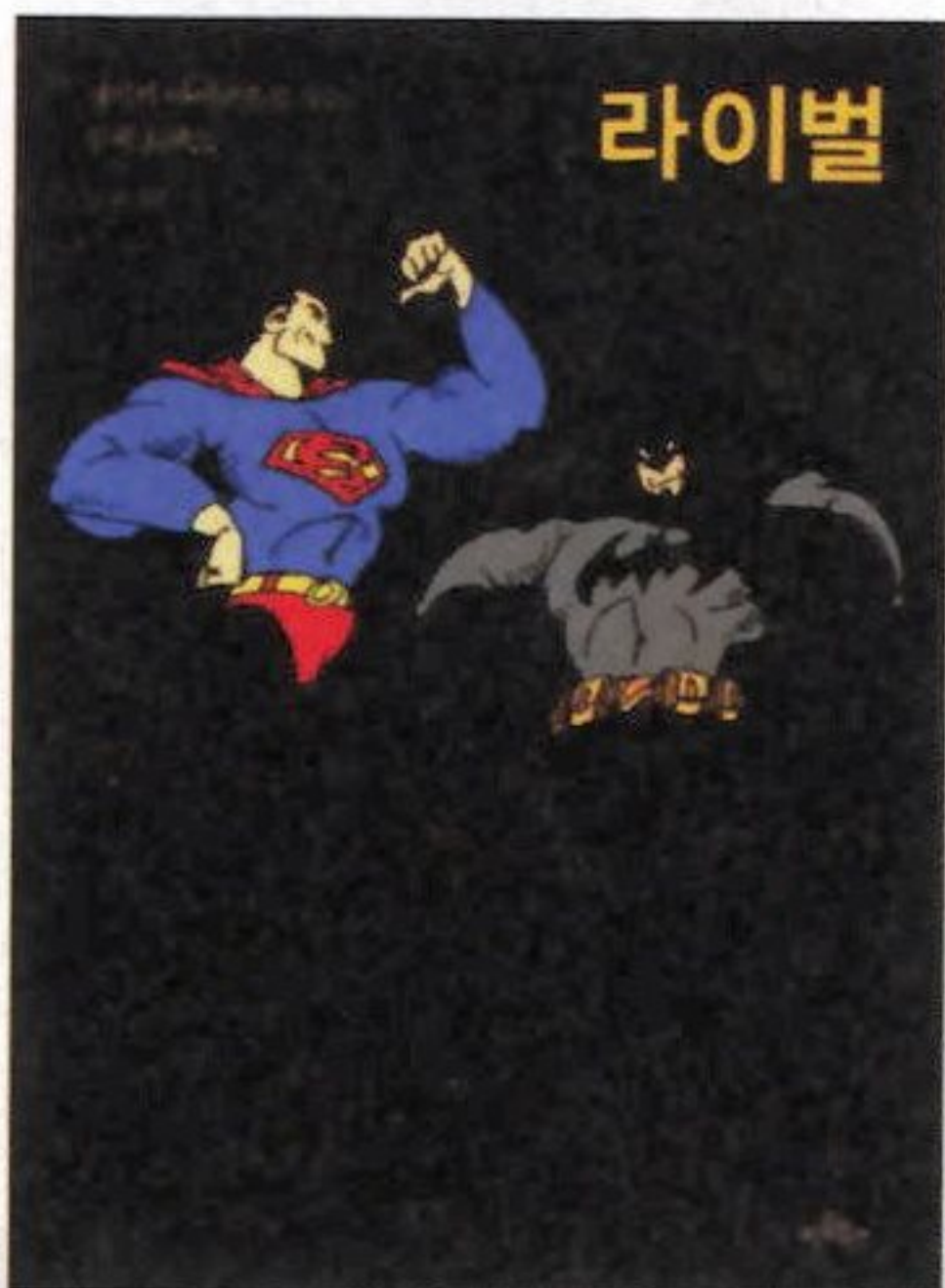


JS 바흐 마태수난곡 BWV244

볼프람 라트케(복음사가)/ 클라우스 메르텐스(예수)/ 크리스티나 란드샤머(소프라노)/ 슈테판 카홀(알토)/ 마르틴 라트케(테너)/ 고틀트 슈바르츠(베이스)/ 성 토마스 합창단/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빌러(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65년의 일생 중에서 27년을 라이프치히 한 도시에서 보냈다. 쿠나우의 후임으로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에 취임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성 토마스 교회는 지금까지도 바흐 애호가들의 중요한 성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 영상물은 성 토마스 교회의 건립 8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펼쳐졌던 마태수난곡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바흐 이후 16번째의 후임자로서 1992년부터 이 교회의 칸토르를 맡고 있는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빌러가 지휘봉을 잡았고, 성 토마스 교회 합창단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일급 솔리스트들이 참여해 이 교회를 통해 전수되어온 바흐 종교음악의 위대한 전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명품 레이블로 많은 애호가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Accentus의 뛰어난 화면과 음향, 그리고 본사에서 직접 첨부한 한글자막을 통해서 이 위대한 걸작의 감동을 보다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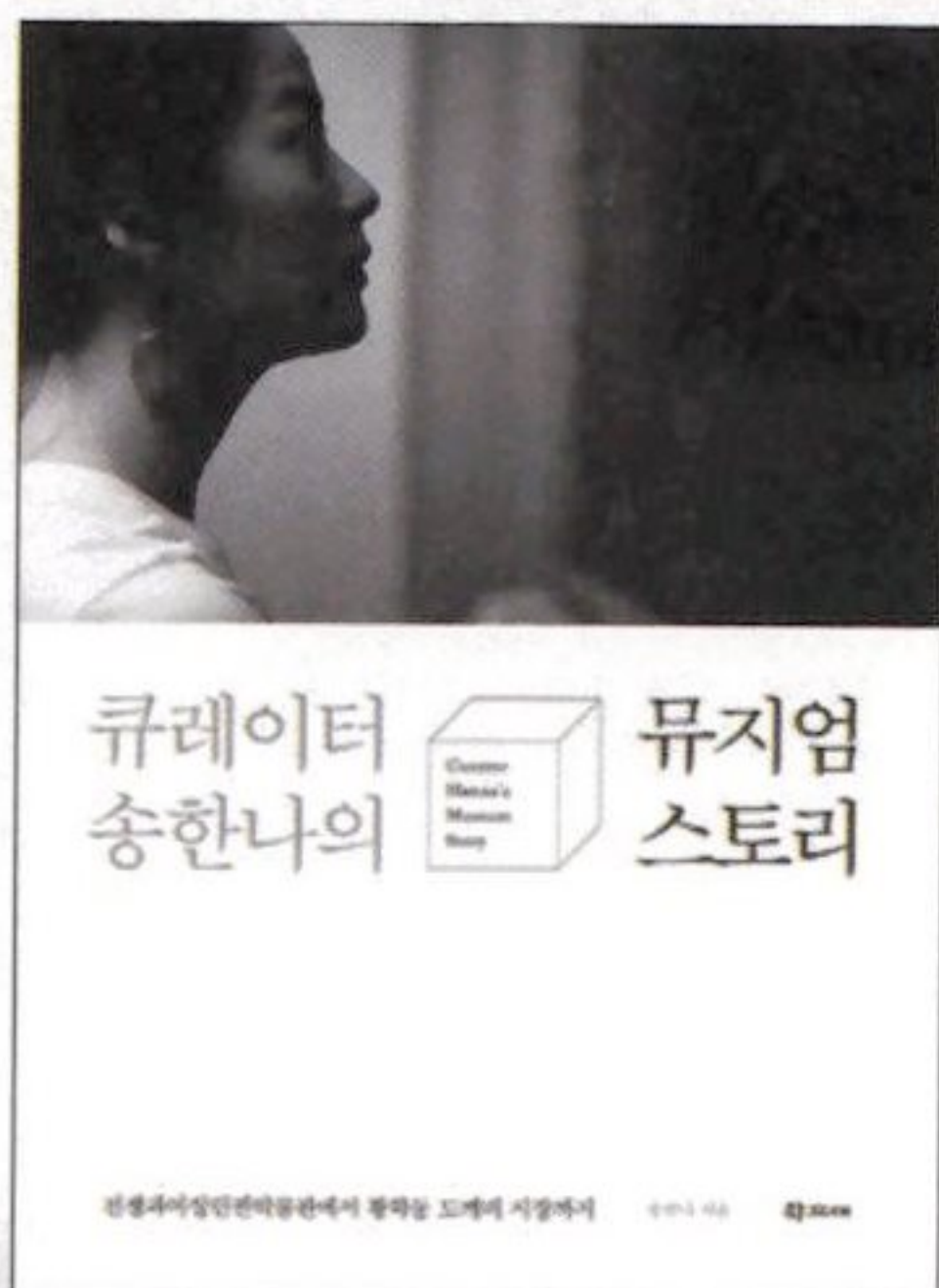




라이벌

김재훈 지음 / 아트북스 / 319p / 1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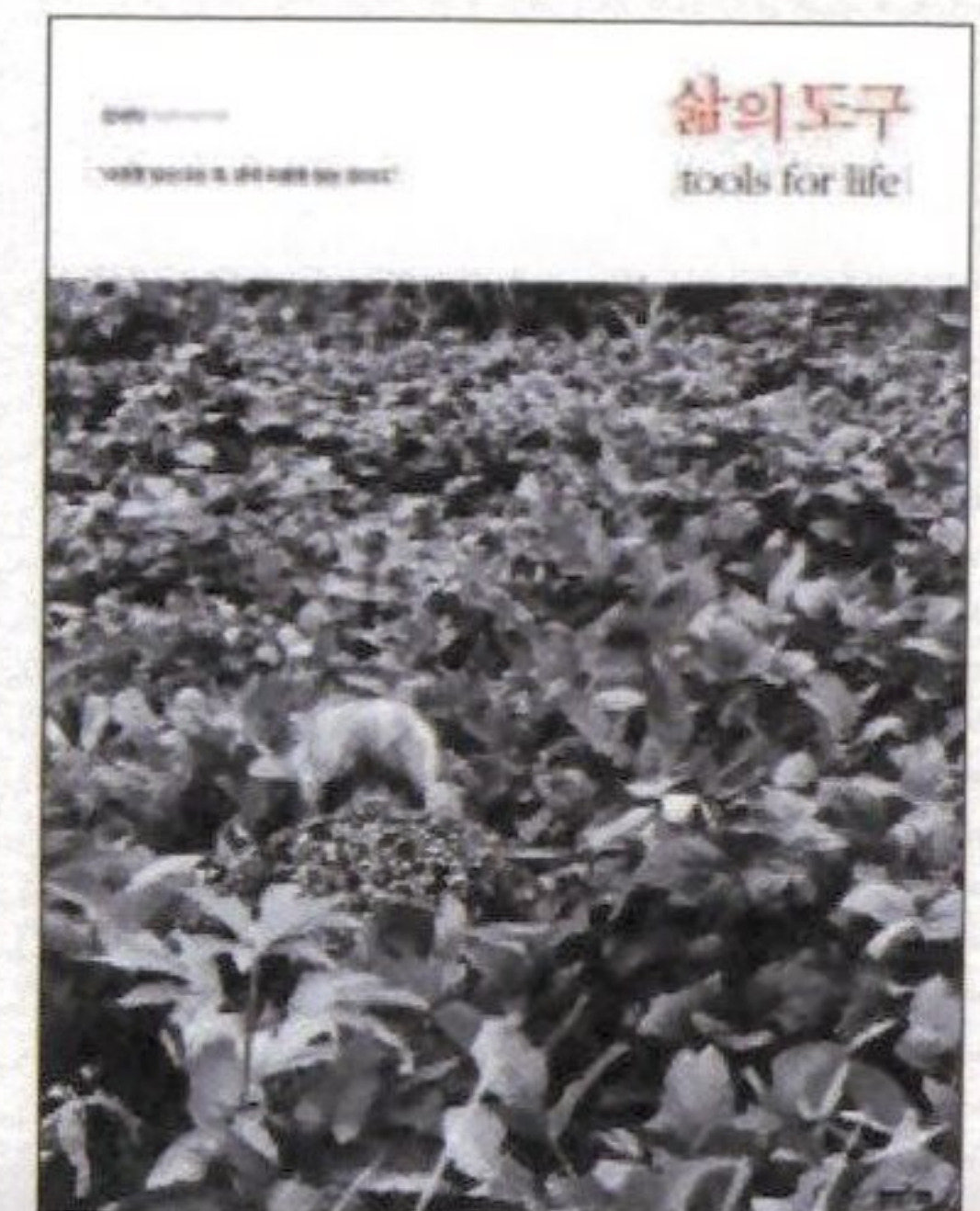
20세기 공인 요정 '오드리 헵번'과 대중의 아프로디테 '메릴린 먼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와 팝 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 한글 활자 디자인의 바탕을 다진 '최정호'와 한글 창제 원리에 입각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글 서체를 제안한 '안상수', 스포츠 브랜드의 양대 산맥인 '아디다스'와 '나이키', 페이스북과 트위터, 한국 잡지의 전설 '샘터'와 '뿌리 깊은 나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며 세간의 신뢰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독보적 존재들이다. 그리고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다. 만화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인 김재훈이 세기의 아이콘을 통해 문화 현상을 짚어보았다. 저자는 가상의 인물도 여기에 끼워 넣었다. 책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두 캐릭터 영웅 '슈퍼맨'과 '배트맨', 영국문학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와 프랑스문학의 주인공 '아르센 뒤펡'도 라이벌이다. 이들을 다룬 이 책은 라이벌이 경쟁 상대인 동시에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세계문화사를 조망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아이콘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대상을 경쾌하게 그려낸 저자의 카툰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큐레이터 송한나의 뮤지엄 스토리

송한나 지음 / 학교재 / 224p / 1만4천원

뮤지엄 큐레이터 송한나 씨가 들려주는 박물관 이야기. 뮤지엄 큐레이터는 학예사라고도 불리는데, 예술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전시를 기획하는 미술관 큐레이터와 구분된다. 역사, 과학 등 여러 분야의 박물관이 다루는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고 이를 전시로 옮기는 일을 한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박물관을 좋아했고, 박물관에서 일하는 뮤지엄 큐레이터를 꿈꾸었다. 현재는 뮤지엄 큐레이터연구소를 운영하며 독립 큐레이터로 전시기획 및 자문 일을 하며, 대학에서 강의도 한다. 이 책에서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황학동 도깨비 시장까지, 저자가 실제로 보았던 박물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공공미술작품이 놓인 거리도, 북적이는 시장도 소중한 삶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재미있게 전해준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쇼아 기념관, 밀라이 학살 박물관 등 기억의 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역사의 박물관. 도심에서 만나는 공공미술, 동네 갤러리 이야기 등 삶 속의 박물관. 셜록 홈즈 박물관, 수도박물관 등의 작은 박물관. 박물관에 얽힌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박물관이 유물 전시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임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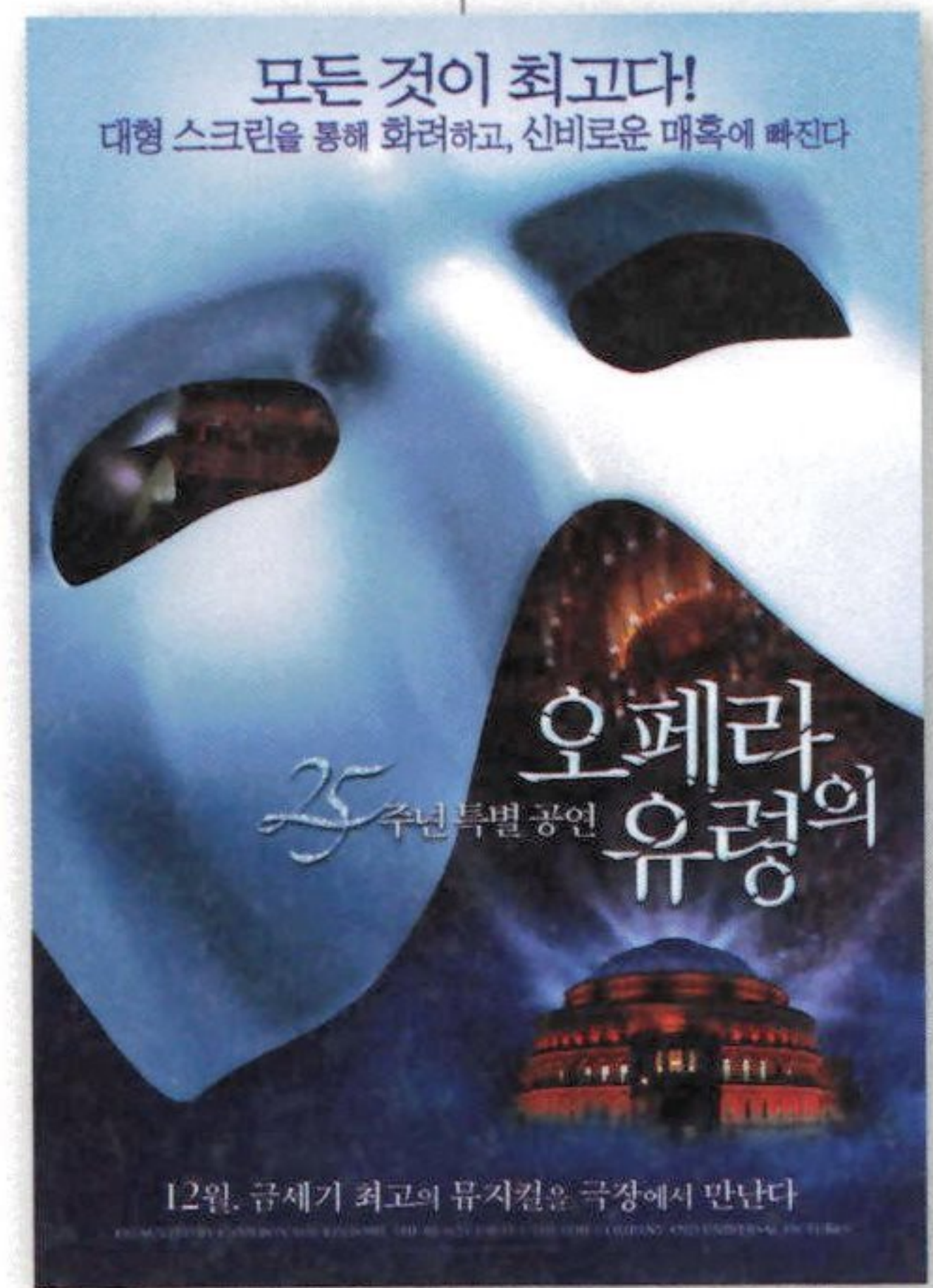


삶의 도구

신미식 지음 / 프리스마 / 208p / 1만8천원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신미식 작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세이집을 펴냈다. 작가는 13남매를 낳으신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돌아가셔서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어머니의 거친 손과 발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작가는 가평, 의성, 철원, 강화, 무의도, 경산, 나주, 고성, 남양주, 문경 등지에서 흑백사진을 찍었다. 그 많은 땅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닮은 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 신미식의 이번 작업은 자신의 몸을 '삶의 도구'로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을 향한 애정과 존경의 표현이다. 흑백사진 속 노인의 모습은 신미식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다. 주름진 피부와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굵은 등, 거칠 대로 거칠어진 손과 발은 늙음의 형상이 아니다. 그 안에는 그분들이 지나온 인고의 세월과 자식을 위한 희생이 숨겨져 있다. 신미식은 그 세월과 희생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찍었다. 그래서 팽팽한 젊음보다 아름답고 애뜻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 등장하는 추억의 사진첩이다.





스타일의 혁신 : 닛카츠 창립 100주년 '스즈키 세이준 회고전'

10월 16일(화)~11월 21일(수)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제작사인 닛카츠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닛카츠 영화사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회고전이 펼쳐진다. 10월 16일부터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상영관에서는 일본의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을 비롯해 일본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미조구치 겐지, 이치카와 곤, 구레하라 고레요시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화끈한 영화를 만든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일본 활동사진 주식회사日本活動写真株式会社'의 약칭인 닛카츠(日活)는 일본영화의 여명기였던 지난 1912년 창립됐다. 시대마다 다양한 성격의 영화들로 '스타일의 혁신'을 이뤄낸 영화사로 신파 영화에서부터 리얼리즘이나 문학성을 살린 현대극, 전후 액션 영화, 청춘영화, 그리고 1970년대의 '닛카츠 로망 포르노' 등 시대와 영화 산업의 변모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다. 특히 닛카츠의 대표 감독이었던 스즈키 세이준의 작품세계를 되돌아보는 '스즈키 세이준 회고전'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초기 작품들을 포함해 그의 대표작 29편이 상영된다.

가을, 음악영화를 만나다 이탈리아 횡단밴드, 서칭 포 슈가맨

10월중 부산국도예술관

선선해진 가을 우리의 감성을 채워 줄 2편의 음악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국도예술관에서는 10월 음악과 캠핑으로 남유럽을 매료시킨 로드 음악무비 '이탈리아 횡단밴드'와 팝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가수 슈가맨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서칭 포 슈가맨'을 상영한다. 남유럽에서 흥행돌풍을 일으킨 '이탈리아 횡단밴드'는 감독 겸 배우인 로코 파팔레오가 자신이 타고 자란 이탈리아의 남부지방 바실리카타를 배경으로, 오랜 친구들과의 9박 10일간의 여행을 다룬 음악&캠핑무비이다. 전 이탈리아를 음악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다비드 디 도나텔로 어워드에서 신인감독상, 음악상, 주제가상 등 3관왕을 휩쓸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부문에 상영돼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서칭 포 슈가맨'은 1970년대 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단 두 장의 앨범만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져버린 록 스타 슈가맨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감동과 기적의 음악영화이다. 스토리 뿐 아니라 매력적인 사운드트랙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이 작품은 2012년 올해 선댄스영화제 월드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관객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8월 개최된 제천영화제에서 '꼭 봐야 할 작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세기의 공연들, 스크린을 만나다 오페라의 유령, 오페라의 유령 2 : 러브 네버 다이

10월 16일(화)~11월 14일(수) 영화의전당 중극장

영화의전당에서 지난 8월부터 상영하고 있는 '세기의 공연들, 스크린을 만나다'는 뮤지컬, 무용, 음악 등의 공연들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오리지널 공연의 현장감을 그대로 살린 영상들을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0월 관객과 만나는 작품은 뮤지컬계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흥족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음악가 팬텀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로, 1986년 영국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세계 최장기 공연, 최고 매출, 최다 관객 등 모든 기록을 석권한 최고의 뮤지컬이다. 영국 로얄 알버트홀에서 열린 25주년 특별공연을 스크린에 옮긴 '오페라의 유령'과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제작부터 음악감독, 각본까지 참여해 24년만에 선보인 '오페라의 유령 2 : 러브 네버 다이' 두편을 상영한다. 주인공인 팬텀, 크리스틴, 라울의 10년 후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의 유령 2 : 러브 네버 다이'는 영국, 호주에 이어 국내에 첫 상륙 예정으로, 초연 당시 최고의 찬사를 이끌어내며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아! 가을

하늘 향해 손 쪽 뻗어
 집게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더니
 가을맛 나더이다

조영석 필하모니 대표

눈부신
 배롱꽃 한 다발
 거센 바람결에도
 발그레 웃음 짓고

뒤숭숭한 마음
 솜털구름 따라
 흩어지니
 가을이더이다.

필하모니 카페에 올라와 있는 '가을 마중'이라는 시 한 편을 옮겨 본다. 푸른 하늘과 솜털 구름, 대지 위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믿기지 않은 듯, 손가락으로 하늘을 짚어 가을을 맛보려는 작가의 마음이 요란스럽지도 않게 다가온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을은 어느새 이렇게 우리곁에 와 있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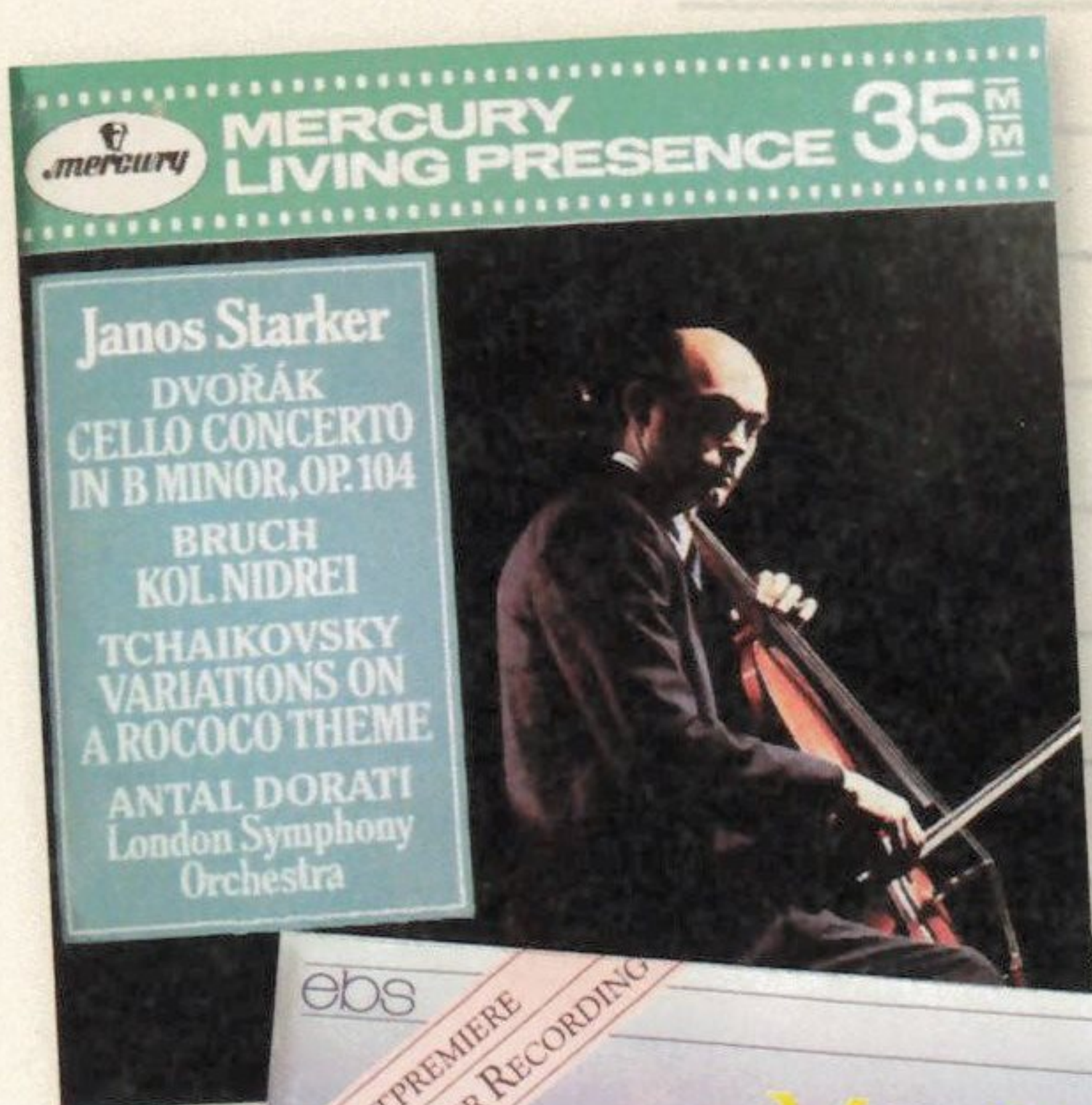
며칠 전 오랜만에 시골을 다녀왔다.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절초와 쑥부쟁이, 그리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는 들판에는 가을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이럴 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구절을 떠올릴 것이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한폭의 수채화로 남기고 싶어할 것이다. 또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귓전을 스치는 가을 바람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옷깃을 스치는 가을 바람이 때로는 경건함과 숙연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여름 한 철 분망했던 우리 삶을 조용히 가라앉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럴 때는 음악을 좋아하는 필자에게는 브루흐(Max Bruch)가 작곡한 '콜 니드라이(Kol Nidrei)'라는 첼로곡이 마음에 와 닿기도 한다.

'콜 니드라이(Kol Nidrei)'는 히브리어로 '신의 날'이라는 뜻으로, 유대 교회에서 속죄의 날에 부르는 찬송가이다. 19세기 후반에 활약한 독일 작곡가 브루흐는 고대 히브리의 전통적인 성가 'Kol Nidrei'의 선율을 인용해 첼로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곡으로 변주시켜 아름다운 환상곡으로 탄생시켰다. 브루흐는 이 곡 때문인지 유대계 독일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종교적인 경건함과 동양적인 애수가 첼로의 묵직한 선율에 실려 뿜어져 나올 때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필자는 처음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Janos Starker)의 연주에 심취했지만 요즘에는 독일 출신의 첼리스트 율리우스 베르거(Julius Berger)의 독주와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이 협연하는 음반을 즐겨 듣는다. 전자는 필자가 처음으로 듣고 감동을 느꼈던 음반이고 후자는 최근 첼로의 거칠고 묵직한 소리에 끌려 즐겨 듣는 음반이다.



KOL NIDREI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 정기회원 단체가입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자모회(회장/도진아) 회원들이 자모회 내 공연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학교 생활과 함께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든든한 후원자로 단원들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는 이번 정기회원 가입과 함께 자녀들의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위해 공연 관람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청중 맞춤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10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10월에는 사상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 3월 개관한 사상구 다누림센터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사상문화원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화명생태공원, 경남여중, 부산시청 로비, UN기념공원에서 내사랑 부산공연,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이 펼쳐진다.



10/4(목)	19:30	사상구 다누림센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사상문화원 초청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10/4(목)	19:30	화명생태공원	내사랑 부산공연	'낙동강 1300리 나루 대축제' (출연/교향악단, 합창단)
10/8(월)	14:30	경남여중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경남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출연/무용단)
10/10(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교향악단)
10/24(수)	10:00	UN기념공원	내 사랑 부산공연	'UN의 날 기념행사' (출연/소년소녀합창단)
10/24(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출연/무용단)

NEWS

2012년 하반기 부산시립예술단 신규단원 모집

■ 모집부문 · 인원 · 전형과목

| 교향악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수석단원 (2명)	제2바이올린 수석 1 첼로 수석 1 • 자유곡 : 자유 협주곡 또는 소나타 중 제1악장 • 지정곡 - 오케스트라 엑셉트 : 원서접수시 배부(공동) - Vn. 모차르트 협주곡 제3, 4, 5번 중 택1 제1악장(제2바이올린 수석) - Vc. 하이든 협주곡 D장조 제1악장(첼로 수석) ※ 반주자 대동
단원 (2명)	비올라 1 타악기 1 • 자유곡 : 자유 협주곡 중 제1악장 (타악기는 마림바 협주곡) • 지정곡 - 오케스트라 엑셉트 : 원서접수시 배부 ※ 반주자 없이 진행
악보담당 (1명)	악보담당 1 • 관련 전문 능력(사보, 조옮김, 외국어 등)

※ 전 부문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방법

- 1차 시험 : 실기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재(남자의 경우)
-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극단 : 학력 상관없이 해당 실력을 갖춘 자

■ 제출서류

- 공 통 : 응시원서(소정양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최종학력증명서(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본 포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교향악단 : 자기소개서(악보담당에 한함) 1부
- 국악관현악단 : 연주악보 6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홍보담당에 한함) A4용지 6매 이내 제출

| 국악관현악단 |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단원 (3명)	대금(소금 포함) 1 해금 1, 거문고 1 • 지정곡, 창작곡 : 세부 붙임 참조 • 연주복 착용 ※ 반드시 암보 연주, 연주 악보(6부) 원서접수시 제출
홍보담당 (1명)	홍보담당 1 • 주제 제시에 의한 계획서 작성(60분) ※ 개인 PC지참(노트북)

| 극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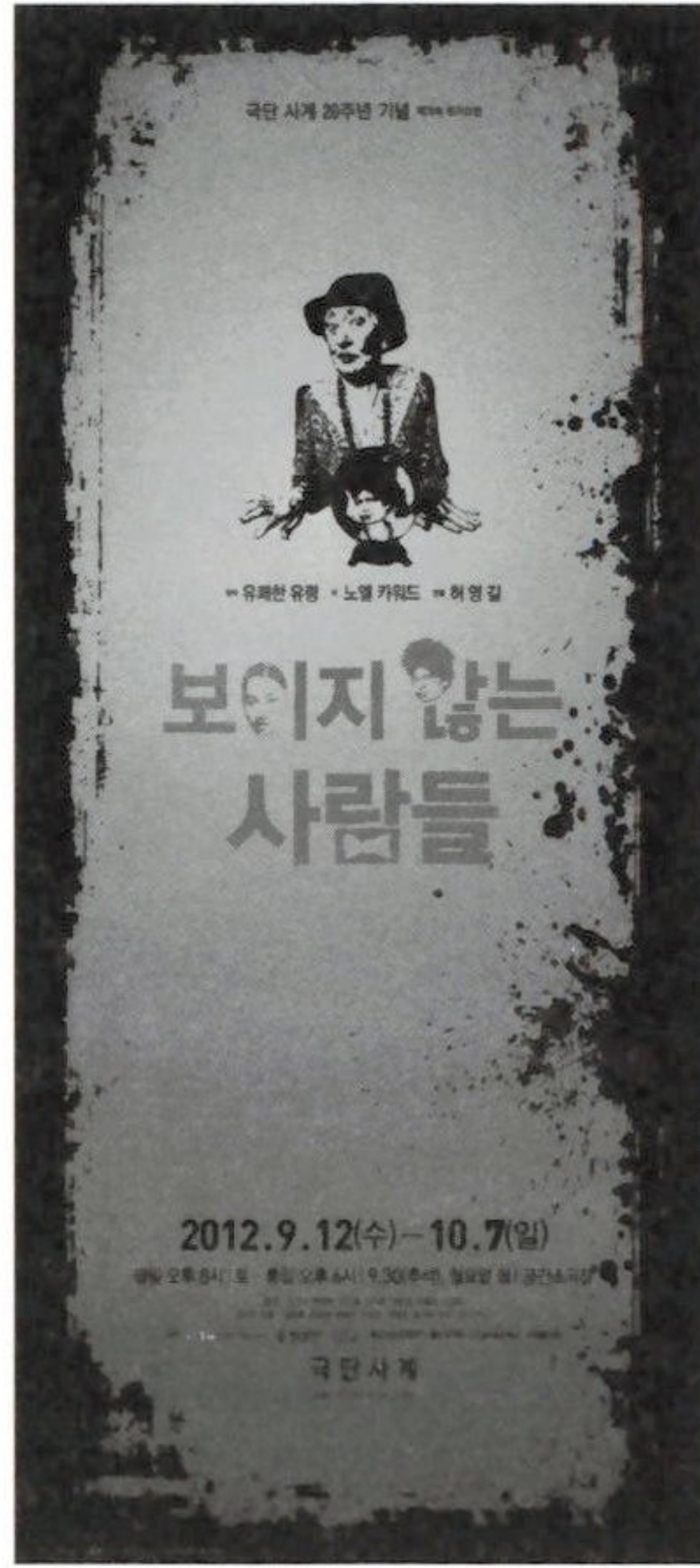
모집부문	실기전형 과목
단원 (3명)	배우(3) • 지정연기(당일제시) • 자유연기 • 노래, 특기 ※ 자유연기 및 특기에 필요한 소품이나 반주용 CD는 본인 준비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교향 : 2012. 11. 7(수) ~ 11. 16(금) 17:00까지
 - 국악 : 2012. 10. 4(목) ~ 10. 15(월) 17:00까지
 - 극단 : 2012. 10. 30(화) ~ 11. 8(목) 17:00까지
- 접수안내
 - 공휴일 · 토 · 일요일은 제외, 지정곡 악보(교향)는 원서접수 후 배부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교향악단 경우 우편접수자는 지정곡 악보 반송용 봉투(우편첨부) 동봉시 지정곡 악보 우송 가능
 - 국악관현악단 우편접수자는 연주악보 6부 동봉 제출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6 (608-811)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 문의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 공고란 참조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6
-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607-3115, 국악단 607-3121, 극단 607-3152)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카르멘'

낮시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에게 웰빙콘서트는 최고의 선물이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오페라를 쉽고 재밌게 만날 수 있는 웰빙콘서트 덕에 나도 오페라의 세계로 한발 들여놓았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상 때문에 초연당시 외면당했던 오페라 '카르멘'을 통해 나의 무뎠던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고나 할까. 아직도 아리아가 귓전에 맴돈다. 이미옥(사하구 하단동)

2012 부산국제마루음악제 개막연주회

그동안 몇차례 부산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기회가 닿지않아 만날 수 없었던 피아니스트 피터 야블론스키. 부산국제마루음악제 개막연주회에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일찍감치 표를 예매하고 기다렸다. 잘 생긴 얼굴만큼이나 멋진 연주 솜씨를 보여줬던 야블론스키. 내년 부산국제마루음악제에는 또 어느 연주자가 올까 벌써부터 기대된다. 박영선(해운대구 좌동)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공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죽었던 전 부인이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 그것도 재혼한 부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남편 앞에... 남편 눈에만 보이는 유령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면서 사이좋은 부부에게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결혼생활의 위선을 코믹하게 풀어낸 작품에 웃음을 터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끔하다. 정미정(금정구 남산동)

하늘아래 그 콘서트 '유익종의 음악여행'

빠른 멜로디에 종잡을 수 없는 가사, 노래보다는 춤이 화제가 되는 요즘 인기곡들을 듣고 있노라면 예전 즐겨들었던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진다. 해바라기 멤버였던 유익종 씨가 오랜만에 소극장 무대를 갖는다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다. 감미로우면서도 더욱 깊어진 그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옛 추억에 한껏 젖었다. 손정희(남구 대연동)

다큐멘터리 '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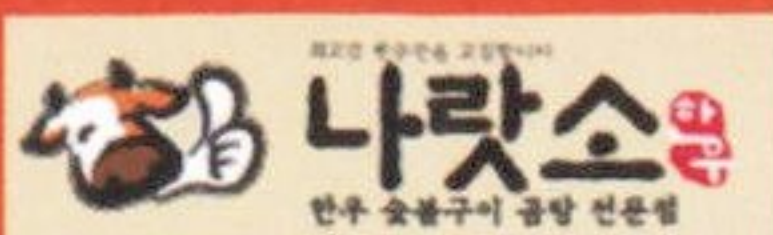
물방울도 춤추게 한다는 천재 무용가 피나 바우쉬. 무용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녀의 작품세계를 영화로 만나고 싶어서 영화의전당을 찾았다. 피나의 오랜 예술적 동지였던 영화감독 빔 벤더스가 만든 다큐멘터리 '피나'는 그녀의 주요 대표작 4편과 그녀가 생전 이끌었던 부퍼탈무용단 단원들의 인터뷰로 그녀의 작품세계를 꼼꼼히 살려냈다. 특히 근육의 미세한 떨림과 땀방울까지 잡아낸 3D영상에 마치 공연장에서 작품을 보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김정선(서구 아미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신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식사권(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지 / 난 / 호 / 정 / 답

부	산	비	엔	날	레	천	왕	봉
산			니	슬	기	둥		고
예		정	오	링		벌		
술	탄		모		갱	거	루	족
제		아	리	아		송		두
	한		꼬		밀	이	호	리
평	강		네	덜	란	드		과
행		분			쿤			음
이	주	흥			데	미	안	륙
론		신	데	렐	라	동	춘	

9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희주(금정구 남산동)
박근화(양산시 평산동)
서유리(동래구 낙민동)
성용호(해운대구 우2동)
최성숙(금정구 부곡4동)

나랏소 식사권 김성희(해운대구 반여동)
김재운(남구 용호동)
박미숙(연제구 거제동)
최은영(해운대구 중동)
한미재(동구 수정동)

조은극장 초대권 김미은(서구 아미동)
김태우(양산시 물금읍)
이서진(연제구 연산5동)
이유진(동구 좌천동)
최황신(사상구 감전동)

큰집 식사권 김정민(부산진구 범천동)
박성희(서구 동대신동)
이지영(서구 서대신동)
최은주(사하구 괴정동)
최현주(영도구 동삼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나랏소 | 051-628-8814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나랏소

부산은행 조은극장

큰 집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2년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영화제.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영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의 절기.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뒤통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 조선 제4대 왕(1397~1450).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며 측우기, 해시계 등 과학기구를 제작하게 했다. 밖으로는 6진(鎭)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쓰시마(對馬) 섬을 정벌하여 왜구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 고려청자의 발상지로, 매년 청자축제가 열리는 전남 남서해안에 군(郡).
-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사자와 비슷하나 머리에 뿔이 있다고 한다.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동부에 위치한 공화국. 수도는 소피아.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학자(B.C.551~B.C.479).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여 덕치정치를 강조하였다. 제자들이 엮은 '논어'에 그의 언행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머리글자를 각각 따서 만든 이름으로, 1944년 이 세 국가가 관세 동맹을 체결한 데서 유래하였다.
- 헝가리의 피아니스트, 작곡가(1811~1886). 피아노의 천재이자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베를리오즈를 계승하여 표제가 달린 교향시곡의 형식을 확립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헝가리 광시곡' '초절 기교 연습곡', 모음곡 '순례의 해' 등이 있다.
-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점심 전후로 간단하게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뉴욕 시의 자치구. 세계최고의 상업,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 브로드웨이, 금융가인 월스트리트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세계 무역센터, 그리니치빌리지, 할렘, 센트럴 파크, 국제연합(UN) 본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교육 기관들이 있다.
- 2012 베니스영화제에 진출한 김기덕 감독의 최신작.
- 마사지나 물의 열, 부력 따위로 온몸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피부를 관리하고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가게.
-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 고구려 때, 대보름에 하류층에서 하던 놀이로, 고려, 조선 왕조를 통해 계승되었다.
-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데 조콘다의 부인 엘리자베타를 그린 초상화. 정숙한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로 유명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세로열쇠]

- 매년 10월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 일대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불꽃축제. 올해는 10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다.
-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
- 오우삼 감독의 대표작이자 홍콩 노와르의 최고 걸작.
- 조선시대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 광혜원을 고친 것으로,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 동양인 최초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한 후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
- '낙시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8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스트라토 가수의 삶을 그린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의 영화.
-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 일출'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다.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연작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했다.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위치한 섬으로, 비가 내리면 북한강의 물이 불어 섬이 약간 잠기었다가 나타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04년부터 매년 10월 국내외 정상급 재즈연주자들이 참가하는 재즈축제가 열리고 있다.
- 만화책부터 영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까지 종횡무진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상의 슈퍼히어. 최근 7번째 영화시리즈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됐다.
- 김치의 옛말.
- 찰현악기의 하나. 고려 예종 때에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속이 빈 둥근 나무의 한쪽에 오동나무 복판을 붙이고 긴 나무를 꽂아 줄을 활 모양으로 건 악기이다.
- 국제축구연맹.
- 야구에서, 타자가 공을 치도록 정해 놓은 구역.
- 천재무용가 피나 바우쉬의 작품세계를 현존하는 최고의 시네아티스트 빔 벤더스 감독이 그려낸 다큐멘터리.
- 1925년 김동인이 발표한 단편소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몰락해가는 복녀라는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우리나라 초기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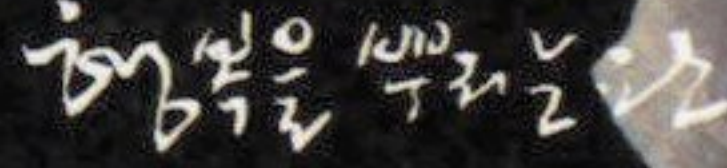

장사익 소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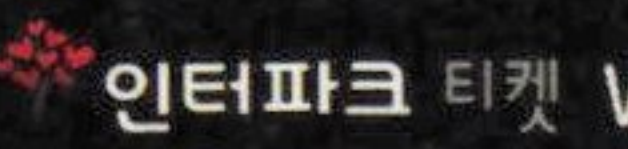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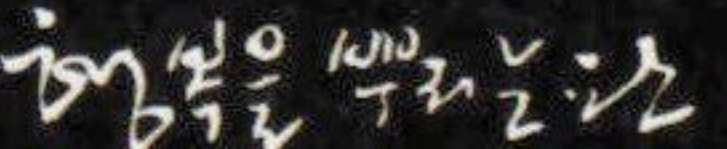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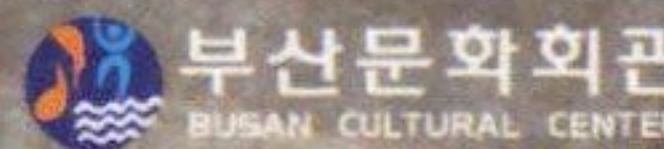
인간스럽고 고맙고 기쁘다!



2012.11.29 목 - 3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장사익을 부르노라 후원 부산  KBS

예매  인터파크 티켓 www.interpark.com  장사익을 부르노라 051-638-0514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입장료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문의 051-638-0514 / 051-607-6057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2012년 10월 공연일정

2012
October
10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부산문화회관 제6기 문화대학(9.5~10.31) - 매주 수요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10월 10일 강사/김용택(시인), 10월 17일 강사/김정애(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10월 24일 강사/권오숙(영문학자), 10월 31일 강사/강현(문화평론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전시일정 2012 부산비엔날레-대, 중전사실 9월 22일(토)-11월 24일(일) 입장료: 일반 7천원, 학생 4천원 (예매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부산비엔날레(503-6111)	01 노열합창단 제5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노열합창단(010-3564-3439)	02 부산시립합창단 제45회 정기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03 부산무용극단 결선 14:00 KBS(620-7327)	04 오페라 '마술피리' 19:30 15만원·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010-8520-4649) 박유미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유미(010-4280-7365)	05 오페라 '마술피리' 19:30 15만원·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부산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이진성 클래식 제2악회 19:00 무료/박기영(010-2567-0983)	06 오페라 '마술피리' 17:00 15만원·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부산시립극단 제45회 정기공연 '말괄량이 길들이기' 15:00, 19: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토요일상설무대-국악연주단 다루 16:00 무료(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07 인코리아인삼포니오케스트라 제42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 (사)인코리아인삼포니오케스트라(627-8088)	08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4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 듀오협회(010-6531-0307)	09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제4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 듀오협회(010-6531-0307) 3인 연주회 19:30 무료/최혜지(010-7251-7743)	10 2012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9:30 7만원·5만원·3만원/영앤임(02-720-3933)	1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2 부산시립합창단 제143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B-boy 'Step Crew' 와 만나다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3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4:00 무료/(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합창(513-4306) 소프라노 신민원 귀국 독창회 19:00 초대/부산아트메니지먼트(740-5833)
14 인코리아인삼포니오케스트라 제42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 (사)인코리아인삼포니오케스트라(627-8088)	15 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16:00 무료/광남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010-4555-1470)	16 제21회 이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엄현섭(010-9334-6947)	17 이태리음악연구회 제35회 정기연주회 '모짜르트 아리아의 밤' 19:30 균일 1만원/이태리음악연구회(010-7767-4390)	1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9 제6회 테너 주중식, 바리톤 최성규 Duo Concerto '가곡과 함께 하는 가을' 19:30 균일 2만원/최성규(010-3564-3439)	2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8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1 협주곡의 밤 17:00 무료/선 기획(010-7506-2500)	22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011-833-0621)	23 2012 부산합창제 19:30 무료/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24 2012 강이희 & 미아아트댄스컴퍼니 '치유의 몸짓-물 깊은 여인들' 19:30 균일 2만원/미아아트댄스컴퍼니(758-2150)	2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과거를 회상하며...'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6 일파가야금합주단 제14회 정기연주회 한·몽골 '현의 축제' 두번째 19:30 1만원·5천원/ 일파가야금합주단(582-9119, 010-4544-5505)	27 2012 부산청소년합창제 17:00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28 윤리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주)마스트엔터테인먼트(02-541-2512~3)	29 아모르제 성악연구회 제2회 정기연주회 '가을에 어울리는 가곡과 함께' 19:30 초대/아모르제 성악연구회(010-3868-2808)	30 아모르제 성악연구회 제2회 정기연주회 '가을에 어울리는 가곡과 함께' 19:30 초대/아모르제 성악연구회(010-3868-2808)	31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합창단 2012 정기연주회 19:30 초대/경성대학교 음악학부(663-4918)	11/1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1/2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1/3 바리톤 민정식 독창회 19:00 초대/멜로메니아(301-9701)
	11/1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1/2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1/3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October 2012 Program Guide

2012
October
10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M.Y.C Busan Metropolitan Youth Chorus

sun	mon	tue	wed	thu	fri	sat
Exhibition Hall 2012 Busan Biennale Main & Middle Exhibition Hall 9.22(Sat)- 11.24(Sun) Busanbiennale(503-6111)	01 Ⓜ The 53rd Regular Concert of Noel Choir 19:30 Free/Noel Choir(010-3564-3439)	02 Ⓜ The 44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19:30 10,000/ Busan Piano Duo Association(010-6531-0307)	03 Ⓜ Busan Dance Concours -Final 14:00 KBSI(620-7327)	04 Ⓜ Opera 'A Magic Flute' 19:30 150,000/100,000/70,000/50,000/30,000/ Agimus Oprea Company(070-7522-4649)	05 Ⓜ Opera 'A Magic Flute' 19:30 150,000/100,000/70,000/50,000/30,000/ Agimus Oprea Company(070-7522-4649)	06 Ⓜ Opera 'A Magic Flute' 17:00 150,000/100,000/70,000/50,000/30,000/ Agimus Oprea Company(070-7522-4649)
07	08 Ⓜ The 44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19:30 10,000/ Busan Piano Duo Association(010-6531-0307)	09 Ⓜ The 44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19:30 10,000/ Busan Piano Duo Association(010-6531-0307)	10 Ⓜ Busan Dance Concours -Final 14:00 KBSI(620-7327)	11 Ⓜ The 34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ist-Club 19:30 10,000/ Busan Pianist Club(890-1326, 010-2009-1090)	12 Ⓜ The 143rd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Carmina Brana' 19:30 10,000/7,000/5,000/Busan Metropolitan Chorus	13 Ⓜ The 5th Korea Youth Harmony Festival 14:00 Free/ Busan Pramita Youth Association(513-4306)
14 Ⓜ The 42nd Regular Concert of Incorean Orchestra 19:30 20,000/10,000 Incorean SymphonyOrchestra(627-8088)	15 Ⓜ The 6th Regular Concert of Gwangnam United Orchestra 16:00 Free/ Gwangnam United Orchestra(010-4555-1470)	16 Ⓜ The 21st Regular Concert of Amitie Vocal Study Group 19:30 10,000 /Eom Hyeonseop(010-9334-6947)	17 Ⓜ Kang Donsuk's Hope Concert 19:30 70,000/50,000/30,000 Youngandlpsum(02-720-3933)	18 Ⓜ The 483rd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 /B.P.O (607-3111-3)	19 Ⓜ The 6th Ju Jongsik - Choi Sungkyu Duo Concert 'The Fall with Song' 19:30 20,000/Choi Sungkyu(010-3564-3439)	20 Ⓜ The 13th Busanilbo Voice Competition 13:00 Busanilbo(461-4436)
21 Ⓜ The Night of Concerto 17:00 Free /Sun Management(010-7506-2500)	22 Ⓜ The 10th Regular Concert of Busan Women Chorus 19:30 Free /Busan Women Chorus (011-833-0621)	23 Ⓜ 2012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usan Metropolitan Chorus (607-3141-2)	24 Ⓜ 2012 Busan Chorus Festival 19:30 Free/Busan Metropolitan Chorus (607-3141-2)	25 Ⓜ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Recollection of the Past' 19:30 2,000/ B.P.Y.O(607-3111-3)	26 Ⓜ The 14th Regular Concert of Il-pa Gayaguem Ensemble 19:30 10,000/5,000 Il-pa Gayaguem Ensemble(582-9119)	27 Ⓜ 2012 Busan Youth Harmony Festival 17:00 Free/ B.M.Y.C(607-3161-2)
28	29 Ⓜ Yundi Li's Piano Concerto Concert 19:30 Invitation/Master Entertainment(02-541-2512-3)	30 Ⓜ The Regular Concert of Amorose Vocal Study Group(With Fall Song) 19:30 Invitation Amorose Vocal Study Group(010-3868-2808)	31 Ⓜ The Regular Concert of Kyung-sung University Chorus 19:30 Invitation Kyungsung Chorus(663-4822)	11/1 Ⓜ The 13th Busanilbo Voice Competition 13:00 Busan Ilbo(461-4436)	11/2 Ⓜ The 50th Anniversary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	11/3 Ⓜ Baritone Min Jeongsik Recital 19:00 Invitation/Min Jeongsik(301-9701)
		Ⓜ The Regular Concert of Amorose Vocal Study Group(With Fall Song) 19:30 Invitation Amorose Vocal Study Group(010-3868-2808)	Ⓜ Cho Heejung's Dance Performance 20:00 10,000/5,000/ Jung Kyung-eun(010-6711-3922)		Ⓜ 2012 Kim Bokseon Ballet Performance 19:00 Kim Bokseon Ballet Company(200-7823)	Ⓜ 2012 Kim Heeun's Dance Performance 'Abschaum' 19:00 20,000/10,000 Kim Heeun's Dance Company(890-2507)

Carl Orff Carmina Burana B-Boy StepCrew

칼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와 비보이 “스텝크루”와 만나다



비보이 StepCrew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소프라노 박미자



바리톤 차종훈



테너곽성섭



지휘 오세종

2012. 10. 12 | 금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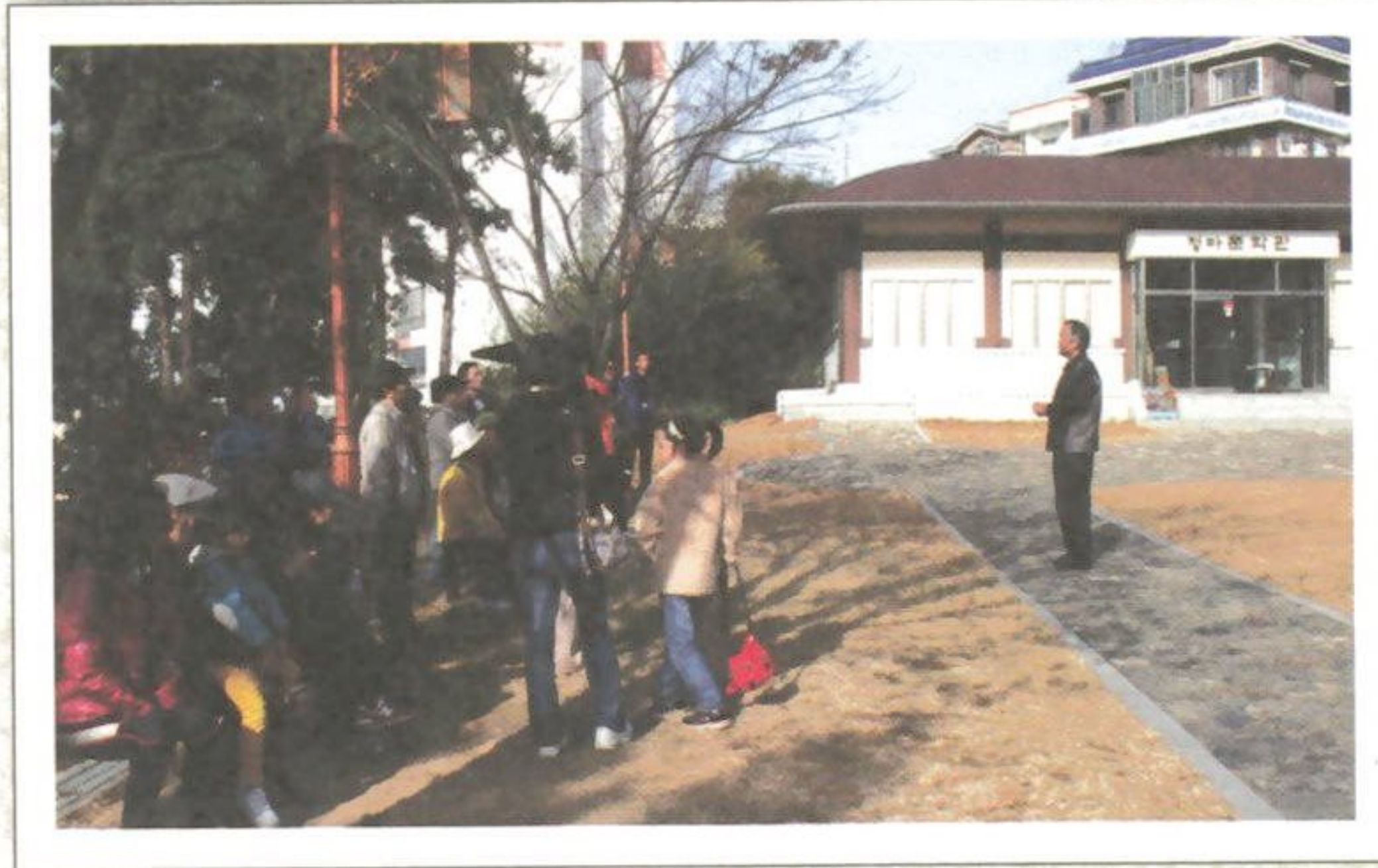
입장료. R석-10,000원, S석-7,000원, A석-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시립합창단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예향의 도시 통영 여행

2012년 11월 9일(금)

가을빛으로 물든 한려수도의 심장 통영으로 떠나는 문화예술기행. 작곡가 윤이상, 시인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극작가 유치진, 소설가 박경리, 화가 전혁림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통영도착, 청마문학관, 이순신공원, 동피랑 벽화골목
- 12:30 중식
- 13: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윤이상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 탐방
- 16:30 부산으로 출발



나를 찾아 떠나는 합천 여행

2012년 12월 14일(금)

대장경 천년의 신비를 고이 간직한 합천 해인사와 새롭게 단장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지 주제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합천도착,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람
- 12:30 중식
- 13:30 해인사 탐방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e.busan.go.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2. October Vol.25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20%
Discount

센텀점

TODAI
Restaurant
Since 1985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트동기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20%
Discount



연극
잠뱅

30%
Discount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유리동물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30

박새별 Park Sae Byul

2012.10.12. FRI. PM 20: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문의 : 051.607.6058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5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팜뽕'

2012.10.12(금)-11.11(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극단 사계 20주년 기념 '우리동물원'

2012.10.10(수)-11.11(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2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2년 10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 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The new Audi A6 2.0 TDI

디젤세단의 새로운 영향력



Audi TDI의 효율성과 파워로부터, 새로운 영향력은 시작된다

더 좋은 디젤엔진만으론, 세상의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는다.
르망24시간레이스 6회 우승을 기록한 아우디 TDI가 선보이는, 압도적인 파워와 효율성.
한층 더 견고해지고 가벼워진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바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정교한 드라이빙 감각.
그리고 멈춰있을 때조차 다이내믹한 스타일이 드러나는 The new Audi A6만의 디자인까지.
아우디 TDI 모델로 더 완벽해진 The new Audi A6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영향력이 시작된다.

www.ucaro.co.kr

The new Audi A6 2.0 TDI 스페셜 금융프로그램

1. 저금리 유예 금융리스 / 할부금융: 월 309,155원 (36개월, 선납금 30%, 상환유예원금 65%)
 2. 저금리 3.46% 운용리스 (36개월, 보증금 30%, 잔존가치 30%)
 3. 저금리 36개월 할부금융 (선수금 30% 기준) 또는 취득세 지원
- 상기 프로그램 이용 기간 중 신차 교환 프로그램 적용

* 기간 : 10월1일~10월31일 * 상기 프로그램은 Audi A6 2.0 TDI mu, 모델기준이며 기타 모델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Audi Financial Service 이용 시 적용되며, 조기마감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공제 부대비용 별도 부담 조건

전시장

- 부산 남 천 051-611-3844
- 부산 해운대 051-740-5566
- 창원 055-245-2233

서비스센터

- 부산 남 천 051-628-0056
- 부산 민 락 051-626-0056
- 창원 055-245-0999

Service Namcheon



Service Millak



Service Changwon



아우디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주)

골프는 다시 시작된다



월 239,518원
진화된 골프의 진화된 차스

골프의 진화, 마침내 카브리올레를 완성하다 - The new Golf Cabriolet

해치백의 교과서 폭스바겐 골프가 마침내 선보인 골프 카브리올레
오리지널 골프의 강력한 힘과 9초만에 개폐되는 소프트탑이
만들어낸 짜릿한 오픈 탑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활짝 열린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광고지면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시장에 내방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혜택까지 활짝 열린 특별한 유예 금융 프로그램

유예할부/ 금융리스	Golf 1.6 TDI BMT	Golf 1.4 TSI	Golf 2.0 TDI	Golf GTD	Golf GTI	Golf Cabriolet
	199,730원	172,281원	212,231원	214,794원	219,957원	239,518원

* 유예할부/금융리스 월납입금 36개월 선수금 30% 상환유예 65%

위 프로그램은 Volkswagen Financial Services Korea 이용 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Volkswagen. Das Auto.

Your Volkswagen Partner
유카로오토모빌(주)
www.ucaro.co.kr

[부산 전시장]
부산 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52-32
Tel. 051-611-5500

[부산 서비스 센터]
부산 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2-9
Tel. 051-628-5533

[창원 전시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3
Tel. 055-245-7788

[창원 서비스 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45-3
Tel. 055-245-8383

[울산 Office]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13
Tel. 052-257-3443

[차종 및 표준 연비] Golf Cabriolet 2.0 TDI BlueMotion (6단 DSG, 배기량:1968cc, 공차중량:1583kg, 복합CO2: 116g/km, 복합연비 16.7km/ℓ (도시 14.7km/ℓ, 고속도로 20.1km/ℓ),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